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저널리즘, ~~가짜뉴스~~ & 허위정보

저널리즘 교육과 훈련을 위한 핸드북

유네스코 저널리즘 교육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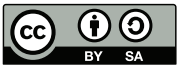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2020년 유네스코(UNESCO) 발간,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유네스코회관, 대한민국;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 2층 미디어교육원, 대한민국.

© UNESCO 2018
ISBN: 979-11-90615-04-4



이 출판물은 오픈 액세스 정책에 따라 'Attribution Share 3.0 IGO (CC-BY-SA 3.0 IGO) 라이선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igo/)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출판물을 이용할 때는 유네스코 오픈 액세스 저장소(http://www.unesco.org/open-access/terms-ues-ccbysa-en)의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제: Journalism, "Fake news" & Disinformation. 2018년 유네스코(UNESCO)가 첫 발간,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이 출판물에 사용된 명칭과 자료는 특정 국가, 영토, 도시, 지역이나 지역 당국의 법적 지위, 또는 국경이나 경계의 확정 등에 관한 유네스코의 어떠한 의견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출판물에 표현된 것은 저자들의 생각과 의견이며, 유네스코의 공식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편집자: 체릴린 아이어톤, 줄리 포세티
저자: 줄리 포세티, 체릴린 아이어톤, 클레어 와들, 호세인 데락샨, 앨리스 매튜스, 마그다 아부-파딜, 톰 트레위나드, 퍼거스 벨, 알렉시오스 만찰리스
추가 조사: 톰 로우
그래픽 디자인: 클린턴
표지 디자인: 클린턴
일러스트레이션: 유네스코, 퍼스트 드래프트, 포인터
조판: 유네스코
인쇄: 금강기획인쇄
발간 국가: 대한민국

기　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감　수: 이숙정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강인경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편　집: 송은아

옮긴이: 김익현 지디넷코리아 미디어연구소장
〈증발〉 〈비욘드 뉴스, 지혜의 저널리즘〉 〈하이퍼텍스트 3.0〉 등 해외 전문 서적을 다수 번역했다. 〈글쓰기 공간〉으로 2010년 한국방송학회번역상을, 〈비욘드 뉴스, 지혜의 저널리즘〉으로 2016년 한국언론학회 번역상을 받았다.

체릴린 아이어톤,
줄리 포세티

저널리즘, 가짜뉴스 & 허위정보

저널리즘 교육과 훈련을 위한 핸드북

목차

머리글 *가이 버거* 7

서론 *체릴린 아이어톤, 줄리 포세티* 13

이 핸드북을 모델 커리큘럼으로 활용하기 *줄리 포세티* 23

[모듈1] 진실, 신뢰, 그리고 저널리즘: 왜 중요한가 28

체릴린 아이어톤

요약 29
개요 30
모듈 목표 35
학습 성과 36
모듈 형식 36
과제 제안 36
독서 자료 37

[모듈2] '정보 무질서'에 대해 생각해보기: 잘못된 정보, 허위정보, 그리고 유해정보의 형식 38

클레어 와들, 호세인 데락샨

요약 39
개요 39
모듈 목표 45
학습 성과 45
모듈 형식 46
과제 제안 47
독서 자료 47

[모듈3] 뉴스 산업 변형: 디지털 기술, 소셜 플랫폼 그리고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의 확산 49

줄리 포세티

요약 50
개요 51
모듈 목표 58
학습 성과 58
모듈 형식 59
과제 제안 60
독서 자료 60

[모듈4]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를 통한 허위정보·잘못된 정보와의 전쟁 63

마그다 아부 파딜

요약 64
개요 65
모듈 목표 68
학습 성과 68
모듈 형식 69
과제 제안 71
독서 자료 71

[모듈5] 팩트체킹 101 73

알렉시오스 만찰리스

요약 74
개요 74
모듈 목표 79
학습 성과 80
모듈 형식 80
과제 제안 83
독서 자료 84

[모듈6] 소셜 미디어 검증: 정보원과 시각 콘텐츠 평가하기 87

톰 트레위나드, 퍼커스 벨

개요 88
모듈 목표 93
학습 성과 93
모듈 형식 93
과제 제안 95
독서 자료 95

[모듈7] 온라인 괴롭힘과의 전쟁: 저널리스트와 취재원을 겨냥한 공격 99

줄리 포세티

요약 100
개요 101
모듈 목표 107
학습 성과 107
모듈 형식 107
과제 제안 108
독서 자료 109

저자 110
사진 크레딧 110

온라인에서 이 핸드북 접속하기

저자 각주와 링크 확인: http://en.unesco.org/fightfakenews

머리글

유네스코(UNESCO)는 저널리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책은 (유네스코가 제공하는) 가장 최신의 최첨단 자료이다.

이 책은 유네스코 국제 커뮤니케이션 개발 사업(Inter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IPDC)이 주력하고 있는 '탁월한 저널리즘 교육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Education)'의 일환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국제적인 모범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 관점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치고 실천하며 연구하는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핸드북은 여러 나라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 커리큘럼이 될 것이다. 이 커리큘럼을 그대로 채택하거나 각국 상황에 맞게 수정해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특히 저널리즘 영역의 문제로 떠오른 허위정보(disinformation) 문제에 대응하려 한다.

이 책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란 용어가 명료하거나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상정하지 않는다.[1]

'뉴스'란 공중이 관심을 갖는 것 중 확인 가능한 정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보에는 뉴스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가짜뉴스'는 검증 가능성과 공중의 이익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 즉 진짜 뉴스(real news)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모순어법이다.

시각적 밈(meme)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포함해 허위정보의 형식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이 책은 뉴스 장르의 언어와 관행을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사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런 사기 행위를 사기정보(phony information)로 분류해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이 책에서 허위정보는 거짓 정보(dishonest information)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때로는 교묘하게)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조종하려는 행위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허위정보는 수평적이면서도 상호 교차하는 여러 의사소통 전략과 자주 합쳐지고, 때로는 해킹이나 사람들의 평판을 훼손하려는 여러 전략과 겹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는 조작이나 나쁜 의도 없이 생산·배포되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지칭하는 말이다. 둘 다 사회적 문젯거리이지만 허위정보가 특히 더 위험하다. 허위정보는 자동생산기술로 만들어지고 풍부한 자료가 덧붙여져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허위정보 유포자들은 해당 정보를 크게 떠들어대거나 널리 퍼뜨릴 의향이 있는 수신자들의 심리 상태나 당파적 성향을 주로 공략한다.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의 성향을 악용해 우리를 메시지 전달 통로로 만들어버린다. '가짜뉴스'는 대개 공짜로 제공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즉, 고품질 저널리즘에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독립적인 공영 뉴스 미디어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에 특히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는 주로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메신저를 통해 대량 유포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규제 범위와 자율규제 여부가 새로운 문젯거리로 떠오른다. 콘텐츠 생산자가 아닌 매개 플랫폼이라는

1 Tandoc, E; Wei Lim, Z and Ling, R. (2018). "Defining 'Fake News': A typology of scholarly definitions" in Digital Journalism (Taylor and Francis) Volume 6, 2018-Issue2: 'Trust, Credibility, Fake News' 참고.

특성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까지 (저작권 영역을 제외하면) 가벼운 규제만 받아 왔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비록 불완전하긴 하지만-점점 자율규제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2]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은 2018년 연례보고서에서 이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뉴스 미디어로부터 자율규제를 배우라고 인터넷 기업에 촉구하며, 정보의 전달과 추구, 그리고 수용할 권리에 대한 UN의 기준도 더 잘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3] 각 나라와 기업이 강구 중인 이러한 조치가 빠르게 발전해가는 가운데 저널리스트와 뉴스 미디어가 담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룬다.

차이 구분하기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는 직업 기준과 윤리를 충족시키는 (고품질) 저널리즘과는 다르다. 동시에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취약한 저널리즘(weak journalism)과도 다르다. 예를 들어 문제가 많은 저널리즘에는 조사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실수가 계속 (혹은 고쳐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장하거나, 공정성을 희생하면서 상당히 당파적으로 사실을 선택하는 등 선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념적 색채를 띤 저널리즘을 수준 미달로, 그리고 모든 내러티브와 관점을 초월하는 저널리즘을 이상적인 것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저널리즘은 내러티브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준 이하 저널리즘의 문제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전문성 부족에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취약한 저널리즘이 여전히 허위정보나 잘못된 정보와 다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낮은 저널리즘은 때로는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그런 정보가 진짜 뉴스 시스템 안으로 흘러들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취약한 저널리즘의 원인과 대책은 허위정보 및 잘못된 정보의 경우와는 다르다. 동시에, 정보 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뉴스까지 광범위하게 손상시키는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4]에 대한 대안과 해독제로서 강력한 윤리적 저널리즘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지금 저널리스트는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다. 그들 역시 이 과정 안에 속해 있다. 연구에 따르면 가나의 뉴스룸에는 각종 위협에도 불구하고 허위정보와 싸울 수 있는 시스템, 예산,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5] 이런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2 Manjoo, F, (2018). What Stays on Facebook and What Goes? The Social Network Cannot Answer. The New York Times, 19. July 2018. https://www.nytimes.com/2018/07/19/technology/facebook-misinformation.html[2018.7.20. 접속]; https://www.rt.com/usa/432604-youtube-invests-reputable-news/ [2018.7.15. 접속]; https://youtube.googleblog.com/[2018.7.15. 접속]; https://sputniknews.com/asia/210807111066253096-whatsapp-seeks-help-fake-news/ [2018.7.15. 접속]

3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진흥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UN Human Rights Council 2018년 4월 6일. A/HRC/38/35,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8/096/72/PDF/G1809672.pdf?OpenElement [2018.7.20. 접속]

4 [역주] 스필오버 효과: 물이 흘러넘쳐서 인근의 메마른 논에까지 혜택을 미치는 현상. 즉 특정 현상이 다른 현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5 Penplusbytes, 2018, Media Perspectives on Fake News in Ghana 참고. http://penplusbytes.org/publications/4535/ [2018.6.12. 접속]

▷ 저널리즘은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의) 소음에 파묻힐 위험에 처해 있다.

▷ 저널리스트는 홍보 활동의 윤리를 벗어나 그들을 속이거나 타락시켜서 허위정보를 유포하도록 조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6]

▷ '불편한 진실'을 포함해 진실 전달의 임무를 수행 중인 소통자로서 저널리스트는 그들과 저널리즘을 위협하며 신뢰를 떨어트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짓말과 루머, 짓궂은 장난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저널리스트가 허위정보를 의뢰하거나 직접 퍼뜨리는 사람들을 폭로하려 할 때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7]

허위정보가 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포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저널리스트는 권력자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진짜 뉴스 미디어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새로 제정된 가혹한 법률들은 언론사를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하며 희생양으로 삼거나, 모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활동을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광범위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언론사를 얽어매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규정들은 표현을 제한하는 규정의 경우 그 필요성이 명백해야 하며, 합법적인 목적 아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정한 국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늘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진짜 뉴스 미디어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정보를 억압하는 권한을 지닌 '진실 담당 부서(ministry of truth)'에 종속되기도 한다.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횡행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저널리즘에 대한 정당치 못한 규제가 아니다. 오히려 공중이 저널리즘을 비롯한 모든 콘텐츠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 더 우려된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공중은 그들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지지를 받는 콘텐츠는 어떤 것이든 믿을 만하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마음으로 동조하면서 이성적으로 따져보지는 않는다. 이런 태도가 건강, 과학, 문화 간 이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지식의 조건 등에 대한 공중의 믿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례는 이미 목격되고 있다.

공중에게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선거 때 큰 걱정거리가 될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사상까지 위협한다. 허위정보는 특히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게끔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고, 투표 행위에 필요한 이성적 판단을 약화시키기 위해 정보 흐름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8] 마찬가지로 이민이나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이슈 역시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초래한 불확실한 상황의 영향하에 놓일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면 대응이 저널리즘과 저널리즘 교육에서 꼭 필요한 요소로 떠오른 것은 이러한 위험 때문이다. 동시에 가짜뉴스의 위협은 뉴스 미디어의 가치를 알리는 데 전념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즉, 공중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와 교양 있는 논평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9]

---

6 Butler, P. 2018. How journalists can avoid being manipulated by trolls seeking to spread disinformation. http://ijnet.org/en/blog/how-journalists-can-avoid-being-manipulated-by-trolls-seeking-spread-disinformation. 이 책의 모듈3을 참고하라.

7 모듈7을 참고하라.

8 Lipson, D. (2018), Indonesia's 'buzzers' paid to spread propaganda as political elite wage war ahead of election, ABC News: http://mobile.abc.net.au/news/2-18-08-13/indonesian- buzzers-paid-to-spread-propaganda-ahead-of-election/9928870?pfmredir=sm [2018.8.18. 접속]

9 Nordic Council of Ministers. 2018. Fighting Fakes- the Nordic Way. Copenhagen: Nordic Council of Ministers. http://www.nordicom.gu.se/en/latest/news/fighting-fake-nordic-news [2018.6.12. 접속]

저널리스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이런 맥락에서 이제 뉴스 미디어는 직업 기준과 윤리에 좀 더 깊게 천착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생산을 피할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는 하지만 공중의 이익과 관련 없는 정보와 거리를 둘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정치적 지향이 어느 쪽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뉴스 조직과 저널리스트는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혹은 부주의한 방식으로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의 적절하게 일깨워주고 있다. 오늘날 많은 뉴스 미디어가 내부에 있던 팩트체크 직종을 없애면서, 이제는 저널리스트의 실수를 비판하는 블로거를 비롯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이른바 '제5부'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다만 이들은 기사가 배포되고 난 뒤에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내부의 팩트체커와 다르다.

뉴스 미디어로서는 이를 믿을 만한 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저널리스트는 더 많은 수용자가 독립적인 팩트체킹 조직의 활동을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외부 활동가들이 특정 언론사의 조직상 실패를 외부에 알릴 경우에는 적어도 해당 조직이 전문 뉴스 미디어로서 갖고 있는 브랜드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미디어는 일단 기사가 출고된 뒤 외부에서 바로잡는 과정으로는 조직 자체의 품질 관리 노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저널리스트가 좀 더 '제대로' 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가 신뢰할 만한 미디어를 소유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요약하면, 외부 감시자가 기사 출고 후에 기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시합에서 저널리즘은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취재원의 의심스러운 주장을 검증하는 저널리스트의 업무를 팩트체크 전문 조직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그 주장이 뉴스 미디어에 보도됐건, 아니면 저널리즘 조직이 아닌 소셜 미디어에 바로 노출됐건 상관없다). 취재원이 주장하는 내용의 신뢰성을 탐사하는 기자의 능력은 '맹목적 인용(he said, she said)' 수준의 저널리즘을 뛰어넘어, 향상돼야 한다.

저널리즘은 또한 주도적으로 허위정보의 새로운 사례와 형태를 탐지하고 밝혀내야 한다. 이 작업은 뉴스 미디어의 중요 임무일 뿐 아니라, 규제 일변도의 '가짜뉴스' 대처 방식에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화급하면서도 악영향을 끼치는 해로운 이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수용자에게는 허위정보, 잘못된 정보와 뉴스를 구분하는 능력을 부여해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같은 좀 더 중기적인 전략을 보충하고 강화해준다. 허위정보의 문제는 오늘날 매우 뜨거운 이슈다. 그러므로 저널리즘이 허위정보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저널리즘의 의무를 강화시켜주는 일이다.

따라서 이 핸드북은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사람들은 어떻게 신뢰성을 판단하며, 어떤 이들은 왜 검증할 수 없는 정보를 공유하는지 같은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저널리스트가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지금은 뉴스 미디어뿐 아니라 저널리즘 스쿨과 학생들, 미디어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수용자와 함께 강력한 시민 참여를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예를 들어 미디어가 소셜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수면 밑에서 유포되는 허위정보를 폭로해 보도하려 할 경우 '크라우드 소싱'은 매우 중요하다.

유네스코의 역할

유네스코 국제 커뮤니케이션 개발 사업(IPDC)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 새로운 자료는 독특하면서도 포괄적인 관점으로 허위정보의 다양한 역동성을 다룬다. 또 제시된 지식과 이해를 보완해주는 실질적인 기법도 함께 제공한다.[10] 이 모두는 저널리스트의 최상의 업무 수행과 자율규제를 격려하기 위해 그동안 유네스코가 해온 활동이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표출된 여러 문제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 책자는 유네스코가 출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저널리즘 교육: 새로운 교과과정(Teaching Journalis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Syllabi)》(2015)[11]과 《저널리즘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모델: 새 교과과정 해설(Model Curriculum for Journalism Education: A Compendium of New Syllabi)》(2013)의 후속 작업이다. 이 출판물들은 유네스코가 2017년 9개 언어로 출간했던 기념비적 저작물 《저널리즘 교육에 대한 교과과정 모델(Model Curriculum on Journalism Education)》[12]의 후속편이기도 하다.

이 밖에 저널리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한 유네스코의 출판물은 다음과 같다.

- ▷ 《저널리스트의 안전에 관한 교과 모델(Model course on the safety of journalists)》(2017)[13]
- ▷ 《테러리즘과 미디어: 저널리스트를 위한 핸드북(Terrorism and the Media: a handbook for journalists)》(2017)[14]
- ▷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저널리스트를 위한 가이드북(Climate Change in Africa: A Guidebook for Journalists)》(2013)[15]
- ▷ 《탐사 저널리즘 글로벌 사례집(Global Casebook of Investigative Journalism)》(2012)[16]
- ▷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탐구: 탐사 저널리스트를 위한 매뉴얼(Story-Based Inquiry: A Manual for Investigative Journalists)》(2009)[17]
- ▷ 《신중을 요하는 분쟁 보도: 저널리스트와 저널리즘 교사를 위한 최신 과정(Conflict-sensitive reporting: state of the art; a course for journalists and journalism educators)》(2009)[18]

이 출판물들은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가치 있게 활용되고 있다. 학생과 저널리스트뿐 아니라 저널리즘 교육학자와 교육자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며 역량이 향상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통찰에 맞추어 다년 프로그램 전체를 각색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기도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유네스코의 자료를 기존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번 출판물의 품질과 일관성 역시 독자들에게 동일한 가치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

10 IPDC 사무국은 2017년 6차 회의에서 저널리즘을 위한 새로운 핵심 주제와 관련해 새 교과과정 개발 예산을 특별 할당함으로써 탁월한 저널리즘을 위한 글로벌 계획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IPDC 사무국 회의 때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이때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이 배정됐다.

11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resources/publications-and-communication-materials/publications/full-list/teaching-journalism-for-sustainable-development/ [2018.6.12. 접속]

12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resources/publications-and-communication-materials/publications/full-list/model-curricula-for-journalism-education/ [2018.6.12. 접속]

13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8297 [2020.5.9. 역자 접속]

14 https://en.unesco.org/news/terrorism-and-media-handbook-journalists [2020.5.9. 역자 접속]

15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25451 [2020.5.9. 역자 접속]

16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17636 [2020.5.9. 역자 접속]

17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93078 [2020.5.9. 역자 접속]

18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resources/publications-and-communication-materials/publications/full-list/conflict-sensitive-reporting-state-of-the-art-a-course-for-journalists-and-journalism-educators/ [2020.5.9. 역자 접속]

유네스코는 정부 간 기구이기 때문에 정보를 둘러싼 논쟁의 지정학적 지형에서 어떤 편도 들지 않는다. 잘 알려진 것처럼 허위정보와 관련해 다양한 주장과 반대 주장이 난무한다. 그러한 지식은 이 텍스트를 읽는 데도 스며들 것이다. 그뿐 아니라 독자들이 다양한 사례에 대해 더 나은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찰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반면 이 핸드북은 상대주의적 태도를 피하면서도, 평가와 행동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아래 역량을 각 페이지에 확고히 포함시켰다.

1. (투명하고 솔직하게 취재보도 되고, 검증 가능한) 뉴스가 민주주의, 발전, 과학, 건강, 그리고 인간 진보의 핵심이라는 지식,
2. 허위정보는 지엽적 문제가 아니며,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이 뉴스 미디어의 중요한 임무라는 인식,
3. 포괄적이며 정확한 저널리즘이, 위조된 콘텐츠를 대체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대안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향상된 전문 저널리즘 기술에 대한 전념.

이 출판물은 매우 효과적이며 필수적인 다른 리터러시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다루는 리터러시는 저널리스트 및 뉴스 미디어 조직과 특히 관련돼 있다. 이를테면:

1. 허위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탐사, 그리고 보도를 보장할 수 있는 뉴스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식과 기법,
2. 정보 오염과의 전쟁에서 미디어 기관, 저널리즘 스쿨, NGO, 팩크체크 전문가, 공동체, 인터넷 회사, 규제 당국 간의 협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지식,
3. 넘쳐나는 허위정보와, 나쁜 의도를 지니고 저널리스트를 상대로 허위정보 캠페인을 주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저널리즘을 수호하는 중요한 작업에 왜 공중이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결론적으로 이 책은 정부를 비롯해 국제기구, 인권 수호자, 인터넷 회사, 그리고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옹호자 등이 허위정보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사회적 대응을 하고 있음을 우리 사회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특히 저널리스트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저널리스트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강조한다.

우리는 소박하게나마 이 책을 통해 사회에, 그리고 '정보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공중의 접근'이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유네스코는 이 출판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편집자와 기고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독자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더불어 이 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

가이 버거(Guy Berger)

유네스코 표현의 자유 및 미디어 개발 국장,
유네스코 IPDC 사무국장

서론

체릴린 아이어톤(Cherilyn Ireton), 줄리 포세티(Jolie Posetti)[1]

이 핸드북은 저널리즘 교육학자와 교육자, 학생들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는 틀과 교과를 제공함으로써 모델 커리큘럼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장에서 뛰는 저널리스트에게도 유용한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 문제를 다루는 저널리즘 방법과 실제 사례를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국제적 저널리즘 교육학자와 연구자, 사상가들의 작업을 한데 모았다. 그들의 가르침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온라인 검증 영역에서는 매우 실용적이다. 이 책 전체 혹은 각 장을 독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교육 모듈을 새롭게 하거나, 새로운 교과과정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 이어지는 장에서 '이 핸드북을 모델 교과과정으로 이용하는 법'을 소개한다.

책 제목과 교과에 '가짜뉴스'란 단어를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오늘날 '가짜뉴스'는 뉴스처럼 가장한 뒤 유포되는 허위, 왜곡 정보(misleading information)라는 문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저널리즘을 훼손하고 평판을 떨어뜨리는 무기로 사용되는 정서적인 용어가 됐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와들(Wardle)과 데락샨(Derakhshan)이 제안한 것처럼[2] 잘못된 정보, 허위정보, 그리고 '정보 무질서(information disorder)' 같은 용어가 훨씬 선호되기도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 용어들을 채택하지는 않았다.[3][4]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 허위정보와 선전선동에 대한 공동 선언

이 핸드북은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가 주 타깃이 되는 '허위정보 전쟁'에 대한 걱정이 국제 사회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유네스코가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던 2017년 초에는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언론자유담당대표위원(Representative on Freedom of Media), 미주기구(OAS)의 언론자유 특별보고관(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아프리카인권위원회(ACHPR)의 언론 자유와 정보 접근을 위한 특별보고관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허위정보와 선전선동(Propaganda) 유포, 뉴스 미디어를 '가짜뉴스'로 공격하는 현상에 대해 놀라움을 드러냈다. 특별보고관과 대표위원들은 저널리스트와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나타냈다.

---

1 호주 〈ABC〉의 앨리스 매튜스(Alice Matthews)와 윤리적 저널리즘 네트워크(Ethical Journalism Network)의 톰 로우(Tom Law)가 이 서론에 반영된 연구, 아이디어, 자료에 기여했다.

2 모듈2를 보라.

3 많은 작가와 저널리스트가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반대 주장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Basson, A. (2016). If it's fake, it's not news. https://www.news24.com/Columnists/AdriaanBasson/lets-stop-talking-about-fake-news-20170706 [2018.6.12. 접속]

4 Wardle, C. et al. (2018). "Information Disorder: the essential glossary". Shorenstein Center, Harvard University. https://firstdraftnews.org/wp-content/uploads/2018/07/infoDisorder_glossary.pdf?x25702 [2018.7.21. 접속]

"(우리는) 예를 들어 공공 기관이 미디어를 헐뜯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미디어가 "반대파"라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정치적 의제를 감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널리스트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공중의 감시견(watchdong)인 저널리즘에 대한 대중의 신임과 신뢰를 훼손할 위험을 증대시킨다. 허위정보와 독자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비롯한 미디어 생산물 간의 경계를 흐리게 함으로써 대중을 오도할 우려도 있다.[5]

허위정보는 오래된 얘기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로 더 강력해졌다

뉴스를 특별히 고귀한 법칙을 바탕으로 한 장르라고 규정한 현대 저널리즘의 표준이 확립되기 훨씬 오래 전부터, 정보를 동원하고 조작하는 사례를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초기 기록[6]에 따르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날 때 그의 정적인 옥타비아누스는 '고대의 트윗 같은 형태로, 짧고 신랄한 슬로건을 동전에 새겨'[7] 비방 캠페인을 시작했다. 가해자였던 옥타비아누스는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됐으며 '가짜뉴스 덕분에 공화정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었다.'[8]

하지만 21세기 들어 정보를 무기로 삼는 현상이 유례없는 규모로 이뤄지고 있음이 목격된다. 강력한 신기술 덕분에 정보 조작과 위조가 한층 간단해졌다. 국가, 포퓰리스트 정치인, 정직하지 못한 기업체가 내놓는 거짓말을 대중이 무비판적으로 공유하면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급속히 확대된다. 플랫폼이 '자동화된 선전선동(computational propaganda)'[9], '트롤링(trolling)'[10], 그리고 '트롤 아미(troll armies)'[11], '다중 계정(sock-puppet)의 네트워크'[12], 그리고 '스푸퍼(spoofers)'[13] 들에게는 비옥한 활동 기반이 됐다. 그리고 선거를 노린 '트롤 팜(troll farm)'[14]이 등장했다.[15]

시대와 기술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핸드북이 다루고 있는 '정보 무질서'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위기에 대해 서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보도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

5 UNESCO/OAS/ACHPR(2017).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Propaganda: https://www.osce.org/fom/302796?download=true [2017.3.29. 접속]. Kay, D(2017) Statement to the UN General Assembly on October 24th, 2017도 참고하라.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2300&Lang=E [2018.8.20. 접속]

6 국제언론인센터(ICFJ)가 출간한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클레오파트라 시대부터 현재까지-'정보 무질서' 표현 사례 타임라인을 참고하라. Posetti, J & Matthews, A (2018): https://www.icfj.org/news/short-guide-history-fake-news-and-disinformation-new-icfj-learning-module [2018.3.28. 접속]

7 Kaminska, I. (2017). A lesson in fake news from the info-wars of ancient Rome.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aaf2bb08-dca2-11e6-86ac-f253db7791c6 [2018.3.28. 접속]

8 ibid.

9 옥스퍼드 인터넷연구소(Oxford Internet Institute)의 자동화된 선전선동 프로젝트(Computational Propaganda Project)를 참고하라. http://comprop.oii.ox.ac.uk/ [2018.7.20. 접속]

10 이런 위협 사례는 이 핸드북 모듈7의 사례 연구를 보라.
[편집자 주] 트롤링: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내용을 일부러 공격적으로 올림으로써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도발하는 행위.

11 Rappler.com (2018) Fake News in the Philippines: Dissecting the Propaganda Machine. https://www.rappler.com/newsbreak/videos-podcasts/199895-fake-news-documentary-philippines-propaganda-machine [2018.7.20. 접속][편집자 주] 트롤 아미: 온라인 공격 부대.

12 Gent, E. (2017). Sock puppet accounts unmasked by the way they write and post.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127107-sock-puppet-accounts-unmasked-by-the-way-they-write-and-post/ [2018.7.19. 접속] [편집자 주] 다중 계정: 온라인상에서 남을 속이기 위해 만드는 가짜 아이디.

13 Le Roux, J. (2017). Hidden hand drives social media smears. https://mg.co.za/article/2017-01-27-00-hidden-hand-drives-social-media-smears/ [2018.7.19. 접속]
[편집자 주] 스푸퍼: 원래는 조롱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가짜 IP 주소를 사용하여 다른 이들의 컴퓨터를 공격하는 사람을 의미.

14 [편집자 주] 트롤 팜: 인터넷 커뮤니티에 분쟁을 조장하는 글이나 댓글을 의도적으로 남기는 일을 하는 악의적 댓글 부대.

15 Silverman, C. et al (2018) American Conservatives Played a Role in the Macedonian Fake News Boom of 2016. Buzzfeed.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craigsilverman/american-conservatives-fake-news-macedonia-paris-wade-libert [2018.7.20. 접속]

저널리스트, 저널리즘 교육자 및 교육학자(그리고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의 역사적 현상인 허위정보, 선전선동, 날조와 풍자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16]

따라서 허위정보와 전쟁을 하기 위한 저널리즘 전략을 발전시키려면, 먼저 정보 조작의 역사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반면, 저널리즘 전문직주의의 진화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17] 저널리즘이 현대 사회에서 규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뉴스 미디어는 대부분 정보 조작이나 은밀한 공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운영될 수 있었다. 뉴스 미디어는 저널리즘이 진실 보도의 직업적 기준, 검증의 원칙과 방법, 그리고 공익을 위한 윤리를 추구하면서 보호를 받아온 것이다. 저널리즘은 유사 저널리즘과 차별을 꾀하는 많은 단계와 반복 과정을 거쳐 왔다. 다양한 '저널리즘들'을 볼 수 있는 오늘날에도, 진짜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여러 내러티브가 정치적·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편집을 추구하는 등 윤리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관행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정보를 훼손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규칙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15세기 중반부터 널리 퍼져나간 구텐베르크 인쇄기는 전문 저널리즘이 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인쇄 기술은 선전선동과 거짓말을 증폭시키고, 때로는 미디어 조직을 가해자로 얽어 넣기도 했다.[18] 방송은 선전선동, 날조, 조롱 같은 것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 올릴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중에서도 1938년 화성인 침공 보도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우주전쟁(War of the Worlds)' 라디오 드라마가 그 예이다.[19] 또한 국제방송이 등장하면서 정보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뉴스라는 조건을 넘어 도구화되는 현상도 목격할 수 있었다. 물론 이야기를 완전히 '꾸며내거나' 직접 조작하는 일은 미디어 내러티브의 규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만우절' 농담에 참여해 온 오랜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만한 교훈이 있다. 때로는 저널리스트가 '만우절' 농담에 참여하기도 했다.[20] 심지어 오늘날에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풍자 뉴스를–책임감 있는 저널리즘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21]–스트레이트 뉴스로 잘못 알고 유포시키는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22][23] 어떤 경우에는 역사 속 사례를 흉내 내어 소비자를 속여서 클릭과 공유를 유도하거나, 인터넷 광고 수익 사업을 하는 네트워크의 하위 사이트로서 풍자 사이트를 만드는 등 매우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런 행위는 모두 '사기' 콘텐츠이며, 뉴스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24] 이러한 이유로 저널리스트는 무엇보다 먼저 정확한 보도를 위해 단호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마찬가지로 수용자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25] 능력을 갖추도록 사회가 이끌어야 한다는 강력한 논거가 된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뉴스 미디어, 광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소셜 미디어 등 진화하고 있는 여러 장르와 관행에 대해 명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6 Posetti, J and Matthews, A (2018) A short guide to the history of 'fake news': A learning module for journalists and journalism educators ICFJ https://www.icfj.org/news/short-guide-history-fake-news-and-disinformation-new-icfj-learning-module [2018.7.23. 접속]

17 이 핸드북의 모듈3을 참고하라.

18 예를 들어 사상 첫 대형 날조 뉴스인 1835년의 'The Great Moon Hoax'를 보라.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Thorton, B. (2000). The Moon Hoax: Debates About Ethics in 1835 New York Newspapers,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15(2), pp. 89-100.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207/S15327728JMME1502_3?journalCode=hmme20 [2018.3.28. 접속]

19 Schwartz, A. B. (2015). The Infamous "War of Worlds" Radio Broadcast Was a Magnificent Fluke, The Smithsonian. http://www.smithsonianmag.com/history/infamous-war-worlds-radio-broadcast-was-magnificent-fluke-180955180/#h2FAexeJmuCHJfSt.99 [2018.3.28. 접속]

20 Laskowski, A. (2009). How a BU Prof April-Fooled the Country: When the joke was on the Associated Press, BU Today. https://www.bu.edu/today/2009/how-a-bu-prof-april-fooled-the-country/ [2018.4.1. 접속]

21 Baym, G (2006) The Daily Show: Discursive Integration and the Reinvention of Political Journalism in Political Communication Taylor and Francis Volume 22, 2005- issue 3 pp 259-276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0584600591006492 [2018.7.20. 접속]

22 Woolf, N. (2016) As fake news takes over Facebook feeds, many are taking satire as fact,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6/nov/facebook-fake-news-satire [2018.4.1. 접속]

23 Abad-Santos, A. (2012). The Onion Convinces Actual Chinese Communists that Kim Jong-Un is Actually the Sexiest Man Alive, The Atlantic. https://www.theatlantic.com/culture/archive/2012/11/onion-convinces-actual-chinese-communists-kim-jong-un-actually-sexiest-man-alive/321126/ [2018.3.28. 접속]

24 이 책 모듈3에서는 이 주제를 좀 더 폭넓게 다룬다.

25 모듈4를 참고하라.

또한 우리는 역사를 통해 허위정보 뒤에 숨어 있는 세력들이 반드시 저널리스트 혹은 일반 수용자를 속여서 잘못된 주장을 진실로 믿게끔 만들거나, 전문 뉴스 생산자가 만든 믿을 만한 정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겠다고 의도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혼란을 통해 우리는 점점 많은 뉴스 소비자가 때때로 정당한 비판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정치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사실'을 선택하거나 만들어낼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매우 효과적인 신기술 도구가 널리 퍼졌던 2018년으로 돌아가 보자. 신기술 도구 덕분에 합법적인 뉴스 브랜드를 위조하고 모방한 뒤 진짜처럼 믿게끔 만드는 사기 행위가 한결 수월해졌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뉴스가 되는지 결정하는 품질 관리 표준이 부족했던 소셜 미디어와 메시지 플랫폼의 특성도 한몫 했다. 또한 합법적인 뉴스 편집 과정 없이 곧바로 누군가 특정 장소에서 특정 행위 또는 특정 발언을 한 것 같이 오디오와 동영상을 교묘하게 만든 뒤 진짜 기록인 것처럼 속여[26], 소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널리 퍼트리는 것도 가능해졌다.

오늘날 개인적 것부터 정치적인 것까지 많은 콘텐츠가 소셜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와(또는) 홍보회사들이 정치적, 상업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공공연하게, 혹은 암암리에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례가 많다. 그 결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블로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그리고 유튜브 스타들이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은 채 제품과 정치인을 홍보하고 있다. 온라인 포럼에서 누군가를 지지해주거나, 신용을 손상시키고 위협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심심찮게 가짜 신분으로 활동하기도 하는) 비평가들 역시 은밀히 대가를 받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저널리즘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때로 저널리즘은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편파적인 '뉴스' 조직과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허위정보가 유포되는 '군비경쟁'이 펼쳐지는 위험한 상황이 대두하고 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의 정보 환경을 오염시켜 결국 돌고 돌아 그런 행동을 처음 시작한 당사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27] 허위정보 캠페인에 노출된 곳에서는 관련 행위자들-대행사와 정치권에 있는 고객 모두(최근의 벨 포팅거(Bell Pottinger)[28][29][30][31]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32][33] 사례를 참고하라)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기술로 뜨겁게 달아오른 허위정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면서 저널리즘의 역할이 점점 더 축소되는 위기를 초래했다. 더욱이 대중이 관심을 갖고 공유하는, 입증할 수 있는 정보-결코 보증할 수 없는 최근의 역사적 성취-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저널리즘조차 조작을 피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

26 Solon, O (2017) The future of fake news: Don't believe everything you see, hear or read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7/jul/26/fake-news-obama-video-trump-face2face-doctored-content [2018.7.20. 접속]

27 Winseck, D (2008). Information Operations 'Blowback': Communication, Propaganca and Surveillance in the Global War on Terrorism.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70(6), 419-441

28 The African Network of Centers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2017). The Guptas, Bell Pottinger and the fake news propaganda machine, TimeLive. https://www.timeslive.co.za/news/south-africa/2017-09-04-the-guptas-bell-pottinger-and-the-fake-news-propaganda-machine/ [2018.3.29. 접속]

29 Cameron, J. (2017) Dummy's guide: Bell Pottinger- Gupta London agency, creator of WMC, Biznews https://www.biznews.com/global-citizen/2017/08/07/dummys-guide-bell-pottinger-gupta-wmc [2018.3.29. 접속]; Segal, D. (2018) How Bell Pottinger, P. R. Firm for Despots and Rogues, Mets Its End in South Africa, New York Times, 2018.2.4. https://www.nytimes.com/2018/02/04/business/bell-pottinger-guptas-zuma-south-africa.html [2018.3.29. 접속]

30 Haffajee, F. (2017). Ferial Haffajee: The Gupta fake news factory and me. HuffPost South Africa [online] https://www.huffingtonpost.co.za/2017/06/05/ferial-haffajee-the-gupta-fake-news-factory-and-me_a_22126282/ [2018.4.6. 접속]

31 모듈7을 참고하라.

32 Lee, G. (2018). Q&A on Cambridge Analytica: The allegations so far, explained, FactCheck, Channel4 News. https://www.channel4.com/news/factcheck/cambridge-analytica-the-allegations-so-far [2018.3.29. 접속]

33 Cassidy, J. (2018). Cambridge Analytica Whistleblower claims that cheating swung the Brexit vote, New Yorker, https://www.newyorker.com/news/our-columnists/a-cambridge-analytica-whistleblower-claims-that-cheating-swung-the-brexit-vote [2018.3.29. 접속]

않는다면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저널리즘이 허위정보의 유포 경로가 된다면 대중의 신뢰가 더 추락하며, 저널리즘 안의 여러 내러티브와 허위정보의 내러티브가 다르지 않다는 냉소적인 시각은 점점 커져갈 것이다.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이용해온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것은 그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여러 국면으로 진화한 '정보 무질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전례 없는 전 세계적 위협의 원인과 결과를 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국가가 인증한 '트롤 아미'의 저널리스트 괴롭히기부터 선거 조작, 공중 보건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기후변화가 초래할 위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 등 현재 전 세계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허위정보 위기 대처에 도움이 될 핸드북

이 핸드북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 세 개 모듈에서는 문제를 설정한 뒤 그에 맞는 적절한 맥락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네 개 모듈은 '정보 무질서'와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진실, 신뢰 그리고 저널리즘: 왜 중요한가'[34]란 제목을 단 모듈1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의 중요성과 결과,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저널리즘의 신뢰 위기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독려한다.

모듈2 ''정보 무질서'에 대해 생각해보기: 잘못된 정보, 허위정보, 그리고 유해정보의 형식'[35]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그 문제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시한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뜩이나 취약한 미디어의 신뢰성이 더 쇠퇴하고 있었다. 이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뉴스 영역에 들어와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도구를 제공하기 전부터 일어난 현상이다.[36] 그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뉴스룸의 인력 감축이 진행될 무렵 등장한 온라인 세계는 연중무휴 24시간 뉴스 콘텐츠에 대한 탐욕스러운 수요를 과시하면서 저널리즘을 바꿔 버렸다. 이런 현상은 모듈3 '뉴스 산업 변형: 디지털 기술, 소셜 플랫폼 그리고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의 확산'[37]에서 요약했다.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되는 사기성 뉴스의 엄청난 양과 기업적 수준의 규모, 그리고 도달 범위가 저널리즘에 새로운 위기를 몰고 왔다. 이런 현상은 저널리스트와 미디어, 그리고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38]

그렇다면, 저널리즘 교육자, 종사자, 그리고 미디어 정책 입안자들은 저널리즘의 진흥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모듈4의 주제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를 통한 허위정보·잘못된 정보와의 전쟁'[39]이다.

결국 전문 저널리즘을 다른 나머지와 구분하는 것은 바로 검증 훈련이다.[40] 모듈5 '팩트체킹 101'[41]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모듈6 '소셜 미디어 검증: 정보원과 시각 콘텐츠 평가하기'[42]는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로 인해 부각된 검증과 증거 기반 저널리즘이 직면한 어려움을 매우 실질적으로 다룬다.

소셜 웹 덕분에 모든 사람이 뉴스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로 인해 중앙 집중화된 수문장을 잃어버리고

34 모듈1을 보라.

35 모듈2를 보라.

36 Edelman. (2017). 2017 Edelman Trust Barometer- Global Results. https://www.edelman.com'global-results/ [2018.4.3. 접속]

37 모듈3을 보라.

38 Viner, K. (2017). A mission for journalism in a time of crisis. [온라인]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news/2017/nov/16/a-mission-for-journalism-in-a-time-of-crisis [2018.4.3. 접속]

39 모듈4를 보라.

40 Kovach B. & Rosenstiel, T. (2014).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New York: Crown Publishers; 이재경 옮김(2014),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한국언론진흥재단.

41 모듈5를 보라.

42 모듈6을 보라.

말았다.[43] 저널리즘도 이러한 결과를 잘 느끼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주도하는 다른 파괴적 현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상을 평가하고, 측정하며, 대응 방안을 도출해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연구와 구체적인 모범 실천 사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현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허위정보는 실로 전 세계적인 문제다. 정치 분야를 넘어 기후변화,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정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서화된 많은 사례 연구나 초기 대응, 그리고 연구 및 (대응) 도구를 위한 초기 자금은 주로 거대 글로벌 기술 기업이 자리한 미국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디어 조직과 저널리스트에게 '가짜뉴스' 옹호자라고 비난을 퍼부은 점 역시 이런 행동과 자금 지원을 촉발했다.

특히 개별 국가들이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의 상황이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많은 국가가 고려 중인 대응책은 규제와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이다. 거대 기술 기업들 역시 자신의 플랫폼에서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추방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이 핸드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44]에서 조사[45]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46]를 제출했다. 호주, 필리핀, 캐나다, 프랑스, 영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개별 국가의 정치인과 공공 정책 단체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47] 입법 측면에서는 독일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독일은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을 비롯한 '불법 콘텐츠'가 보도된 지 24시간 이내에 삭제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플랫폼에 무거운 벌금을 매기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48] 말레이시아 의회도 2018년 4월 가짜뉴스방지법(Anti-Fake News Bill)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은 8월에 폐지됐다.[49] 업데이트된 각국의 최신 대응 행보는 포인터연구소(Poynter Institute)에 잘 정리돼 있다.[50]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법률적 조처가 새로운 기술 덕분에 가능해진 정보와 의견의 민주화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 나라에서는 비판적 미디어를 침묵시키기 위해 법률이 사용되기도 한다.[51]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믿으며, 스스로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지지자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는[52] 많은 저널리스트에게 '정보 무질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또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저널리스트에 대한 온라인 공격, 특히 여성 저널리스트에 대한 공격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

43 Colon, A. (2017). You are the new gatekeeper of the news. [온라인].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you-are-the-new-gatekeeper-of-the-news-71862 [2018.4.3. 접속]

44 Ansip, A. (2017). Hate speech, populism and fake news on social media- towards an EU response. https://ec.europa.eu/commission/commissioners/2014-2019/ansip/announcements/ststement-vice-president-ansip-european-parliament-strasbourg-plenary-debate-hate-speech-populism_en [2018.4.3. 접속]

45 European Commission (2017). Next step against fake news: Commissions set up High-Level Expert Group and launches public consultation. [온라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7_4481 [2018.4.3. 접속]

46 European Commission (2018). Final report of the High-Level Expert Group on Fake News and Online Disinformation.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final-report-high-level-expert-group-fake-news-and-online-disinformation [2020.4.13. 역자 접속]

47 Malloy, D. (2017). How the world's governments are fighting fake news. [온라인] https://www.ozy.com/politics-and-power/how-the-worlds-governments-are-fighting-fake-news/80671/ [2018.4.3. 접속]

48 Federal Ministry of Justice and Consumer Protection. (2017). Act to Improve Enforcement of the Law in Social Networks (Network Enforcement Act, netzdg). [온라인]https://www.bmj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okumente/NetzDG_engl.pdf?__blob=publicationFile&v=2 [2020.4.12. 역자 접속]

49 Malaysia scraps 'fake news' law used to stifle free speech.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ug/17/malaysia-scraps-fake-news-law-used-to-stifle-free-speech [2018.8.18. 접속]

50 Funke, D. (2018). A guide to anti-misinformation actions around the world (Poynter). https://www.poynter.org/ifcn/anti-misinformation-actions/[2018.7.13. 접속]

51 Nossel, S. (2017). FAKING NEWS: Fraudulent News and the Fight for Truth. [전자책] Pen America https://pen.org/research-resources/faking-news/ [2018.4.3. 접속]

52 McNair, B. (2019). Journalism and Democracy. In K. Wahl-Jorgensen and T. Hanitzsch, ed.,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6th ed. New York: Routledge

있다. 많은 경우 이런 공격은 저널리스트를 물리적, 심리적으로 위협하면서 저널리즘의 열기를 꺾어 버린다. 모듈7 '온라인 괴롭힘(online abuse)과의 전쟁: 저널리스트와 취재원을 겨냥한 공격'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53]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는 저널리스트의 명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저널리스트의 목적과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저널리즘을 지속적으로 훼손해 시민의 담론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저널리즘의 수준과 사회적 관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미래의 모든 저널리스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됐다. 이 핸드북은 연구자, 학생, 그리고 저널리즘 종사자 모두가 어떻게 하면 저널리즘이 새로운 맥락에서 열린사회와 민주주의에 더 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찰하고 토론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과 민주주의가 제 구실을 하려면 저널리스트의 실수에 대한 비판과 투명성, 그리고 결과가 있어야만 한다. 또 우리 공동체가 저널리스트의 실수를 거짓말이나 사기와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된 정보가 가짜로 보이고, 조작된 (쓰레기)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제시될 것이다." - 크레이그 실버맨 (Craig Silverman)[54]

윤리와 자율규제에 대하여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저널리즘을 위한 직업적 규범은 허위정보, 잘못된 정보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방어막이다. 저널리즘 종사자에게 지침을 제공해주는 규범과 가치는 수년 동안 계속 발전해오면서 저널리즘에 특유의 임무와 작업 방식을 제시해왔다. 이러한 임무와 작업 방식은 또 검증 가능한 정보와 학식 있는 논평이 대중의 관심 속에 공유될 수 있도록 지지해주었다. 이런 것이 바로 저널리즘의 신뢰를 지탱해주는 요소이며, 이 핸드북 속에 녹아들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런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찰리 베켓(Charlie Beckett) 교수의 '가짜뉴스' 위기가 저널리즘에 끼치는 잠재적 의의에 대한 요약문은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 가짜뉴스는 최근 몇 십 년 동안 일어난 일 중 가장 좋은 일이다. 가짜뉴스의 등장으로 주류 고품질 저널리즘은 전문지식, 윤리, 참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기회를 얻었다. 그것은 저널리즘이 더 투명하고 일반 사람들과 더 관련 있으며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해줘야 한다는 신호이다. 가짜뉴스는 저널리즘에 대한 신화를 파괴하고 팩트체크라는 새로운 비즈니즈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속임수에 대한 더 나은 대안으로서 자세를 가다듬고 전열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55]

저널리스트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늘 '진실'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올바르게 획득하려 노력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윤리적 저널리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투명한 관행과 책무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윤리적 저널리즘은 '정보 무질서' 시대에 사실과 진리를 방어하는 전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이다. 뉴스 저널리즘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53 모듈7을 보라.

54 Silverman, C. (2018). I Helped Popularize The Term "Fake News" And Now I Cringe Every Time I Hear It. Buzzfeed.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craigsilverman/i-helped-popularize-the-term-fake-news-and-now-i-cringe [2018.3.4. 접속]

55 Beckett, C. (2017). 'Fake news': The best thing that's happened to Journalism at Polis. https://blogs.lse.ac.uk/polis/2017/03/11/fake-news-the-best-thing-thats-happened-to-journalism/ [2018.3.4. 접속]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또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을 경우 어떤 것이든 투명하게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의미다. 컬럼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 디지털 저널리즘을 위한 토우센터(Tow Center for Digital Journalism)의 에밀리 벨(Emily Bell) 교수가 설명한 것처럼, 전문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뉴스는 정확해야 한다.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명의 책임을 져야 한다. 뉴스와 정보의 원천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한다. 정부, 압력단체, 상업적 이익, 경찰이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협박, 혹은 검열할 경우 저항해야 한다. 취재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법을 어길 만큼 충분히 공중의 이익을 방어할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기사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떤 기사의 발행이 비윤리적일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와 좀 더 광범위한 공중의 이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라."[56]

비양심적인 정치, '정보 무질서' 위기, 온라인 혐오 표현, '콘텐츠 마케팅' 확산, 광고, 그리고 홍보 활동의 이기주의적 스핀(spin)[57] 등에 맞서 뉴스 조직과 저널리스트는 여전히 윤리적 저널리즘을 지속가능한 실행 모델을 위한 중심축으로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 심지어 재정 및 신뢰 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저널리즘을 수호하고 공공의 이익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저널리즘과 취재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중의 관심에 부합하는 정보 수집과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윤리 강령[58]은 저널리즘, 특히 뉴스 보도를 다른 유형의 커뮤니케이션과 구분해준다. 커뮤니케이션이 민주화됐을 뿐 아니라, 허위정보, 잘못된 정보, 거짓과 욕설이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는 윤리 강령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이런 맥락에서 윤리적 저널리즘은 수용자와 의미 있는 소통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뢰와 책임을 소중하게 다루는 저널리즘 모델을 형성하는 틀로서 훨씬 더 중요해졌다.

정확하고 책임감 있으며 독립적인 보도에서 신뢰는 수용자의 지지를 얻고, 공유된 지식을 토대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공유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지식을 잘 갖추고 있는 수용자는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는 필수적인 해독제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이런 핵심 가치를 새겨 놓고 강화하기 위해 뉴스룸과 미디어 조직은 행동 강령을 채택하고 공중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자율규제 장치의 예로는 언론위원회, 독자 편집장, 편집 정책, 내부 옴부즈맨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장치는 전문적인 동료 평가를 통해 실수를 가려내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수정하도록 촉진할 뿐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발행 기준과 관련된 직업 기준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종종 뉴스 미디어에 대한 외부 규제를 선호하는 비평가들이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율규제 장치는 허위정보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직업적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따라서 저널리즘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해줄 수 있다. 또 정확성과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해 검증의 원칙을 채택하는 저널리즘의 독특한 특징을 부각시키고, 허위정보, 선전선동, 광고 및 홍보와 차별화해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

56 Bell, E. (2015). Hugh Cudipp Lecture (전문)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5/jan/28/emily-bells-2015-hugh'cudipp-lecture-full-text [2018.4.1. 접속]

57 [역주] 스핀: 정직하지 못한 영터리 술수를 뜻하는 말. 거짓을 퍼뜨리는 행위를 묘사할 때 주로 쓰인다. 고의 또는 자의로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을 스핀닥터(spin doctor)라고 부른다.

58 예를 들어 호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예술인 연대(MEAA)'의 '저널리스트 윤리 강령'을 참고하라. https://www.meaa.org/meaa-media/code-of-ethics/ [2018.3.4. 접속]

'저널리스트'부터 저널리즘까지

저널리스트 윤리가 (언제나 전적으로 존중받는 것은 아니지만) 경력 혹은 직업/전문직에 국한돼 적용되던 시기는 흘러간 역사가 됐고, 이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널리스트의 안전(Safety of Journalists A/72/290)'[59]에 관한 UN 사무총장의 2017년 보고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 *"'저널리스트'란 용어는 저널리스트뿐 아니라 다른 미디어 종사자도 포함한다. CCPR/C/GC/34 문건 44절에는 저널리즘을 '전문적인/전업 기자와 분석가뿐 아니라 인쇄, 인터넷 혹은 다른 매체에서 자율 출판 형태로 종사하는 블로거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기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60]

이와 동일한 태도로 유네스코 총회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당한 양의 저널리즘을 생산하는 저널리스트, 미디어 종사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생산자"라고 언급한다(2017년 11월, 결의안 39).[61] 2012년 UN 고위급조정위원회(Chief Executives Board)의 승인을 받은 'UN의 저널리스트 안전과 처벌 문제에 관한 행동 계획(UN Plan of Action on the Safety of Journalists and Issue of Impunity)'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저널리스트 보호 문제는 저널리스트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국한해서는 안 된다. 수용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공동체 미디어 종사자와 시민 저널리스트를 비롯한 여러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해야만 한다."[62]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저널리즘은 공익을 위해 공유되는 검증 가능한 정보의 윤리적 규범에 의해 좌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저널리스트로 고용된, 혹은 저널리스트로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는 공익과 관련해서 정확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능력이 미흡한 경우가 심심찮게 있다. 경우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반면에 저널리즘 활동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직업적인 의미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지위나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지위가 아니라 생산하고 있는 콘텐츠의 성격이다.

저널리즘은 모든 개인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표현 형태(이를테면 시, 홍보, 광고, 허위정보 등)와 구분되는 특유의 명확한 기준을 충실히 알고 지키기로 설정된 전문화된 행위이다. 이런 기준은 전문적인 저널리스트 실천 윤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투명성은 새로운 객관성인가?

객관성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객관성은 주관성과 거리를 둔다는 의미에서 전문 저널리즘의 논쟁적인 주제다. 객관성을 애써서 추구할 수는 있지만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 또 야만적이거나 비인간적인 것들 앞에서는 객관성이 늘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예를 들어 공정하고 독립적인 보도는 전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주장에 동일한 도덕적 신뢰를 부여하지 않는다). 비록 후자가 진실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때에도 이런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보도에서 **공정성, 독립성, 정확성, 맥락성, 투명성, 비밀 취재원 보호와 통찰력**[63]은 신뢰, 진실성, 그리고 확신을 구축해준다.

---

59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304392?=en [2018.6.16. 접속]

60 UN 문건 A/HRC/20/17, 3~5행, A/HRC/20/22와 Corr1, 26행, A/HRC/24/23, 9행, A/HRC/27/35, 9행, A/69/268, 4행, A/HRC/16/44와 Corr.1, 47행도 참고하라.

61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39회 총회 기록.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6/002608/260889e.pdf [2018.7.2. 접속]

62 UN 저널리스트 안전과 형벌 문제에 관한 행동 계획. 1C1-12/CONF.202/6 https://en.unesco.org/sites/default/files/un-plan-on-safety-journalists_en.pdf [2017.11.3. 접속]

63 다음 장에 나오는 '핵심 원칙'을 참고하라.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 연구원인 데이비드 와인버거(David Weinberger) 박사는 2009년 "투명성이 새로운 객관성이다"[1]라고 선언했다. 같은 해 〈BBC〉 글로벌뉴스부문(Global News Division)의 리처드 샘브룩(Richard Sambrook) 전 국장은 '뉴미디어 시대'에는 객관성이 아니라 투명성이 신뢰를 가져다준다고 설명했다:

> *"… 오늘날 뉴스는 여전히 정확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독자, 청취자, 시청자들이 뉴스가 어떻게 생산되며, 어디서 정보가 왔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뉴스의 발생은 뉴스 자체를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2]

차이점

위에서 소개한 전문 저널리스트 관행의 핵심 구성 요소는 한 가지 형태의 저널리즘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목표는 다양한 여러 저널리즘 형식과 스토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각각은 공정성, 맥락성, 관련 사실 등 서로 다른 가치와 다양한 관점에 바탕을 둔 서로 다른 내러티브들을 형상화한다. 예를 들어 언론사는 '정보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허위정보나 잘못된 정보 영역으로 일탈하지 않으면서도 (심지어 일부 사람들이 관심조차 주지 않는) 뉴스 기사에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 (다음 장 '이 핸드북을 모델 커리큘럼으로 사용하기'와 모듈 1, 2, 3을 참고하라.) 하지만 콘텐츠가 저널리즘의 원칙 그 자체에서 벗어났음에도 여전히 뉴스 형식을 취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저널리즘이 아닌, 허위정보라는 특별한 형태를 다루게 된다.

서론으로 쓴 이번 장은 '가짜뉴스' 논쟁이 제기한 다양한 이슈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뒤에 이어질 설명, 분석, 그리고 학습 모듈을 위한 맥락을 제공한다.

---

1 Weinberger, D. (2009). Transparency is the new objectivity. https://www.hyperorg.com/blogger/2009/07/19/transparency-is-the-new-objectivity/ [2018.3.28. 접속]

2 Bunz, M. (2009). How Social Networking is Changing Journalism. https://www.theguardian.com/media/pda/2009/sep/18/oxford-social-media-convention-2009-journalism-blogs [2018.3.28. 접속]

이 핸드북을 모델 커리큘럼으로 활용하기

줄리 포세티

이번 장에서는 발견적 교수법 모델(heuristic pedagogical model)[1]을 채택한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학습 과정에 가져오도록 권장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제시하는 이 교습은 절대 규범이 아니다. 오히려 각 나라, 문화, 기관, 산업의 교육과 학습 상황을 고려해서 적합하게 변경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전 세계적으로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노력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저자들은 교육학자, 교사 그리고 수업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언어로 자기 지역의 경험을 반영한 사례 학습, 예시, 자료 등을 녹여 넣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핸드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저널리즘, 디지털 미디어, 혹은 미디어 연구 분야를 전공하는 고등 교육과정에 소개되는 포괄적인 교과/과목으로 활용. 이 교과는 또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관련이 있는 정치학 및 사회학 과정의 선택과목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 기존 교과/과목(예. 미디어 역사; 미디어 윤리; 뉴스 수집 및 사실 확인; 미디어 비평; 디지털 미디어 실습; 소셜 저널리즘)을 보충하는 자료로 활용. 사례 연구, 강의 자료, 추천 도서 중 많은 것들은 기존 교과/과목에 포함시켜서 급부상 중인 허위정보 위기를 다룰 수 있도록, 콘텐츠 업데이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뉴스 조직, 업계 단체, 혹은 미디어 개발 기관이 저널리스트, 인권운동가, 기타 저널리즘 종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단독 과목, 혹은 포괄적인 교과로 활용할 수 있다.

- 훈련 매뉴얼: 저널리즘 교육자들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 모듈들을 수정할 수도 있다. 추천 독서 목록과 사례 연구에 중점을 두되 교육 받는 저널리스트 그룹을 타깃으로 한 틈새 자료를 포함시켜라.

- 업계 유관 단체, 미디어 조직, 혹은 미디어 개발 기관이 지식 공유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현역 저널리스트의 지식 함양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한 독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검토된 많은 기법은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보도 업무에 적용될 수 있다. 일부 사례 연구는 뉴스를 더 정교하게 보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지역의 기사거리를 더 복잡한 맥락에서 탐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입소문을 타면서 유포된 최근의 사례를 강조하면서, 지역 저널리스트를 속인 거짓 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거짓 정보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국제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 새롭게 떠오르는 이 분야의 연구와 실천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발전을 위한 도구와 읽을거리, 자료 모음집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Banda, F. (Ed) 2015 Teaching Journalis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Syllabi (UNESCO, Paris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3/002338/233878e.pdf) [2018.3.28. 접속]

핵심 원칙

오늘날 저널리즘 고유의 역할은 사실 확인을 통해 콘텐츠의 명확성을 기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일 처리와 윤리적 기준의 명확한 실행이 중요하다. 여러 윤리적 범주를 포괄하고 있는 아래 일곱 가지 원칙은 (저널리즘) 실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실습과 토론, 평가를 이끌어준다:[2]

- **정확성(Accuracy):** 저널리스트가 늘 '진리'를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확성을 기하고, 사실을 올바로 취하는 것은 여전히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다.

- **독립성(Independence):** 저널리스트는 독립적인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이 원칙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특정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리고, 투명성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는 어떤 것을 선언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 **공정성(Fairness):** 정보, 사건, 정보원과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공정한 보도란 열린 마음으로 통찰력 있게 정보를 살피고, 따져보며, 평가하는 행위를 수반한다. 맥락을 제공하고 경쟁하는 여러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보도물에서 신뢰와 확신을 구축할 수 있다.

- **비밀 유지(Confidentiality):** 탐사 저널리즘의 기본 신조 중 하나는 비밀 취재원의 보호다(예외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것은 (내부고발자를 비롯한) 정보원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핵심 원칙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취재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3]

- **인간애(Humanity):** 저널리스트가 발행하거나 방송하는 내용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훌륭한 탐사 저널리즘의 폭로로 부패한 정치인이 경험하게 될 굴욕감을 예로 들 수 있다). 저널리즘이 다른 사람의 삶에 가할 충격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야만 한다. 이때는 공익이 처리 지침이 된다.[4] 인간애란, 설령 일관되게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저널리즘 형식을 도입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적 소외 집단이 직면한 문제를 숙고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책무성(Accountability)**은 전문가주의와 윤리적 저널리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호다.[5] 실수를 즉시, 그리고 분명하고 성실하게 바로잡고, 수용자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고,[6] 그들에게 응답한다. 이런 관행은 자발적인 직업 행동 강령을 바탕으로 저널리즘에 책임을 부여하는 뉴스 조직의 지침 문서나 자율규제 기구에 명시할 수 있다.

- **투명성(Transparency)**은 책무성을 지원하고 저널리즘의 신뢰성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7]

---

2 주목: 일곱 개 원칙 중 다섯 개는 윤리적 저널리즘 네트워크(Ethical Journalism Network)의 '저널리즘의 다섯 가지 핵심 원칙(Five Core Principles of Journalism)'에서 가져왔다. https://ethicaljournalismnetwork.org/who-we-are/5-principles-of-journalism [2018.4.22. 접속]. 하지만 여기서는 '공정성(fairness)'을 '불편부당성(impartiality)'보다 선호한다. 불편부당성은 자주 객관성과 겹치는데다, 모든 취재원과 사실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으로 자주 오해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 저널리즘에서 '객관성'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인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문제적 개념이다.

3 Posetti, J. (2017). Protecting Journalism Sources in the Digital Age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8054 [2020.4.15. 역자 접속]

4 디지털 시대에 공감을 적용한 새로운 윤리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Shelton, A. G., Pearson, M & Sugath, S. (2017) Mindful Journalism News Ethics in the Digital Era: A Buddhist Approach. Routledge, London. https://www.routledge.com/Mindful-Journalism-and-News-Ethics-in-the-Digital-Era-A-Buddhist-Approach/Gunaratne-Pearson-Senarath/p/book/9781138306066 [2020.4.15. 역자 접속]

5 http://ethicaljournalismnetwork.org/what-we-do/accountable-journalism [2018.4.22. 접속]

6 Locket, K. & Kang, A. (2-18). Focused listening can help address journalism's trust problem, at American Press Institute. https://www.americanpressinstitute.org/publications/focused-listening-trust/ [2018.3.28. 접속]

7 Aronson-Rath, R. (2017). Transparency is the antidote to fake news on NiemanLab, 2017년 12월. https://www.niemanlab.org/2017/12/transparency-is-the-antidote-to-fake-news/ [2018.6.15. 접속]

이런 맥락에서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함께 미디어 자유와 다원성의 문제도 중요하다. 저널리즘 전체가 열린사회의 민주주의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직원, 취재원, 연구 자료의 다양성뿐 아니라 기관의 다원성도 필수로 요구된다. 과소 대표되거나 사회적 소외 집단의 목소리가 뉴스 제작의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라디오, 소셜 미디어 같은 참여 미디어도 중요하다. 다원주의는 윤리적 저널리즘 안에서 다양한 내러티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허위정보, 선전선동을 비롯해 직업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콘텐츠(모듈1,2 3을 참고하라)를 가려낸다는 의미다.

고려해야 할 질문

허위정보, 잘못된 정보, 그리고 선전선동이 널리 입소문을 타는 세계에서 윤리적 저널리즘 실행에 대한 토론은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누가 저널리스트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현대 저널리즘에 대해 좀 더 미묘한 이해의 차이를 보이는 대화로 이어갈 수 있는 질문)
- ▷ (광고, 마케팅, 홍보, 허위정보 및 잘못된 정보를 비롯한) 온·오프라인상의 좀 더 광범위한 콘텐츠 생산 및 발행과 저널리즘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가?
- ▷ 저널리즘 종사자는 누구의 이익에 기여해야 하는가?
- ▷ 저널리즘 종사자는 자신이 생산/발행한 콘텐츠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가? 그리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 ▷ 저널리즘 종사자는 취재원과 주제, 그리고 수용자에게 어떤 윤리적 의무를 가지는가?
- ▷ 저널리즘 종사자는 '정보 무질서'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를 고려해야 하는가?

평가 기준

학생 저널리스트, 직업 저널리스트, 그리고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고,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책자를 발행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핵심 윤리적 가치를 준수하고 심층적으로 조사하며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 외에 정확성과 검증에 관한 기준은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어야 한다.

이론 과제를 위한 평가 기준 제안

- ▷ 정확성과 검증(예. 인용된 취재원은 정확하게 표현됐는가? 적합한 검증 방법이 사용됐는가?)
- ▷ 조사의 심층성(예. 참가자들은 자신의 주장/발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얼마나 강력하고 관련 있는 데이터/자료를 찾았는가?)
- ▷ 주장과 분석의 품질(얼마나 독창적이고 복잡한 주장과 분석이 수행됐는가?)
- ▷ 문자 표현(철자, 문법, 구두점, 구조)
- ▷ 에세이/보고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모듈 학습의 성과를 나타내는가?

실습/저널리즘 과제를 위한 평가 기준 제안

- ▷ 정확성과 검증(예. 인용된 취재원은 정확하게 표현되고, 적절하게 확인됐는가? 적합한 검증 방법이

사용됐는가?)

- ▷ 조사의 심층성(예. 참가자들은 자신의 주장/발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얼마나 강력하고 관련 있는 데이터/자료를 찾았는가?)
- ▷ 비판적 분석(예. 참가자들은 수용자를 위해 핵심 쟁점에 대해 얼마나 사려 깊게 질문하는가?)
- ▷ 독창성
- ▷ 내러티브의 영향력(예. 이야기/저작물은 독자/시청자/청취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 ▷ 저작물의 가치(예. 오디오/비디오 편집과 멀티미디어 요소의 힘)
- ▷ 문자 표현(철자, 문법, 구두점, 구조)
- ▷ 직업 기준에 표현된 핵심 윤리 가치 준수하기

전달 방법

이 모듈들은 대면 혹은 온라인상으로 가르치도록 구성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온라인[무들(Moodle)[8] 같은 학습 플랫폼, 혹은 페이스북 그룹 활용]이나 대면 집단 학습 환경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수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 모델을 따른다. (세미나, 독서, 혹은 강의 기반 프레젠테이션 등을 활용해) 이론 학습을 한 뒤 (사실 확인 훈련을 위한 워킹 그룹 등) 실습으로 보충한다. 일반적으로 60~90분의 이론 학습과 90~120분의 워크숍 또는 개별 지도로 구성된다. 수업은 관련 기관의 교수/학습 프레임워크에 따라 확대, 축소 또는, 며칠에 걸쳐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다. 각 모듈에는 과제가 나간다.

교사와 교수들은 가능하다면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양방향 강의나 토론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례 연구, 쟁점, 토론 등을 커리큘럼에 통합하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이 과정의 설계자들은 교사/교수들이 지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관련 있는 자료와 사례를 교과에 통합하는 것도 적극 권장한다.

자료

교사와 참가자 모두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한다. 학술 데이터베이스나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에 접속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습 결과를 실제로 응용해볼 때 필요한 학습 자료 관련 주요 사이트로는 퍼스트 드래프트 뉴스(First Draft News)[9]가 있다.

주의: 이 핸드북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와 자료를 활용할 경우, 커리큘럼 편집자와 저자들의 이름을 적절한 방법으로 밝혀야 한다.

8 [편집자 주] 무들: 오픈 소스 전자학습 플랫폼.

9 http:/firstdraftnews.com [2018.3.28. 접속]

교수법적 접근

이 전문적인 모델 과정은 유네스코가 2017년부터 출간해온 저널리즘 교육을 위한 여러 모델 커리큘럼[10]의 뒤를 이은 것이다. 교수법적인 접근은 유네스코의 《교사를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커리큘럼(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for Teachers)》[11]과 《저널리스트의 안전에 관한 시범 과정(Model Course on Safety of Journalists)》[12]에도 묘사돼 있다. 이 책들에서 교사에게 권장하는 시행 사항은 아래와 같다.

- ▷ 이슈-질문 접근법
- ▷ 문제 기반 학습(PBL)
- ▷ 과학적 조사
- ▷ 사례 연구
- ▷ 협동 학습
- ▷ 텍스트 분석
- ▷ 맥락 분석
- ▷ 번역
- ▷ 시뮬레이션
- ▷ 생산

이 커리큘럼을 강의하는 교사들은 저널리스트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13] 개념도 탐구하기 바란다. 이 접근법은 저널리즘 콘텐츠 생산 과정에 기술을 적용하고 테스트를 통해 학습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교육생들은 허위정보에 맞서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빠르게 공유되는 콘텐츠가 생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생들에게는 이 접근법을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돼야 한다.[14]

---

10 UNESCO's Model Curricula for Journalism Education (2017).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51209 [2020.4.17. 역자 접속] ; UNESCO's Model Curricula for Journalism Education: a compendium of new syllabi (2013).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21199 ; Teaching Journalis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syllabi (2015)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3878_bur [2020.4.17. 역자 접속]

11 Wilson, C., Grizzle, A., Tuazon, R., Akyempong, K. and Cheung, C. (2011).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for Teachers. [전자책]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resources/publications-and-communication-materials/publications/full-list/media-and-information-literacy-curriculum-for-teachers/ [2020.4.17. 역자 접속]

12 UNESCO (2017) Model Course on Safety of Journalists: A guide for journalism teachers in the Arab States: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8297 [2020.4.17. 역자 접속]

13 Posetti, J & McHugh, S. (2017). Transforming legacy print journalism into a successful podcast format: An ethnographic study of The Age's Phoebe's Fall. 2017년 7월 18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국제매스커뮤니케이션학회(IAMCR)에 제출된 논문.

14 페이스북 페이지 '우리 이야기에 대한 해시태그(Hashtag Our SA)'에 있는 이 클립이 흥미로운 사례다. https://www.facebook.com/hashtagoursa/videos/679504652440492 [2018.6.15. 접속]

진실, 신뢰, 그리고 저널리즘: 왜 중요한가

체릴린 아이어톤

모듈 1

요약

미디어와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는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기 오래 전부터 이미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약화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1] 이런 추세는 많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신뢰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뉴스처럼 포장된 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도달 범위 또한 엄청나게 확대되면서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는 더욱 훼손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저널리스트, 뉴스 미디어, 시민, 그리고 열린사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2]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인터넷에서 빠른 속도로 자유롭게 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발행인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분하느라 골머리를 앓는다. 냉소주의와 불신, 극단적 견해, 음모 이론과 포퓰리즘이 성행했다. 한때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것과 단체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러한 세계에서 뉴스룸은 자신들의 뉴스가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게이트키퍼[3]라는 역사적인 역할을 주장하며 수행을 위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적극적인 허위정보와 유해정보(mal-information) 등을 비롯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운영(information operations)'을 위한 시장이 등장하면서 정보 생태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4]

사회를 향한 '정보 무질서'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소셜 미디어 설계자들도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의 시민참여 담당 제품 매니저(Product Manager Civic Engagement) 사미드 차크라바티(Samidth Chakrabarti)는 이런 말을 했다. "소셜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중 한 가지 기본적인 진실이 있다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소셜 미디어는 인간의 의도를 확대재생산한다는 점이다. 최선의 경우 소셜 미디어는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최악의 경우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게 된다.[5]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크고 작은 규모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중에서도 규제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유혹이 있다. 실제로 많은 나라가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6]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경우 새로운 기술 덕분에 가능해진 개방성과 참여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7] 특히 독재적 성향의 지도자가 집권한다면 자신의 실적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있을 경우 어떤 것이 '가짜뉴스'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결정하기 위해 강력하면서도 바로 동원할 수 있는 무기를 찾게 될 것이다.

시민 사회와 기업이 제안하는 다른 선택권도 있다. 수용자가 더 똑똑해지고 습득한 정보를 해석하고 평가할 수

1 Edelman. (2017). Edelman Trust Barometer- Global Results [온라인] https://www.edelman.com/global-results/ [2018.4.3. 접속]

2 Viner, K. (2017). A mission for journalism in a time of crisis. [온라인]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news/2017/nov/16/a-mission-for-journalism-in-a-time-of-crisis [2018.4.3. 접속]

3 Singer, J. (2013). User-generated visibility: Secondary gatekeeping in a shared media space. News Media & Society [온라인] https://pdfs.semanticscholar.org/0d59/6a002c26a74cd45e15fbc20e64173cf2f912.pdf [2018.4.3. 접속]

4 Gu, L; Kropotov, V, 그리고 Yarochkin, F. (nd). The Fake News Machine How Propagandists Abuse the Internet and Manipulate the Public https://documents.trendmicro.com/assets/white_papers/wp-fake-news-machine-how-propagandists-abuse-the-internet.pdf [2018.6.16. 접속]에서 묘사된 사례를 참고하라. Data & Society Research Institute, New York (2017) Media Manipulation and Disinformation Online https://datasociety.net/library/media-manipulation-and-disinfo-online/ [2018.6.15. 접속]

5 Chakrabarti, S. (2018). Hard Questions: What Effect Does Social Media Have on Democracy? Facebook Newsroom [온라인] https://newsroom.fb.com/news/2018/01/effect-social-media-democracy [2018.5.22. 접속]

6 Funke, D. (2018). A guide to anti-misinformation actions around the world, Poynter https://www.poynter.org/ifcn/anti-misinformation-actions/ [2018.5.22. 접속]

7 Nossel, S. (2017). Faking News: Fraudulent News and the Fight for Truth [전자책] PEN America. https://pen.org/research-resources/faking-news/ [2018.4.3. 접속]

있도록 이들에게 도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남아프리카[8]에서 멕시코[9]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한 사례는 풍부하다. (이 핸드북에서 설명한 것처럼) 팩트체킹 조직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저널리스트와 학생 저널리스트는 이러한 흐름과 함께 그들이 할 수 있는 보완적 역할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핸드북을 만들게 된 이유이다.

오랜 기간 민주주의와 열린사회를 지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해 온 저널리스트에게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는 단순히 그들의 명성에 도전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정보 무질서'는 그들의 존재 이유와 유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높은 직업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준다. 저널리즘이 지배 이데올로기나 저널리즘을 생산하는 이들의 젠더, 인종, 언어 집단, 계급과 같은 배경에서 발생하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 구조, 비즈니스 모델, 수용자의 관심, 예측 가능한 관료 및 홍보 쪽의 뉴스 '망' 등과 같은 제도적 영향력이라는 구조적 쟁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편집 윤리가 보도 지침으로서, 또 저널리스트에게는 세계관과 맥락에 대한 자기반성의 지침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저널리즘이 '가상으로부터의 관점(view from nowhere)'[10]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대신 보도하는 주제가 무엇이건, 어떤 관점을 갖고 있건 간에 저널리즘이 사실 검증과 공익이란 광범위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공중들이 믿게끔 하려면 투명성이 필수적임을 말해준다.[11]

교사들은 이번 수업에서 수업 참가자들에게 저널리즘이 사회와 민주주의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테면 '정보 무질서'가 민주주의와 열린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그리고 그런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지; 저널리즘은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널리즘의 방법과 규범이 공익을 위해 검증 가능한 정보를 생산하는 두드러진 방식이라는 신뢰를 어떻게 다시 구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저널리즘 공급자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이 아니다. 공익을 위해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평가하는 과정과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그들의 특징과 특수성, 그리고 열망을 인식하라는 것이다. 또 냉소주의와 상반되는 회의론의 가치를 인식하라는 의미다. 그에 덧붙여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척하는 사람들과, 진지하게 저널리즘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그리고 필수불가결한 투명성, 자율규제 책무성 및 이것에 따라오는 좋은 평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공중의 능력을 인식하라는 의미다. 저널리스트와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보 환경이 달라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런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개요

'정보 무질서'가 저널리스트와 그들이 발 딛고 있는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해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은 디지털 기술 및 인터넷 기반 기기의 빠른 진보로 인해 구조적, 문화적, 그리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저널리즘과 레거시 미디어에 얼마나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널리즘에서 더욱 증폭되고

8 #KnowNews는 남아프리카의 미디어 모니터링 아프리카 NGO가 개발한 웹브라우저 확장판이다. 특정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용자들이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https://chrome.google.com/webstore/search/KnowNews [2018.6.15. 접속]

9 https://verificado.mx 사이트를 참고하라. 2018년 멕시코 선거 기간에 미디어, 시민사회, 그리고 대학연구기관 등이 각종 콘텐츠의 사실 확인 작업을 위해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 https://knightcenter.utexas.edu/blog/00-19906-media-collaboration-and-citizen-input-fueled-verificado-2018-fact-checking-mexican-ele [2018.7.4. 접속]

10 [역주] 가상으로부터의 관점: 사안의 양쪽을 보여준 뒤 독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중립 저널리즘을 일컫는 말.

11 Rosen, J. (2010). The View from Nowhere: Questions and Answers. Press Think. https://pressthink.org/2010/11/the-view-from-nowhere-questions-and-answers/ [2018.6.15. 접속]

있는 신뢰 문제와 소셜 미디어 참여 간의 관계이다.[12]

저널리즘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소셜 미디어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신뢰는 저널리스트의 능력과 직결된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정부, 기업, 기관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과도 상호관련이 있다.[13]

뉴스를 수집, 배포하는 방식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레거시 언론사의 주된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하면서 뉴스룸의 저널리즘 능력이 약화됐다. 따라서 뉴스 보도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14] 공영 미디어 뉴스룸에 대한 지원 자금이 계속 줄어들고, 이와 관련한 정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 점 역시 뉴스 공급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환영할 만한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식이 등장했고, 수용자는 뉴스 생산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그와 동시에 이미 영향력이 약화된 레거시 뉴스 생산자들은 더 큰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 디지털로만 발행하는 뉴스 조직의 수준은 저널리즘의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다.[15]

민주화되고 더 다양화된 정보 생태계에서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의 해악을 방어하는 일은 저널리즘에 (노력을) 쏟아부은 사람들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쉬운 과제가 아니다.[16]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기 이전의 저널리즘 관행과 방법에는 뉴스의 정확성과 품질, 그리고 공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집중화된 확인 및 통제를 위한 직업적 기준과 여러 단계가 존재했었다. 현장 기자는 뉴스 발행 전에 검증 작업을 담당하는 편집국 팀의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게이트키퍼' 모델은 저널리스트에게 전문가주의 의식을 심어주었다.[17]

저널리스트에게는 공무 활동 및 공동체 이슈에 대한 보도, 탐사, 논평과 분석 등을 통해 정치인과 관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있었다. 그들은 시민들이 통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물론 일부 뉴스 조직이 저널리즘의 이상과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체로 그들의 직분은 특별히 흥미로운 내러티브를 통해 선택되고 제공되는 진짜 뉴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정치, 상업, 혹은 엔터테인먼트의 목적 아래 꾸며낸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문화적 차원에서는 소셜 미디어에 뉴스를 증언하고, 기록하고, 논평하고, 출간하는 다른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앙 집중 모델뿐 아니라 광장 토론도 달라지게 됐다.[18] 소셜 미디어는 이제 공공 및 정치적 담론의 핵심 플랫폼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 때문에 민주주의와 열린사회가 '민주주의 결핍(democratic deficit)'[19] 상태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한다.[20]

기술 기업과 소셜 플랫폼은 스스로 뉴스 발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저널리스트와 발행자가 책임의 무게로 감당해온

12 모듈3을 참고하라.

13 Edelman. (2017) op cit

14 모듈3을 참고하라.

15 Greenspon, E. (2017). The Shattered Mirror: News, Democracy and Trust in the Digital Age. [전자책] Ottowa: Public Policy Forum, Canada: https://shatteredmirror.ca/download-report/ [2018.4.3. 접속]

16 Ansip, A. (2017). Hate speech, populism and fake news on social media- towards an EU response. https://ec.europa.eu/commission/commissioners/ansip/announcements/statement-vice-president-ansip-european-parliament-strasbourg-pleanary-debate-hate-speech-populism [2018.4.3. 접속]

17 Kovach, B. and Rosentiel, T. (2010). Blur: How to Know What's True In The Age of Information Overload. 1st ed. New York: Bloomsbury, pp 171-184; 김원옥 옮김(2011), 《빌 코바치의 텍스트 읽기 혁명》, 다산글방.

18 Nossel, S. (2017). Faking News: Fraudulent New and the Fight for Truth. [전자책] PEN America. https://pen.org/wp-content/uploads/2017/11/2017-Faking-News-11.2.pdf [2018.4.3. 접속]

19 [역주] 민주주의 결핍: 2000년대 이후 국제기구의 초국가주의적 경향이 개별 국가의 민주주의를 제약한다는 주장.

20 Howard, P. (2017). Ibid.

규범적 의무를 비켜간다.[21] 뉴스 생산을 위해 저널리스트를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수행하는 큐레이션과 편집의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그들을 '단순한 전달자' 또는 간단한 매개자로 볼 수 없게 됐다.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 혹은 옥스퍼드컴퓨터과학연구소(OICS) 표현대로 '정크'를 대량 유포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검색엔진 알고리즘이다. 그들은 이용자의 가족과 친구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에 체계와 정당성을 부여한다.[22]

따라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며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는 시민들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23] 신뢰, 교양 있는 대화, 현실 인식 공유, 상호 동의와 참여까지도 훼손한다.[24] 이 밖에 소셜 미디어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반향실 효과(Echo Chamber)[25], 극단화, 그리고 과잉 당파성 창출
- 인기·대중성을 적법한 것으로 탈바꿈
- 포퓰리스트 지도자, 정부, 그리고 주변 인사들에 의한 조작 허용
- 개인정보 수집 뒤 감지되지 않는 곳에서 맞춤형 마이크로-메시징/광고의 집행을 장려[26]
- 광장 파괴[27]

반드시 이런 방식이 될 필요는 없다. 소셜 미디어는 사회와 저널리즘이 소통하는 주된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인권, 문화적 다양성, 과학, 지식과 이성적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환경에서 토론과 시민적 가치,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저널리즘은-어떤 플랫폼 위에 있든-예를 들어, 복잡한 이슈를 보도할 때 과학적 정확성을 잃지 않고, 맥락을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일반 공중을 잘못 이끌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첨단 의학 치료(예. 복제)나 새로운 과학적 진보(예. 인공지능) 분야를 다루는 저널리스트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선정주의를 피하며, 미래에 끼칠 영향까지 신중하게 접근해 보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믿을 만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이나 연구의 성과를 소화하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저널리즘이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중에는 허위정보 캠페인을 조사하고 직접 폭로함으로써 조작에 맞서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런 활동에는 저널리즘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주된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한다(아래 내용을 참고하라).

'정보 무질서'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제기한 과제는 다양하며 여러 층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해결 방안도 발전하고 있으며 일부 방안은 매우 빨리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해결 방안 중 대부분이 소셜 미디어 기업과 구글 본사가 자리 잡고 있는 미국에서 시작됐다. 다음은 잘못된 정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기술 관련 움직임이다:

---

21 Howard, P. (2017). Ibid. 모듈3도 함께 참고하라.

22 Pariser, E. (2011). The filter bubble: what the Internet is hiding from you. London, Viking/Penguin Press.

23 European Commission (2017). Next steps against fake news: Commission set up High-Level Group and launches public consultation [온라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7_4481 [2020.4.20. 역자 접속]

24 Deb, A. Donohue, S. & Glaisyer, T. (2017). Is Social Media A Threat To Democracy? [전자책] Omidyar Group. https://www.omidyargroup.com/wp-content/uploads/2017/10/Social-Media-and-Democracy-October-5-2017.pdf [2018.4.3. 접속]

25 [역주] 반향실 효과: 닫힌 방 안에서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듯이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점차 더 편향된 사고를 갖게 되는 현상.

26 Cadwalladr, C. and Graham-Harrison, E. (2018). How Cambridge Analytica turned Facebook 'likes' into a lucrative political tool. The Guardian. [온라인]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8/mar/17/facebook-cambridge-analytica-kogan-data-algorithm [2018.4.3. 접속]

27 Deb, A., Donohue, S. & Glaisyer, T. (2017) Ibid.

- (논쟁이 없지는 않지만) 이 기업들이 사기성 뉴스라고 간주한 내용을 검색 결과와 뉴스피드에서 걸러내는 작업[28] [29] [30]
- 광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클릭을 유도한 뒤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수익원 단절[31]
- 디지털 콘텐츠와 이미지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 제공[32]
- 저널리즘, 기술, 학술연구의 교차점에 있는 저널리즘 지원 운동에 자금 지원[33]
- 소비자(그리고 알고리즘)들이 믿을 만한 제공자로부터 나오는 뉴스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기술 표준이나 신뢰 표시의 개발과 사용[34]

이 글을 쓰고 있는 2018년 초 현재, 뉴스 조직을 위한 기술 표준 운동 중 가장 중요한 운동으로 트러스트 프로젝트(The Trust Project)가 있다. 트러스트 프로젝트는 거대 검색엔진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전 세계 70개 이상 미디어 조직이 협력해 작업하고 있는 컨소시엄이다. 이 단체의 주된 임무는 신뢰 표시(trust mark)를 통해 대중이 '정확하고, 책임감 있으며, 윤리적으로 생산되는' 뉴스를 쉽게 골라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단체는 뉴스 제공자가 온라인 디자인 환경에서 믿을 만한 제공자로 인식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덟 가지 기술 표준[35]을 만들었다. 트러스트 프로젝트의 신뢰 지수(Trust Indicators)[36]는 다음과 같다.

- **모범 사례**
  > 뉴스 조직의 (뉴스 생산) 기준은 무엇인가?
  > 누가 뉴스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가?
  > 뉴스 조직의 임무는 무엇인가?
  > 윤리, 다양한 목소리, 정확성, 오류 수정과 다른 규범에 대한 약속.
- **저자/기자 전문지식:** 누가 이것을 만들었나? 전문지식이나 그동안 작성해온 다른 기사들을 비롯해 기자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
- **작업 유형:** 이것은 무엇인가? 뉴스 보도와 의견, 분석, (스폰서/ 네이티브) 광고 콘텐츠를 구분하는 표지.
- **인용과 참고자료:** 탐사 또는 심층보도 기사에서 사실과 주장 뒤에 있는 정보원에 접근하기.
- **방법:** 심층보도 기사의 경우, 기자가 왜 그 이야기를 추적했으며, 어떻게 추적했는지에 대한 정보(투명성에 도움이 된다).

---

28 Ling, J. (2017). Eric Schmidt Says Google News Will 'Engineer' Russian Propaganda Out of the Feed. Motherboard Vice.com [온라인] https://www.vice.com/en_us/article/pa39vv/eric-schmidt-says-google-news-will-delist-rt-sputnik-russia-fake-news [2018.4.3. 접속]

29 Mosseri, A. (2018). Helping ensure news on Facebook is from trusted sources. Facebook. https://about.fb.com/news/2018/01/trusted-sources/ [2020.4.18. 역자 접속]

30 Stamos, A. (2018). Authenticity matters: Why IRA ha no place on Facebook. Facebook. https://about.fb.com/news/2018/04/authenticity-matters/ [2020.4.18. 역자 접속]

31 Love, J. & Cooke, C. (2017). Google, Facebook move to restrict ads on fake news sites.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alphabet-advertising/google-facebook-move-to-restrict-ads-on-fake-news-sites-idUSKBN1392MM [2018.6.15. 접속]

32 모듈6을 보라. http://www.truly.media에 사례가 있다. [2018.6.15. 접속]

33 모듈5를 보라.

34 The Trust Project (2017). The Trust Project- News with Integrity https://thetrustproject.org/ [2018.4.3. 접속]

35 The Trust Project (2017). Ibid.

36 The Trust Project (2017). Ibid.

- **지역 취재원:** 지역 취재원은 이야기가 지역에 기원을 두고 있거나 (그 이야기에 대해) 정통할 때 당신에게 알려준다. 그 보도는 지역 상황이나 공동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는가?
-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려는 뉴스룸의 노력과 약속(독자/시청자/청취자들은 특정 목소리, 인종, 혹은 정치적 신념이 빠져 있을 때 바로 알아차린다).
- **실행 가능한 피드백:** 보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보도 과정에 기여하며, 정확성과 다른 영역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공중의 도움을 받으려는 뉴스룸의 노력. 독자/시청자/청취자들은 참여를 원할 뿐 아니라, 기사 방향을 바꾸거나 확대할 수도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려 한다.

저널리즘 활동에서 신뢰는 저널리스트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원의 숫자와 다양성, 그리고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며 수용자 연쇄 효과를 불러온다.

정부, 시민 사회 그리고 교육자의 대응 방안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룬다.[37]

이런 쟁점은 2017년 세계편집인포럼(World Editors Forum)에서도 채택됐다. 당시 마르셀로 레히(Marcelo Rech) 회장은 전 세계 편집인들에게 아래 다섯 가지 원칙을 수용해달라고 제안했다.[38]

- 초정보 세계에서는 신뢰성, 독립성, 정확성, 직업윤리, 투명성, 그리고 다원성이 공중과의 **신뢰 관계**를 입증하는 **가치**이다.
- 소셜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재료에 대해 빈틈없이 부지런하게 **질문하고 검증**하는 것이 차세대 저널리즘(Next-level journalism)이 다른 콘텐츠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 차세대 저널리즘의 **임무**는 검증된 고품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고**, 뉴스 브랜드를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의 출처로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 차세대 저널리즘에 **요구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을 넘어서** 분석과 맥락, 탐사보도, 학식 있는 의견 표현을 장려하며, 뉴스 공급자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지식 공급자로 변신하는 것이다.
- 차세대 저널리즘은 신뢰와 함께 **사회적 관련성, 합법적 이해관계와 정직함이라는 지도 원칙**을 동력으로 움직여야만 한다.

저널리스트와 뉴스룸은 아래의 사항을 촉진함으로써 품질 향상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책임질 수 있는 윤리적 저널리즘 관행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보도[39]
- 팩트체킹, 그리고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의 추방[40]
- 데이터, 정보원, 디지털 이미지의 검증[41]

37 모듈4를 보라.

38 Ireton, C. (2016). World Editors Forum asks editors to embrace 5 principles to build trust. https://blog.wan-ifra.org/2016/06/14/world-editors-forum-asks-editors-to-embrace-5-principles-to-build-trust [2018.6.15. 접속]

39 Wales, J. (2017). What do we mean by evidence-based journalism? Wikitribune https://medium.com/wikitribune/what-do-we-mean-by-evidence-based-journalism-3fd7113102d3 [2018.4.3.]

40 모듈5를 보라.

41 Bell, F. (2018). 데이터 저널리즘 시대에는 검증이 훨씬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방대한 데이터 수집품을 발견했을 경우 정확한 정보만 존재하진 않는다. 그 기록 속에는 정교하게 계획된 허위정보도 함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과정의 모듈6도 참고하라.

- 저널리스트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와의 소통, 그리고 뉴스 의제와 사회적 요구의 일치 보장[42]

위 네 가지 중 마지막 항목과 관련해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 찬반투표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많은 주류 미디어와 공중 간의 소통 단절 정황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의 강점은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미디어가 어떻게 수용자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수용자 및 지역공동체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야 한다.

마이클 셔드슨(Michael Schudson)의 〈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해 할 수 있는 6~7가지 일(Six or Seven Things News Can Do for Democracy)〉[43]은 토론을 위한 훌륭한 틀을 제공해준다.

1. 정보: 공정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건전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라.
2. 탐사: 집중된 권력, 특히 정부 권력을 탐사하라.
3. 분석: 일관된 이해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라.
4. 사회적 공감: 사람들에게 사회와 세계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보다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들의 관점과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5. 공공 포럼: 시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라. 이슈에 대해 다양하면서도 다학제적으로 접근해서 사회에 있는 여러 그룹의 관점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라.
6. 동원: 정치 프로그램과 관점의 옹호자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도록 만들어라. 하지만 사실 검증의 기준과 공익을 훼손하지는 말라.

모듈 목표

- 참가자들이 저널리즘과 소셜 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장려한다.
- 참가자들이 '정보 무질서' 생태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도록 장려한다.
- 참가자들이 '정보 무질서'가 사회에 가하는 충격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움을 준다.

42 Batsell, J. (2015). Engaged journalism: connecting with digitally empowered news audie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김익현 옮김(2016). 《참여 저널리즘: 디지털 독자 개발 전략》. 한국언론진흥재단.

43 Schudson, M. (2008). Why Democracies Need a Unlovable Press. Polity. 2장; Six or Seven Things News Can Do for Democracy. https://books.google.co.kr/books?id=hmYGMe9ecKUC&pg=PT17&lpg=PT17&dq=six+or+seven+things+news+can+do+for+democracy&source=bl&ots=nS3n1YLkXv&sig=ACfU3U1LO5G02FCq7wGxD84hSiM1-awjcQ&hl=ko&sa=X&ved=2ahUKEwi0o9nLnPPoAhWPSJQKHTSTCOcQ6AEwDnoECAwQKw#v=onepage&q=six%20or%20seven%20things%20news%20can%20do%20for%20democracy&f=false [2018.4.3. 접속]

학습 성과

이 모듈을 끝내고 나면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갖게 될 것이다.

1. 방대하게 확대된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저널리즘이 민주주의와 열린사회에 더 잘 봉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보 무질서'가 민주주의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깊어진다.
2. 저널리즘에 신뢰를 부여하는 요인을 이해하고, 그러한 신뢰가 어떻게 지속가능하며 재구축될 수 있을지 이해한다.
3. 다른 사람들에게 왜 저널리즘이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모듈 형식

이 모듈의 개요는 30분 강의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저널리즘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공중에게 봉사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30분 분량의 개별 지도나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덧붙일 수 있다. 구조화된 대화를 활용한 90분 실습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탐구한다. 저널리즘을 신뢰하지 않는 회의론자들에게 모든 정보가 똑같이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모든 정보가 똑같아 보이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 미디어는 자신들이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계획과 학습 성과 연결하기

A. 이론

모듈 계획	시간	학습 성과
진실과 신뢰에 대한 강의와 양방향 토론	30분	1, 2
왜 저널리즘이 중요하며, 그것은 어떻게 공중에 봉사할지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토론	30분	1, 2, 3

B. 실습

모듈 계획	시간	학습 성과
실습	90분	3

과제 제안

과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며, 참가자들은 두 명씩 혹은 소그룹으로 함께 작업해야 한다.

- (소그룹이나 두 명씩 작업하는) 참가자들에게 뉴스 소비자를 인터뷰해서 지역 뉴스나 전국 뉴스, 그리고 시민 정보 중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은 무엇인지 물어보도록 하라. 한 개의 신문, 혹은 저명한 미디어에 있는 특정 주제 기사를 선택한 뒤 셔드슨이 '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해 할 수 있는 6~7가지 일'에서 제시한 모델을 틀로 사용해서 그들이 저널리즘을 통해 공동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탐구하도록 하라. 이런 접근에서는 콘텐츠 분석 기법이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과제는 트러스트 프로젝트의 여덟 가지 신뢰 지수 중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다. 세 번째, 이런 작업을 통해 발견한 사안을 저널리즘의 중요성을 옹호하는 글쓰기나, 짧은 동영상, 혹은 오디오 스토리 형태로 만들어 뉴스 보도나 편집 논평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독서 자료

Deb, A. Donohue, S. & Glaisyer, T. (2017). Is Social Media A Threat To Democracy? [전자책] Omidyar Group. https://www.omidyargroup.com/wp-content/uploads/2017/10/Social-Media-and-Democracy-October-5-2017.pdf

Edelman. (2017). Edelman Trust Barometer- Global Results [온라인] https://www.edelman.com/global-results/

Howard, P. (2017). Is social media killing democracy? Oxford, https://www.oii.ox.ac.uk/blog/is-social-media-killing-democr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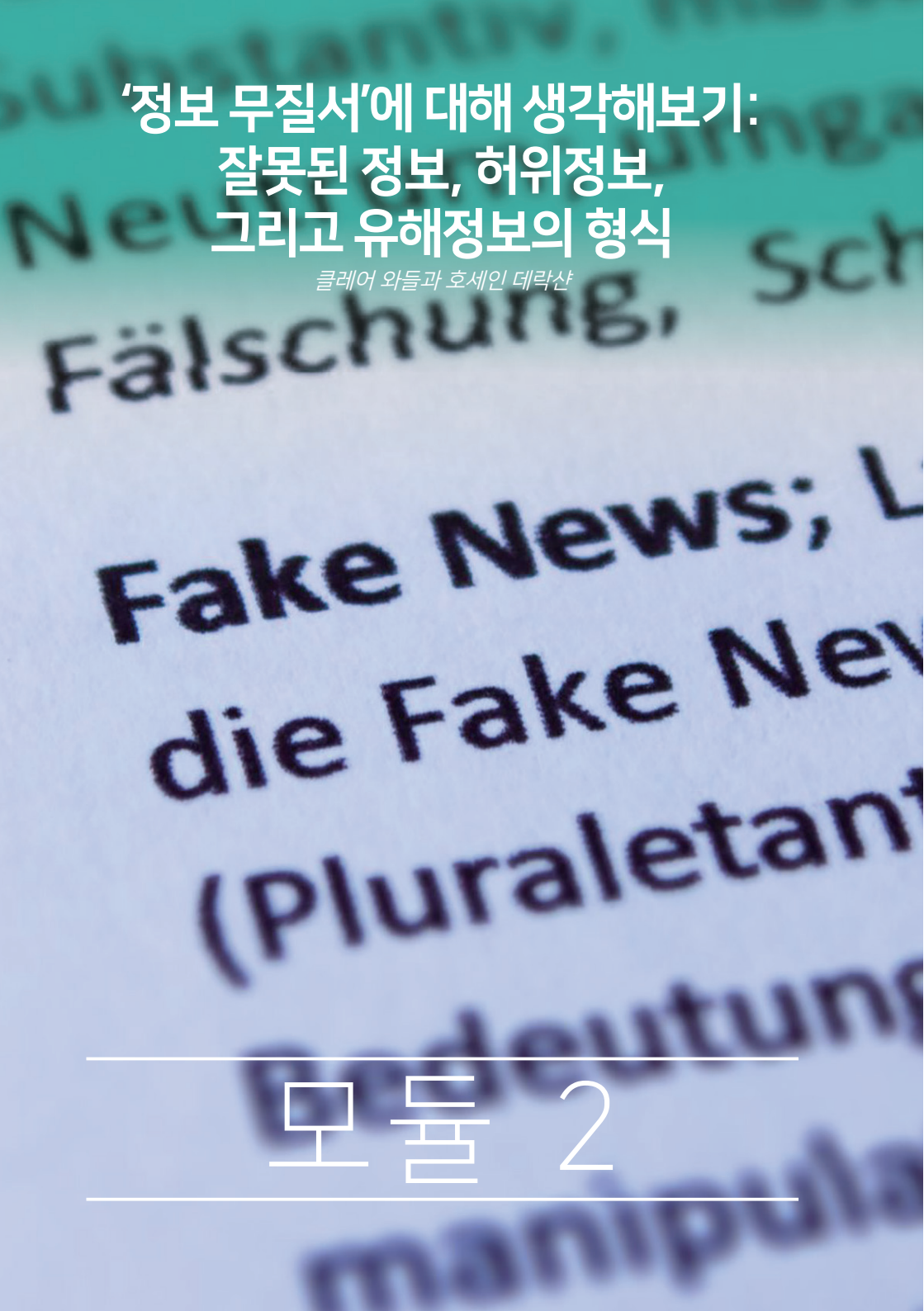
Nossel, S. (2017). Faking News: Fraudulent News and the Fight for Truth [전자책] PEN America, https://pen.org/research-resources/faking-news/

Schudson, M. (2008). Why Democracies Need a Unlovable Press. Polity. 2장; Six or Seven Things News Can Do for Democracy. https://books.google.co.kr/books?id=hmYGMe9ecKUC&pg=PT17&lpg=PT17&dq=six+or+seven+things+news+can+do+for+democracy&source=bl&ots=nS3n1YLkX-v&sig=ACfU3U1LO5G02FCq7wGxD84hSiM1-awjcQ&hl=ko&sa=X&ved=2ahUKEwi0o9nLnPPoAhWPSJQKHTSTCOcQ6AEwDnoECAwQKw#v=onepage&q=six%20or%20seven%20things%20news%20can%20do%20for%20democracy&f=false

Viner, K. (2017). A mission for journalism in a time of crisis. [온라인]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news/2017/nov/16/a-mission-for-journalism-in-a-time-of-crisis

‘정보 무질서’에 대해 생각해보기: 잘못된 정보, 허위정보, 그리고 유해정보의 형식

클레어 와들과 호세인 데락샨



모듈 2

요약

동의하지 않는 보도를 '가짜뉴스', 심지어는 '가짜 미디어(fake media)'라고 부르는 사례가 많다. 구글 트렌드 지도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이런 용어가 많이 검색되기 시작했다.[1] 참가자들은 이 모듈에서 그 용어가 (a)왜 대규모 정보 오염을 설명하기에 부적절한지, (b)그 용어는 왜 사용하면 안 될 만큼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가짜뉴스'나 '가짜 미디어' 같은 용어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뉴스 산업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많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훼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이러한 용어 대신 잘못된 정보나 허위정보의 사용을 추천한다. 이 모듈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을 탐구하고, 이런 유형이 '정보 무질서' 스펙트럼의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번 모듈에서는 진실이기는 하지만 맥락과 동떨어진 채 공유된 콘텐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저널리스트의 이름이나 뉴스룸 로고를 이용해서 만든) 사기 콘텐츠와 조작되고 꾸며낸 콘텐츠 외에 풍자와 패러디,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 그리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진 설명이나 시각자료, 통계의 이용까지 다룬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위기가 '가짜뉴스'라는 용어에서 연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유형의 정보가 소셜 미디어를 오염시키고, 전통 미디어의 콘텐츠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도출하려면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해야 한다. 누가, 어떤 동기로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들은 어떤 유형의 콘텐츠를 생산하는가? 수용자들은 그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게시물을 본 수용자들이 그것을 재공유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이슈에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수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이 모듈을 배우고 나면 적절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해 '정보 무질서'와 관련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개요

이 핸드북에서는 진정한 저널리즘이 공익 관점에서 제기하는 검증 가능한 정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번 모듈에서는 허위정보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가짜뉴스'에 관한 많은 담론들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수렴된다. 잘못된 정보란 사실은 아니지만 유포하는 사람은 진실이라고 믿는 정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허위정보는 허위일 뿐 아니라 그것을 유포하는 사람도 허위란 사실을 알고 있는 정보다. 고의로 정교하게 만들어낸 거짓말이며, 악의를 가진 행위자가 허위정보를 흘리기 위해 사람들을 적극 공략한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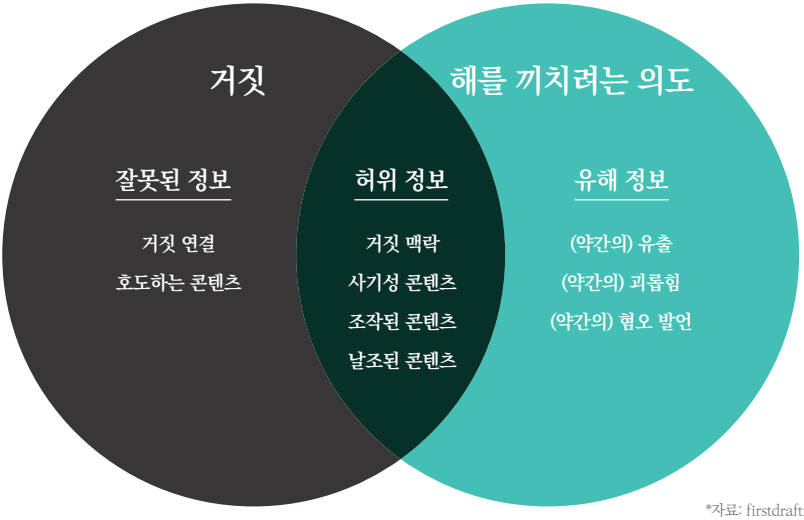
세 번째 범주는 유해정보로 명명할 수 있다. 실제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사람, 조직, 혹은 국가에 해를 끼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익이란 말로 정당화하기 힘든 누군가의 성적 지향을 폭로하는 보도를 꼽을 수 있다. 진실 메시지와 허위 메시지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진실 메시지(그리고 일부 진실이 포함된 메시지)이긴 하지만 공익에 봉사하기보다는 해악을 끼칠 의도를 가진 '대리인'이 고안 및 생산, 배포하는 정보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공익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진실 정보 같은-유해정보는

1 구글 트렌드의 가짜뉴스(Fake News) 용어 지도. https://trends.google.com/trends/explore?date=today%205-y&q=fake%20news [2018.4.6. 접속]

2 카로바와 피셔(Karlova and Fisher, 2012)의 연구에서 이 개념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성찰을 만날 수 있다.

저널리즘의 규범과 윤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위와 같은 차별점에도 불구하고 정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결과는 비슷할 것이다(예를 들면 민주적 과정의 완전성(integrity) 훼손, 예방접종 비율 감소). 이에 더해 특정한 경우에는 세 가지 개념이 혼재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개별 사안에서는 특정 행위자의 좀 더 광대한 정보 전략의 일환으로 셋 중 한 가지 개념이 다른 개념을 수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다른 플랫폼에서, 혹은 연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특징을 유념하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원인과 기법, 처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료: firstdraftnews.org

[그림1] 정보 무질서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그림1]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정보 무질서'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 허위정보 사례

프랑스 대통령 선거전에서 유권자들을 속이려고 했던 콘텐츠 중 하나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에마뉘엘 마크롱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짓 기사였다. 이 거짓 선동은 벨기에 신문 〈르스와르(Le Soir)〉[3]가 보도한 기사인 것처럼 교묘하게 만들어져 유포됐다. 마크롱이 바하마에 해외 은행 계좌를 열었다고 온라인에서 퍼진 거짓 문서도 대표적 사례다.[4] 마지막으로, 동시에 트위터에 접속한 개인들이 느슨한 연결망을 통해 동일한 해시태그와 메시지를 붙여서 후보자의 사생활 관련 소문을 '트위터 습격' 형태로 유포했던 허위정보 사례도 있다.

3 CrossCheck, 2017. Was Macron's campaign for French Presidency financed by Saudi Arabia? https://crosscheck.firstdraftnews.org/checked-french/macrons-campaign-french-presidency-financed-saudi-arabia/ [2018.4.3. 접속]

4 CrossCheck, 2017. Did Emmanuel Macron Open an Offshore Account? https://crosscheck.firstdraftnews.org/checked-french/emmanuel-macron-open-offshore-account [2018.4.3. 접속]

2. 잘못된 정보 사례

거의 모든 속보 상황에서 그러하듯 2017년 4월 20일 프랑스 샹젤리제 테러 공격은 무수히 많은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냈다.[5] 소셜 미디어에 접속한 개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소문을 퍼 날랐다. 그중에는 (이미 사망한 경찰관 외에) 또 다른 경찰관이 살해됐다는 뉴스도 있었다. 이런 유형의 콘텐츠를 공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기 위해 당시 분위기에 휩쓸린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찬찬히 살펴보고,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데 실패했다.

3. 유해정보 사례

유해정보의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로 5월 7일 결선 투표 직전 있었던 에마뉘엘 마크롱의 이메일 유출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이메일은 진짜로 마크롱의 것이었다. 하지만 투표 바로 직전 (선거 관련) 모든 보도를 금하는 선거보도 금지 기간 몇 분 전에 사적인 정보를 공론장에 공개한 것은 마크롱 선거운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행동이었다.

허위정보가 선전선동에 동원되기는 하지만 선전선동이란 용어와 허위정보가 같은 말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선전선동은 허위정보보다 더 공공연하게 정보를 조작한다. 선전선동은 정보 메시지보다는 정서를 건드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6]

이번 모듈에서는 잘못된 정보와 특히 허위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몇 가지 다른 유형의 사례를 공유한다.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허위정보, 잘못된 정보, 그리고 유해정보의 범주를 진짜 뉴스 내러티브로 이뤄졌지만 다른 지향점을 가진 기사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저널리스트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버나드 메이도프(Bernie Madoff)[7]와 같은 류는 아니지만, 이런 새로운 사기 행각은 소액 투자자에게 심한 타격을 입힌다." 다른 저널리스트는 이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새로운 사기 사건은 소액 투자자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그것은 버나드 메이도프와 같은 류는 아니다." 두 번째 글은 상대적으로 첫 번째 글보다 새로운 사건의 중요성을 떨어트렸다. 강조점이 서로 다른 위 기사의 사례는 아래에 묘사된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정당한 두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허위정보, 잘못된 정보, 유해정보뿐 아니라 뉴스에도 내러티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뉴스에서 중요한 것으로 채택된 사실(혹은 유해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사실이 조작되거나, 맥락에서 벗어나서 채택될 때)에 삽입된다. 허위정보가 아닌 범죄 사실 보도에서 범인이나 피해자의 인종과 국적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강도가 이민자 남성이고, 명확한 피해자는 자국 국민이며 여성이란 점이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요소 가운데 기사에서 실제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취급할지는 저널리스트의 탐사 능력과 관련 있다. 특히 저널리스트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간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이데올로기, 관점, 그리고 중요성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내러티브의 일부분이다. '팩트체크'를 할 때 '내러티브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이런 상황 때문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사실과 허위를 동원해서 끼워 넣은 의미 구조를 파헤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저널리즘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러티브는 다양하다. 그리고 내러티브가

5 영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공격을 축하했다는 소문도 이런 사례 중 하나다. 크로스체크 프로젝트가 이 잘못된 정보를 폭로했다. CrossCheck, (2017년 4월 22일), Did London Muslims 'celebrate' a terrorist attack on the Champs-Elyssees? CrossCheck, https://crosscheck.firstdraftnews.org/checked-french/london-muslims-celebrate-terrorist-attack-champs-elysees/ [2018.4.3. 접속]

6 Neale, S. (1977). Propaganda, Screen 18-3, pp9-40.

7 [역주] 버나드 메이도프: 전직 미국 증권 중개인.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폰지 사기사건 주동자로 유명하다.

존재한다고 해서 다른 커뮤니케이션, 특히 아래 열거된 일곱 가지 커뮤니케이션 형식 속의 내러티브와 비교할 때 저널리즘 고유의 특징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1. 풍자와 패러디(Satire and Parody)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 관련 분류 체계에 풍자가 포함되면 아마 놀랄 것이다. 풍자와 패러디는 예술의 한 형태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소셜 피드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세계에서는 그 사이트를 풍자적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혼란한 상황이 있다. 뉴스 사이트 〈파키스탄 투데이(Pakistan Today)〉의 자매 사이트로 풍자 칼럼을 게재하는 〈카바리스탄 타임스(Khabaristan Times)〉[8]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이트는 2017년 1월 파키스탄에서 차단되고 발행이 중단됐다.[9]

2. 거짓 연결(False Connection)

제목, 시각자료, 혹은 사진 설명이 콘텐츠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콘텐츠로는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을 꼽을 수 있다.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사에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이 사용된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심지어 기사를 읽은 뒤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예도 있다. 〈폴리티컬 인사이더(The Political Insider)〉에서 특히 어처구니없는 사례를 만날 수 있다.[10] 페이스북 같은 사이트에서 특별한 인상을 주기 위해 텍스트로 뒷받침되지 않는 시각자료나 사진 설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이 기사를 누르지 않고 소셜 계정에 있는 피드를 훑어 내려갈 경우 (실제로 이런 일은 자주 벌어지는데) 오해를 불러오는 시각자료와 사진 설명에 사람들이 기만당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3. 호도하는 콘텐츠(Misleading Content)

이슈 또는 개인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프레이밍 하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사진을 자르거나, 인용구나 통계를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등 그릇된 방식으로 정보를 사용할 때 이런 유형의 콘텐츠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프레이밍 이론(Framing Theory)이라 부른다.[11] 〈래플러닷컴(Rappler.com)〉에서 이와 관련한 사례를 만날 수 있다.[12] 시각자료는 특히 호도하는 정보를 유포하는 강력한 도구다. 우리 두뇌가 시각자료에 대해서는 덜 비판적이기 때문이다.[13] 편집 콘텐츠를 모방한 '네이티브 광고'나 유료 광고가 후원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14]

4. 거짓 맥락(False Context)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진짜 콘텐츠가 가끔 원래 맥락에서 벗어난 채 재유포되는 경우가 있기

---

8 Pakistan Today (2018). Anthropologists make contact with remote cut-off tribe still thanking Raheel Sharif. https://www.pakistantoday.com.pk/2017/01/11/anthropologists-make-contact-with-remote-cut-off-tribe-still-thanking-raheel-sharif/ [2018.4.6. 접속]

9 여기서 참고하는 자료 중에는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줄리 포세티가 앨리스 매튜스와 공동 저술한 자료도 있다.

10 The Political Insider (2015). First time voter waited 92 years to meet Trump...what happened next is AMAZING! https://thepoliticalinsider.com/first-time-voter-waited-92-years-to-meet-trump-what-happened-next-is-amazing/ [2018.4.6. 접속]

11 Entman, R., Matthes, J. and Pellicano, L. (2009). Nature, sources, and effects of news framing. In: K. Wahl-Jorgensen and T. Hanitzsch, ed.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온라인] New York: Routledge, pp. 196-211.

12 Punongbayan, J. (2017). Has change really come? Misleading graphs and how to spot them. Rappler.com https://www.rappler.com/thought-leaders/177731-duterte-change-fake-news-graphs-spot [2018.4.6. 접속]

13 이번 모듈의 독서 자료에 있는 한나 가이(Hannah Guy)의 글을 참고하라.

14 모듈3을 보라.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7년 베트남에서 찍은 이미지가 7년 뒤 2015년 지진이 휩쓸고 간 네팔에서 찍은 사진인 것처럼 가장해서 공유된 적이 있다.[15]

5. 사기성 콘텐츠(Imposter Content)

저널리스트가 작성하지 않은 콘텐츠에 그들의 바이라인이 붙어 있거나, 뉴스 조직이 생산하지 않은 동영상 또는 이미지에 조직의 로고가 사용되는 것은 진짜 문제다. 예를 들어 2017년 케냐 선거 전에 〈BBC 아프리카〉는 누군가가 〈BBC〉 로고와 표제를 붙여 넣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왓츠앱을 통해 유포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16] 그들은 사기성 영상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해야 했다.

6. 조작된 콘텐츠(Manipulated Content)

속일 목적으로 진본 콘텐츠를 조작할 경우 조작된 콘텐츠가 된다. 남아프리카의 〈허프포스트(HuffPost)〉 객원 편집자(Editor-at-large)인 페리얼 하파지(Ferial Haffajee)의 조작된 이미지가 이런 사례를 잘 보여준다. 이 이미지에서 하파지는 사업가 조안 루퍼트(Johan Rupert)의 무릎에 앉아 있는 것처럼 조작돼 그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17]

7. 날조된 콘텐츠(Fabricated Content)

이런 유형의 콘텐츠는 완전히 날조된 '뉴스 사이트'처럼 텍스트 형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지지했다는 주장을 담은 뉴스를 발행한 자칭 판타지 뉴스 사이트 〈WTOE5〉가 대표적이다. 혹은 사람들이 단문 메시지를 통해 힐러리 클린턴 지지 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부정확한 주장을 담은 그래픽 사례[18]처럼 시각자료 형태일 수도 있다. 이런 그래픽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소수자 공동체를 공격 타깃으로 삼았다.

일반 공중과 특히 저널리스트는 행위자, 메시지, 그리고 해석자 같은 '정보 무질서'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별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각 요소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날조된 메시지를 창안해내는 행위자는 그 메시지를 생산하는 사람과 다를 수도 있다. 메시지 생산자 역시 그 메시지를 배포하는 '행위자'와 다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행위자들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동기로 그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 행위자가 배포하는 메시지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각 메시지의 규모를 짐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토론은 압도적으로 날조된 텍스트 뉴스 사이트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시각 콘텐츠 역시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골라내고 정체를 폭로하는 작업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무질서'의 세 가지 다른 '양상' 즉 창작, 생산, 그리고 배포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그림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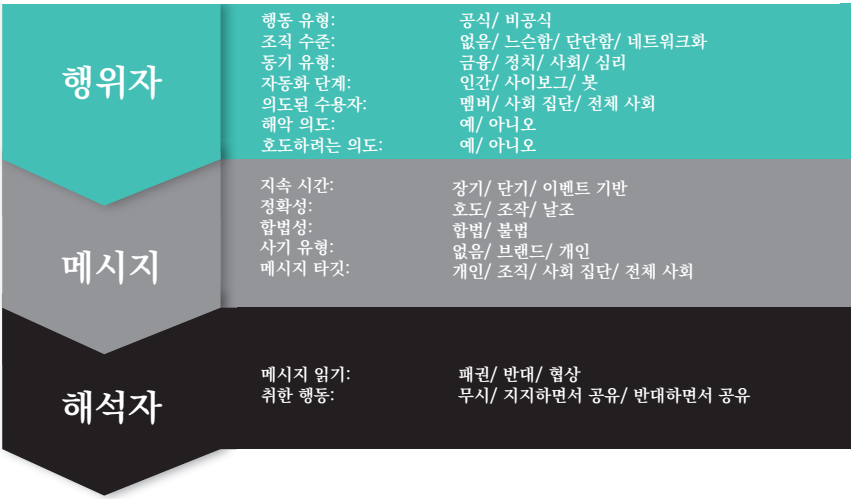
15 Pham, N. (2018). Haunting 'Nepal quake victims photo' from Vietnam. BBC [온라인] https://www.bbc.com/news/world-asia-32579598 [2018.4.6. 접속]

16 BBC (2017). Kenya election: Fake CNN and BBC news reports circulate. [온라인]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40762796 [2018.4.6. 접속]

17 Haffajee, F. (2017). Ferial Haffajee: The Gupta fake news factory and me. HuffPost South Africa. [온라인] https://www.huffingtonpost.co.uk/2017/06/05/ferial-haffajee-the-gupta-fake-news-factory-and-me_a_22126282/ [2018.4.6. 접속]

18 Haltiwanger, J. (2016). Trump Trolls Tell Hillary Clinton Supporters They Can Vote Via Text. Elite Daily. https://www.elitedaily.com/news/politics/trump-trolls-hillary-clinton-voting-text-message/1680338 [2018.3.23. 접속]

'정보 무질서'를 구성하는 요소와 함께 각기 다른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콘텐츠를 기획하는 행위자는 때로 생산자나 유포자와 분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2] '정보 무질서'의 세 가지 요소

예를 들어 정부가 후원하는 허위정보 캠페인을 '고안해서 만들어내는' 지도자들의 동기는 저렴한 대가를 받고 그 캠페인의 주제를 특정 게시물로 옮기는 일을 하는 '트롤들'과는 매우 다르다. 일단 메시지가 배포되고 나면 수많은 다른 행위자가 그 메시지를 끝없이 재생산하고 재배포한다. 물론 이들의 동기 역시 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여러 공동체가 어떤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을 유포함으로써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는) 주류 미디어가 그 메시지를 선택하고 재생산하도록 유도해서, 결국 다른 공동체로 더 많이 퍼져 나가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보 무질서'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이들 간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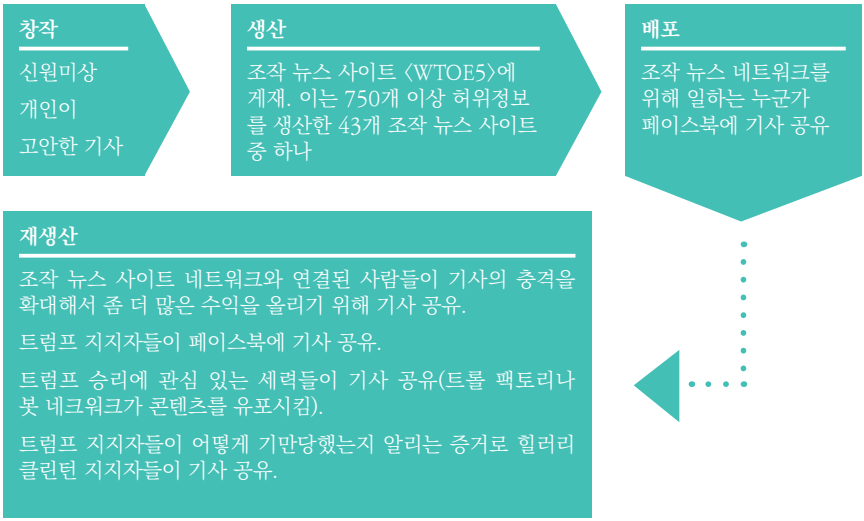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야기를 유포시킨 사이트는 정말 유명한 사례다.[20] '정보 무질서'의 다른 양상에 대해 생각해보는 데 유용한 사례 연구라 할 수 있다[그림3 참고].

19 원 글의 편집자 주: 아래에 고려해야 할 더 많은 그래픽을 추가했다.

	행위자: 정부, 심리운영국, 정당, 기업, PR 회사, 개인, 미디어	소프트웨어 인에이블먼트 (Software enablement)
콘텐츠 생산 예) 이야기, 댓글, 좋아요, 동영상, 밈	때론 비밀, 혹은 훔치거나 거짓 ID	양방향 인터페이스
콘텐츠 유통: 공유와 링크 등의 방법	도움 받기 위해 봇 활용	봇
콘텐츠 '편집': 수정/개정, 조정&큐레이션	해킹과 게이밍	알고리즘

[표] 유독성을 위한 프레임워크-정보의 순수성(integrity)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20 WTOE5News (2016). Pope Francis shocks world, endorses Donald Trump for President, releases statement. [온라인] https://web.archive.org/web/20161115024211/http://wtoe5news.com/us-election/pope-francis-shocks-world-endorses-donald-trump-for-president-releases-statement/ [2018.4.6. 접속]



[그림3] '정보 무질서'의 양상

모듈 목표

-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온라인에서 발견되는 정보를 좀 더 잘 분별하는 소비자 되기.
- 이런 유형의 정보를 만드는 사람(때로는 익명이나 사기꾼), 그러한 정보의 형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유포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 '정보 무질서'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하기. 특히 이런 유형의 정보를 만드는 사람, 그들이 사용하는 유형, 그리고 수용자가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이해하기.
-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에서 초래하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기.
- '정보 무질서'가 어떻게 민주주의와 열린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슈 강조하기. 이 문제는 이전 모듈의 주제이기도 함.

학습 성과

이 과정을 끝내면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정치인, 뉴스 미디어, 그리고 학계가 '정보 무질서'라는 이 주제를 토론하고 형성하는 방식을 이해한다.
2. '정보 무질서'가 얼마나 해롭고 거짓된 사고방식인지 이해한다.
3.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의 유형을 이해하고, 이를 다른 사례에 적용한다.

4. 누가 허위정보를 시작하고 창안했는지, 그 메시지는 어떻게 발생했으며, 그리고 수용자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나눠서 생각하고, 해당 사례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한다.

5. 우리가 이 이슈를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다.

모듈 형식

이론 강의 & 실습 워크숍

이번 모듈을 위해 준비한 슬라이드[21]들은 좀 더 긴 형식의 양방향 워크숍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이 커리큘럼의 목적을 위해 윗부분에 있는 텍스트는 이론 강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안한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실습은 90분 강의용으로 축약됐다. 교육 담당자는 토론 질문과 연습 문제를 활용하면서 이 슬라이드들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실습1: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의 일곱 가지 유형'을 설명하는 아래 [그림4]를 보라. 둘, 혹은 소그룹으로 짝을 지은 참가자들에게 이 범주에 적합한 사례를 제시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림4] '정보 무질서'의 일곱 가지 범주 *출처: firstdraftnews.org

실습2: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 그리고 유해정보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1]을 살펴보라. 동의하는가? 어떤 것이 빠졌는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는가?

21 슬라이드는 https://en.unesco.org/sites/default/files/fake_news_syllabus_-_model_course_1_-_slide_deck.pdf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계획과 학습 성과 연결하기

A. 이론

강의	시간	학습 성과
프레젠테이션과 학급 토론: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에 대한 최근 사례 관련 지식 공유	90분	1

B. 실습

강의	시간	학습 성과
실습1: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그림 4]를 보고 둘 혹은 소그룹으로 짝을 지어서 이들 범주에 적합한 사례를 찾아보라.	45분	2
실습2: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 그리고 유해정보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1]을 살펴보라. 동의하는가? 어떤 것이 빠졌는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는가?	45분	3

과제 제안

소셜 미디어 기업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소비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해주는, 뉴스피드 맨 위에 배치해놓고 틀어주는 교육 영상용 스토리보드[22]를 만들어보라. 참가자들은 이 모듈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의 사례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진실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게시물에 대해 '좋아요'나 '공유' 혹은 댓글을 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강조할 수 있다. 간단한 스토리보드 제작 툴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http:www.storyboardthat.com/

자료

슬라이드:
https://en.unesco.org/sites/default/files/fake_news_syllabus_-_model_course_1_-_slide_deck.pdf

독서 자료

Berger, G. (2017). Fake news and the future of professional and ethical journalism, Presentation at conference organized by the Joint Extremism/Digital Europe Working Group Conference of the European Parliament. 2017.9.6. https://en.unesco.org/sites/default/files/fake_news_berger.pdf

Busby, M. I. Khan & E. Watling (2017). Types of Misinformation During the UK Election, First Draft News, https://firstdraftnews.com/misinfo-types-uk-election/

Guy, H. (2017) Why we need to understand misinformation through visuals, First Draft News, https://

22 주의: 스토리보드는 광고, 영화, 다큐멘터리 제작 및 저널리즘에서 사용되는 창의적인 제작 계획 과정으로 텍스트, 동영상, 오디오 콘텐츠의 흐름을 각 프레임별로 그림으로 보여준다.

firstdraftnews.com/understanding-visual-misinfo/

Karlova, N. A. & Fisher, K. E. (2012) "Plz RT": A Social Diffusion Model of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Human Information Behaviour. Proceedings of the ISIC2012 (Tokyo), http://informationr.net/ir/18-1/paper573.html#.XqGdcpMzb_Q

Silverman, C. (2017) This is How your Hyperpartisan Political News Get Made, Buzzfeed News,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craigsilverman/how-the-hyperpartisan-sausage-is-made

Wardle, C. & H. Derakhshan (2017) Information Disorder: Towards an Interdisciplinary Framework for Research and Policy-Making, Council of Europe. https://edoc.coe.int/en/media/7495-information-disorder-toward-an-interdisciplinary-framework-for-research-and-policy-making.html

Wardle, C. & H. Derakhshan (2017) One year on, we're still not recognizing the complexity of information disorder online, First Draft News, https://firstdraftnews.org/latest/coe_infodisorder/

Zuckerman, E. (2017) Stop Saying Fake News, It's Not Helping My Heart's in Accra, http://www.ethanzuckerman.com/blog/2017/01/30/stop-saying-fake-news-its-not-helping/

뉴스 산업 변형: 디지털 기술, 소셜 플랫폼 그리고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의 확산

줄리 포세티

줄리 포세티
(Julie Posetti)

요약

디지털 시대는 '저널리즘의 황금기'로 불린다.[1] 실제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 접근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탐사보도가 탄생하기도 했다.[2] 탐사보도는 국경을 뛰어넘은 협력 보도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고,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지식과 다양한 자료의 보고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디지털 시대는 뉴스 산업에 전례 없는,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도전과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저널리즘은 '공격을 받고'[3] 있다. 집중 포위하는 압력으로 '정보 무질서'를 배양한 가상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4]에 직면해 있다.[5] 다음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 컴퓨터를 활용한 선전선동의 등장[6] 과 '불신의 무기화'.[7]
- 파괴적 힘을 갖는 디지털 광고의 등장으로 뉴스 산업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 붕괴와 대량 실업.
- 디지털 광고가 인쇄 광고를 대체하여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데 실패(이제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디지털 광고 판매의 주된 수혜자이다).[8]
- 디지털 융합으로 인한 콘텐츠 주문, 생산, 출판, 유통의 변화. 이에 따라 마감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추가 해고 발생.
- 저널리스트(특히 여성)와 취재원, 수용자를 겨냥한 온라인 괴롭힘.[9]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으로 콘텐츠를 발견하고 배포하는 최전선에 독자가 위치[10]하고, 뉴스 생산의 협력자로 격상됨(레거시 뉴스 미디어에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들의 게이트키핑 파워가 약화되고 검증 기준도 타격을 입음[11]).
- '주문형' 뉴스, 모바일 유통 및 소셜 미디어에서의 실시간 소통에 대한 수용자의 기대로 인해 끝없이 계속되는 뉴스 사이클 속에서 뉴스 전문가들은 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

---

1 Posetti, J. (2017). Protecting Journalism Sources in the Digital Age, UNESCO, Paris. p. 104.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8054 [2020.4.24. 역자 접속]

2 Obermayer, B. & Obermaier, F. (2016). The Panama Papers: Breaking the story of how the rich and powerful hide their money, One World, London

3 UNESCO (2018). World Trends in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Development 2017/2018 UNESCO, Paris.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1065 [2020.4.24. 역자 접속]

4 [역주] 퍼펙트 스톰: 개별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한데 합치면 엄청난 위험을 몰고 오는 것.

5 Wardle, C. & Derakhshan, H. (2017). Council of Europe, Op Cit. 주의: 2018년 국제 저널리즘페스티벌 패널 토론 녹화 영상은 교사들이 이번 모듈을 운영할 때 사용하기 좋은 자료일 것이다. 해당 패널 토론은 이 모듈 저자가 개최했다. https://www.journalismfestival.com/programme/2018/journalisms-perfect-storm-confronting-rising-global-threats-from-fke-news-to-censorship-surveillance-and-the-killing-of-journalists-with-impunity

6 Clarke, R. & Gyemisi, B. (2017). Digging up facts about fake news: The Computational Propaganda Project. OECD https://www.oecd.org/governance/digging-up-facts-about-fake-news-the-computational-propaganda-project.htm [2018.4.1. 접속]

7 UNESCO (2017). States and journalists can take steps to counter 'fake news'. UNESCO, Paris. https://en.unesco.org/news/states-and-journalists-can-take-steps-counter-fake-news [2018.3.29. 접속]

8 Kollewe, J. (2017). Google and Facebook bring in one-fifth of global ad revenue. The Guardian, 2017.5.2.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7/may/02/google-and-facebook-bring-in-one-fifth-of-global-ad-revenue [2018.3.29. 접속]

9 모듈7을 보라.

10 Nielsen, R. K. & Schroeder, C. K. (2014). The Relative Importance of Social Media for Accessing, Finding and Engaging With News in Digital Journalism, 2(4)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21670811.2013.872420 [2018.3.29. 접속]

11 Posetti, J. & Silverman, C. (2014). When Good People Shared Bad Things: The Basics of Social Media Verification, in Posetti (ed) Trends in Newsroom 2014 (WAN-IFA, Paris) http://mediashift.org/2014/07/goodwhen-good-people-share-bad-things-the-basics-of-social-media-verification/ [2020.4.24. 역자 접속]

- 뉴스 발행의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전통적 게이트키퍼를 우회한 채 독자의 시선을 끌려는 경쟁을 할 수 있게 됨. 특히 힘 있는 정치인들이 비판적 보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에 직면한 언론사는 수용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12]
- 수많은 신생 디지털 기반 미디어 스타트업이 등장해 신문의 실패로 생겨난 공백을 메워주고 있음. 하지만 그들의 영향과 수익성은 제한적.
- 저널리즘과 주류 미디어 조직의 신뢰 붕괴로 인해 수용자들이 더욱 흩어짐. 남아 있던 수익은 더 줄어들고, '정보 무질서' 확산에 불을 지핌.

그 결과 사실, 오락, 광고, 날조와 픽션 간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 그리고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발행되면 P2P(peer to peer) 공유에 의존하는 소셜 뉴스 배포 시스템에 의해 그 콘텐츠가 입소문이 나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저널리스트와 다른 팩트체커들이 콘텐츠의 정체를 밝히는 데 성공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번 모듈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많은 상업 뉴스 미디어의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함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의 합법적인 입소문 유포가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살펴본다.[13] 또한 학습 참가자들이 '정보 무질서'에 대한 뉴스 미디어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도 이번 모듈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계의 우수 실천 사례도 살펴본다.

개요

이슈 알아내기

뉴스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무질서'의 구조적 원인

1) 전통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

전통 광고 매출-거의 2세기 동안 상업 저널리즘을 지탱해 왔던 재정 모델-이 급속하게 붕괴하고, 디지털 광고가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저널리즘 비즈니스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긴급한 실험이 갈수록 늘어났다. 하지만 뉴스 산업의 붕괴가 더 가속화되고 신문이 빠르게 쇠퇴하면서 디지털 시대 뉴스룸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가 주기적으로 일어났다. 미디어 소비자의 행동이 변화하고 소셜 미디어가 융성하는데다, 앱을 구동할 수 있는 스마트폰까지 손에 넣은 전통 뉴스 상품 수용자들이 P2P 정보 공유 쪽으로 옮겨가면서 매출은 더 고갈되고 있다.

'정보 무질서'와 관련된 영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뉴스룸 자원(직원과 예산)의 고갈로 취재원 및 정보에 대한 조사와 '현장' 보도 감소.
- 품질 관리 과정 축소, 일자리 감소와 함께 마감 압박 증가. 반면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 채널 운영을 위한 콘텐츠 대량 생산 수요는 지속.

12 Cadwalladr, C. (2017). Trump, Assange, Bannon, Farage...bound together in an unholy alliance, The Guardian, 2017.10.28.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oct/28/trump-assange-bannon-farage-bound-together-in-unholy-alliance [2018.3.29. 접속]

13 Posetti, J. & Silverman, C. (2018). op cit.

- (기자의 사실 확인과 교정을 포함한) '확인과 균형'을 위한 시간과 자원 감소.
-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수익성은 있는 '네이티브 광고'[14]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용자 신뢰를 위태롭게 하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낚시성 제목 의존 심화.

2) 뉴스룸의 디지털 전환과 스토리텔링

2000년부터 10년 동안 미디어 세계는 엄청난 변화에 휩싸였다.[15]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뉴스 생산, 배포, 그리고 소비의 형태와 과정이 파괴됐다. 전례 없는 기회이자 위기였다. 뉴스 산업과 저널리즘 기술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독자 행동(예. 콘텐츠의 P2P 배포, 주문형 접속)과 기술(소셜 플랫폼의 등장,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의 도래,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변화로 촉발된 영원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6] 따라서 디지털 능력을 계속 함양할 필요가 있다.

'정보 무질서'와 관련된 영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미디어 융합: 많은 저널리스트가 이제 (모바일부터 종이신문에 이르는) 멀티 플랫폼용 콘텐츠를 동시에 생산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정확한 조사 없이 홍보 콘텐츠를 단순 재생산하는 수동적 보도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주도적인 보도물 생산을 위한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 저널리스트는 자신이 작성한 콘텐츠를 적절한 검토 절차 없이 직접 편집하고 발행하라는 요구를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17]
- 디지털-퍼스트 마감은 항상 '지금'이다. 그래서 실수할 위험이 더 크다.
- 수용자의 실시간 뉴스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저널리스트가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이나 회사 계정에 기사를 올리는 소셜-퍼스트 발행이 일상화됐다. '실시간 트윗', '페이스북 라이브' 동영상, 그리고 편집 과정이 개입되지 못하는 (실시간 방송과 유사한) 기타 저널리즘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런 관행으로 인해 '선발행, 후확인' 사고가 몸에 밸 가능성이 있다.
- [롱폼(long-form) 및 고품질 저널리즘을 위해서 좀 더 유용한 기록인] '주목 시간'이나 '체류 시간' 대신 기사 클릭 수와 사이트 순방문자 수에 초점을 맞춘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에 의존하고, 충분하지도 않으면서 저렴하기까지 한 디지털 광고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
- (사실이 아닌 진술로 포장한 링크를 누르도록 독자를 유인하기 위해 오해 소지가 있는 제목을 사용하는 관행인) 낚시성 보도 관행은 트래픽을 몰아오기는 하지만 그 대가로 전문 저널리즘의 신뢰는 무너진다.

---

14 미디어 업계에서 '네이티브 광고'는 금전적인 후원을 받은 콘텐츠를 보도물처럼 보이게 만든 것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런 콘텐츠에는 분명하게 '협찬(paid)'이라고 명기해주는 것이 윤리적이다. 하지만 독자 이탈 우려 때문에 투명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5 Nielsen, R. K. (2012). The Ten Years That Shook the Media World: Big Questions and Big Trends in International Media Developments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옥스퍼드).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sites/default/files/2017-09/Nielsen%20-%20Ten%20Years%20that%20Shook%20the%20Media_0.pdf [2018.3.29. 접속]

16 디지털 미디어 트렌드에 대한 자세한 글로벌 분석을 참고하려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RISJ)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Digital News Report)》 2018년판을 보라.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sites/default/files/digital-news-report-2018.pdf

17 호주 커뮤니티 미디어(ACM) 사례 연구를 참고하라. Robin, M. (2014). Who needs subs? Fairfax turns to reporter-only model Crikey https://www.crikey.com.au/2014/10/16/who-needs-subs-fairfax-turns-to-reporter-only-model/ [2018.3.29. 접속] (주석: 이 방법은 현재 페어팩스 미디어의 지역, 시골 및 공동체 출판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 품질과 정확성을 포기하는 대신 입소문을 추구한다. 이런 문제점은 '기계 학습'으로 더 가속화될 것 같다.
- 미디어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뉴스룸 안에 팩트체킹 부서가 등장했다.

3) 입소문: 새로운 뉴스 생태계에서 허위정보는 어떻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가

a) 수용자의 발흥

디지털 시대는 발행의 장벽을 없앴으며[18], "과거에 수용자로 알려진 사람들에게로 생산수단이 이동"[19]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제 이들은 뉴스를 비롯한 콘텐츠의 공동 생산자가 됐다. '생산이용(produsage)'[20]이라 묘사되는 기능과 관행이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그들의 도달 범위가 극적일 만큼 확장되기 전에 그들은 이메일과 채팅룸을 통해 수용자로 성장했다.

b) 소셜 미디어의 출현

2000년대 후반에 많은 나라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유튜브와 함께 소셜 미디어의 주축이 됐다. 그리고 저널리스트의 관행과 직업적 정체성(특히 사실 검증, 수용자와 소통, 그리고 소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공간과 공론장의 충돌[21])뿐 아니라 콘텐츠 배포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들이 형성한 네트워크가 신뢰를 구축하면서 P2P 유통(특히 페이스북)이 전통적인 콘텐츠 유포 방식에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했다.

이용자들은 매개자 없이 스스로 콘텐츠를-뉴스 서비스와 저널리스트, 그리고 믿을 만한 다른 정보 제공자의 콘텐츠를 포함해서-큐레이션했다. (이용자와 또래들의) '신뢰망'을 통해 유통된 결과, 뉴스처럼 꾸며진 부정확하고, 거짓되며, 악의적이고,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한 콘텐츠의 흡인력이 커져갔다. 연구자들은 감정적인 콘텐츠 또는 친구나 가족이 공유한 콘텐츠가 소셜 미디어에서 훨씬 더 쉽게 재유통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22]

저널리스트와 언론사는 뉴스 수집, 수용자와 소통 그리고 콘텐츠 배포를 위해 이런 종류의 플랫폼에 머물러야 했다(수용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곳에 존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필터버블'[23]이나 '반향실 효과'[24]가 나타났다(그들이 때로 외부에 보이는 것처럼 밀폐되거나 외부로부터 단절되지 않았을 때도 그런 현상이 보인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대안적인 관점과 검증된 정보를 접할 기회는 더 줄어들었고, 이런 현상이 '정보 무질서'와 결합하면서 위험을 더 증폭시킨다.

수용자와 연결된 저널리즘의 이점은 대중의 지혜를 통해 다양한 취재원을 확보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허위정보를 폭로하며, 악의를 가진 행위자를 소환하는 데 유용한) 공동 검증 작업[25]을 하고, (저널리즘 행위자와

18 Gillmor, D. (2004). We, the Media: Grassroot's Journalism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Reilly); 김승진 옮김(2008), 《우리가 미디어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풀뿌리 저널리즘》, 이후.

19 Rosen, J. (2006). The People Formerly Known as the Audience. PressThink blog (2006.6.27.) http://archive.pressthink.org/2006/06/27/ppl_frmr.html [2018.3.29. 접속]

20 Bruns, A. (2008), Blog, Wikipedia, Second Life, and Beyond: From Production to Produsage. Peter Lang, New York; Bruns A(2006). Collaborative Online news Production, Peter Lang, New York도 참고하라.

21 Posetti, J. (2009). Transforming Journalism…140 Characters at a Time Rhodes Journalism Review 29, 2009년 9월, https://ro.uow.edu.au/cgi/viewcontent.cgi?article=3125&context=lhapapers [2020.4.25. 역자 접속]

22 Bakir, V. & McStay, A. (2017). Fake News and the Economy of Emotions. Digital Journalism (Taylor and Francis) 2017년 7월.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8575699_Fake_News_and_The_Economy_of_Emotions_Problems_causes_solutions [2020.4.25. 역자 접속]

23 '필터버블'은 알고리즘이 이용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보여준 결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몰리면서 팽창된 공간이다.

24 '반향실 효과'란 소셜 미디어 플랫폼상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확증편향 효과를 뜻하는 말이다. 모듈5 '확증편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룬다.

25 Garcia de Torres, E. (2017). The Social Reporter in Action: An Analysis of the Practice and Discourse of Andy Carvin in Journalism Practice, (11(2-3).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7512786.2016.1245110 [2018.3.29. 접속]

뉴스 소비자 간의 직접 소통을 통해) 충성 고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26] 그들은 또 저널리스트가 실수한 기록을 바로잡거나, 공동으로 조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용자에게 '토크백(talk back)' 능력을 부여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론장은 정보와 열린사회로의 접근에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는 인위적인 제한과 검열(즉, '여론조작 전문가'들의 층위)을 저널리스트와 수용자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널리스트가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수용자 및 정보원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율규제를 도와주는 책무성 틀의 주목할 만한 새로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상호작용 덕분에 저널리스트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다양한 비평에 공개적이고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잘못을 즉시 수정하며, '보도 과정을 하나의 독립된 콘텐츠로 만들면서' 저널리즘 관행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27]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꼽을 수 있다.

-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신뢰망'[28]과 정서적 반응(예. 확증편향에 의해 촉발)을 통해 증폭되면서 입소문을 타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모듈5를 보라.)
- 정부와 다른 기관이 철저한 조사를 피해 '수용자에게 직접 다가감'으로써 뉴스 매체의 집요한 추궁과 검증 작업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선거 결과와 공공 정책에 영향을 끼치려는 주체들이 소셜 미디어의 힘을 조작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29]
- 선정적인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더 크다.[30]
- 허위정보나 잘못된 정보가 한번 입소문을 타면 쉽게 거둬들이거나 바로잡기 힘들다. 거짓을 폭로하는 보도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조작된 이야기, 악의적인 밈, 뉴스를 가장한 선전선동 동영상, 혹은 사실 확인의 실패가 불러온 잘못된 보도의 영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 소셜 플랫폼에서 즉시 발행하라는 요구 때문에 허위정보나 잘못된 정보, 혹은 가짜뉴스 출처의 자료가 부주의하게 공유될 수 있다.[31]
- 사회 전반적으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검증 기술의 수준이 낮다. 많은 경우 평범한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어떤 콘텐츠를 공유하기 전에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

26 Posetti, J. (2010). Aussie # Spill Breaks Down Barriers Between Journalists, Audience PBS MediaShift, 2010.5.24. http://mediashift.org/2010/05/aussie-spill-breaks-down-wall-between-journalists-audience144/ [2018.3.29. 접속]

27 Posetti, J. (2013). The 'Twitterisation' of investigative journalism in S. Traaer & N. Richardson (Eds), Journalism Research and investigation in a Digital World (pp. 88-100).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ro.uow.edu.au/cgi/viewcontent.cgi?article=2765&context=lhapapers

28 '신뢰망'이란 매개자가 없는 P2P 환경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예. 가족과 친구 그룹)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각종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정확성이나 사실 입증 여부에 관계없이 이런 '신뢰망'에서 나온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29 Freedom House (2017). Freedom of the Net 2017: Manipulating Social Media to Undermine Democracy. Freedom House. https://freedomhouse.org/article/new-report-freedom-net-2017-manipulating-social-media-undermine-democracy [2018.3.29. 접속]. 다음 자료도 참고하라. Cadwalladr, C. (2018). I made Steve Bannon's Psychological Warfare Tool: Meet the data war whistleblower, The Guardian/Observer https://www.theguardian.com/news/2018/mar/17/data-war-whistleblower-christopher-wylie-faceook-nix-bannon-trump [2018.3.31. 접속]

30 Kalsnes, B. & Larsson, O. A. (2017). Understanding News Sharing Across Social Media: Detailing distribution on Facebook and Twitter in Journalism Studies (Taylor and Francis), 2017년 3월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461670X.2017.1297686?journalCode=rjos20 [2018.3.29.접속]

31 Posetti, J. (2009). Rules of Engagement For Journalists on Twitter PBS Mediashift, 2009. 6.19., http://mediashift.org/2009/06/rules-of-engagement-for-journalists-on-twitter170/ [2018.3.29. 접속]

- 앞에서 요약한 긴박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검열과 차단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 이론상으로 편향을 확증해주고, 검증된 고품질 저널리즘에 노출될 기회를 줄이는 필터버블 현상이 발생한다.
- 낮은 품질의 저널리즘 때문에 이 직종에 대한 수용자의 존경심이 줄어들고,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를 가진 이들의 뉴스 미디어에 대한 공격이 합법화될 위험이 있다.
- 뉴스를 가장한 허위정보와 분명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무엇이 뉴스가 되는가에 대해 수용자가 혼란을 느낄 위험이 있다.[32]
- 뉴스룸이 허위정보에 대처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편집국 소셜 미디어 팀이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33]

c) 플랫폼의 등장

캐서린 바이너(Katherine Viner) 〈가디언〉 편집장은 "페이스북이 편집자를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면서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언론사가 됐다"고 평가했다.[34] 소셜 플랫폼은 검증과 큐레이션을 비롯해 전통적인 발행의 감시 기능에 대한 책임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게이트키퍼'[35]라고 불린다. 하지만 이들은 미디어 자유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일부 콘텐츠에 대해 검열을 하고 있다.[36]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가려내려는 플랫폼의 노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a)전 세계적 규모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b)사회와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언론사에 준하는 책임을 지는 두 가지 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해당 플랫폼은 '정보 무질서'와 온라인 괴롭힘을 위한 공장으로 악용되고 있다.[37]

2016년 이후 특히 개발도상국은 뉴스 유통 및 허위정보 확산과 관련해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기능을 심층 조사해왔다.[38] 그중에서도 다양한 개방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를 이용한 선전선동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39] 처음에 페이스북은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언론사 및 저널리즘 연구기관과 손잡고 행동에 나섰다. 믿을 만한 콘텐츠는 적극 표출해주고, 거짓이나 호도하는 게시물에는 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2018년 1월 이런 조치들을 갑자기 철회했다.[40] 수용자의 참여는 개방된 소셜 미디어에서 좀 더 폐쇄된 소셜 미디어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것 같다. 그럴 경우 뉴스 유통과 고품질

32 Nielsen, R. K. & Graves, L. (2017)."News you don't believe": Audience Perspectives on Fake News.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Factsheet (RISJ, Oxford).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our-research/news-you-dont-believe-audience-perspectives-fake-news [2018.3.29. 접속]

33 Elizabeth, J. (2017). After a Decade, It's Time to Reinvent Social Media in Newsrooms, American Press Institute, https://www.americanpressinstitute.org/publications/reports/strategy-studies/reinventing-social-media/ [2018.3.29. 접속]

34 Viner, K. (2017). A mission for journalism in a time of crisis. The Guardian, 2017.11.17., https://www.theguardian.com/news/2017/nov/16/a-mission-for-journalism-in-a-time-of-crisis [2018.3.29. 접속]

35 Bell, E. & Owen, T. (2017). The Platform Press: How Silicon Valley Reengineered Journalism, Tow Cent for Digital Journalism. https://www.cjr.org/tow_center_reports/platform-press-how-silicon-valley-reengineered-journalism.php[2018.3.29. 접속]

36 Hindustan Times (2016). Facebook Says Will Learn From Mistake Over Vietnam Photo. https://www.hindustantimes.com/world-news/facebook-says-will-learn-from-mistake-over-vietnam-photo/story-kwmb3iX6lKgmwaIGZeKlyN.html [2018.3.29. 접속]

37 Posetti, J. (2017). Fighting Back Against Prolific Online Harassment, The Conversation, 2017.6.29., https://theconversation.com/fighting-back-against-prolific-online-harassment-in-the-philippines-80271 [2018.3.29. 접속]

38 Finkel, Casey & Mazur (2018). op cit

39 Grimme, C., Preuss, M., Adam, L. & Trautmann, H. (2017). Social Bots: Human-Like by Means of Human Control? Big Data 5(4).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7887526_Social_Bots_Human-Like_by_Means_of_Human_Control [2020.4.25. 역자 접속]

40 Wang, S., Schmidt, C. & Hazard, O. L. (2018). Publishers claim they're taking Facebook's newsfeed changes in their stride- is the bloodletting still to come? NiemanLab. https://www.niemanlab.org/2018/01/publishers-claim-theyre-taking-facebooks-news-feed-changes-in-stride-is-the-bloodletting-still-to-come/ [2018.3.29. 접속]

저널리즘의 지속가능성에 완전히 새로운 함의가 나타난다. 또한 필터버블이 생기고, 허위정보가 입소문을 타고 퍼질 추가적인 위험이 있다.[41] 구글 같은 검색엔진의 알고리즘 문제도 있다. 구글은 2018년 초 자사의 검색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글을 쓰던 무렵 구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때로는 언론사가 제공하는 합당하고 다양한 관점이 있다. 우리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출처에서 나오는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고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42]

'정보 무질서'가 저널리즘과 뉴스 산업에 미친 영향

- 부정확하고 조작된, 혹은 오도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뉴스 브랜드, 저널리즘, 그리고 개인 저널리스트에 대한 신뢰가 더 추락했다.
- 양질의 보도 기사가 허위정보 및 뉴스를 흉내 낸 조악하게 이름 붙여진 네이티브(유료) 광고 콘텐츠와 섞이면서 대중의 불신이 더 커졌다.
- 저널리즘의 비즈니스 모델을 더 많이 강조한다. 수용자는 위기나 재난이 닥쳐올 때 더 이상 뉴스 미디어를 찾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공익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신뢰는 브랜드 충성심을 지탱해주며, 지속가능한 뉴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핵심 요인이다.
- (탐사 저널리즘을 통해) 책무성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저널리스트의 역할이 약화됐다. 이런 현상은 사회 전반에 연쇄 효과를 불러온다.
- 인터넷 셧다운, 플랫폼 차단, 검열 등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강경한 단속이 이루어졌다 (때로는 '가짜뉴스' 추방에 필요한 조치로 정당화된다).
- 비판적인 보도의 신뢰를 악화시키려고 온라인 괴롭힘을 수단으로 삼는 허위정보 전파자들이 악의적으로 저널리스트(특히 여성 저널리스트)를 표적으로 삼는다. 이들은 때로 저널리스트가 함정에 빠져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유통하도록 정교한 술책을 꾀하기도 한다.[43]

업계의 새로운 시도: 뉴스 조직은 어떻게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정보 무질서'에 대응하는가

앞에서 요약한 문제와 위험 요소는 전문적인 경계, 윤리 의무, 정보와 정보원에 대한 검증(공동 사실 확인 방법도 포함)과 보도에 대한 높은 기준 등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창의적으로 보도할 필요도 있다.

뉴스 조직과 개별 저널리스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도하고, 뉴스 리터러시를 위해 수용자와 소통하며, 허위정보에 대처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 〈가디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이용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 수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짧은 동영상 활용. https://www.instagram/pBRd25kQBb5N (〈가디언〉의 '가짜뉴스' 양방향 퀴즈도 참고하라. http://www.theguardian.com/theguardian/2016/dec/28/can-you-spot-the-real-fake-news-story-quiz)

41 Alaphillippe, A. (2018). Facebook's Newsfeed Changes Are Probably Going to be Great for Fake News, The Next Web, https://thenextweb.com/contributors/2018/01/18/facebooks-news-feed-changes-probably-going-great-fake-news/ [2018.3.29. 접속]

42 Hao, K. (2018). Google is finally admitting it has a filter bubble problem, Quartz https://qz.com/1194566/google-is-finally-admitting-it-has-a-filter-bubble-problem/ [2018.3. 29. 접속]

43 정교한 분석은 모듈7을 보라.

- 〈래플러〉: 탐사 저널리즘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필리핀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는 선전선동을 위한 '다중 계정자' 네트워크 폭로.
  https://www.rappler.com/nation/148007-propaganda-war-weaponizing-internet
- 〈뉴욕타임스〉: 사례연구 방식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해설 보도.
  https://www.nytimes.com/2016/11/20/business/media/how-fake-news-spreads.html
-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Columbia Journalism Review)〉: 문제에 대한 성찰적 실천 분석에 전념.
  https://www.cjr.org/analysis/how_fake_news_sites_frequently_trick_big_time_journalists.php
-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 기후변화 부정주의에 도전하는 기자를 위한 안내: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planet-oz/2016/nov/08/tough-choices-for-the-media-when-climate-science-deniers-are-elected
- 2017년 일본 총선 기간 동안 진행된 저널리스트와 학자들 간의 폭로 협업. 같은 해 프랑스에서 큰 성공을 거둔 크로스체크(CrossCheck) 선거 감시 프로젝트의 원칙을 기반으로 수행.
  http://www.niemanlab.org/2017/10/a-snap-election-and-global-worries-over-fake-news-spur-fact-checking-collaborations-in-japan
- 미국 일렉션랜드(Electionland): 저널리즘 교육자와 학생이 포함된 매우 흥미로운 협력 사례. https://projects.propublica.orgelectionland/[44]
-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대한 전 세계 공동 탐사보도(〈옵서버(The Observer)〉와 〈가디언〉, 〈채널4뉴스(Channel4 News)〉, 〈뉴욕타임스〉 포함). 그리고 〈복스미디어(Vox Media)〉가 수용자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설명하던 지식 함양 방식.
  a: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8/321/2017141428/cambridge-analytica-trump-russia-mueller b: http://www.vox.com/policy-and-politics/2018/3/23/2017151916/facebook-cambridge-analytica-trump-diagram
- 〈퀸트(Quint)〉: 인도에서는 왓츠앱을 통해 허위 조작된 이야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용자 힘을 이용. 그리고 검증된 콘텐츠를 앱에 창의적으로 큐레이션.
  https://www.thequint.com/neon/satire/whatapp-indian-elections-and-fake-propaganda-satire[45]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은 학습자의 지역과 그들의 언어로 진행된 다양한 사례를 추가하기 바란다.

찰리 베켓 교수가 쓴 '가짜뉴스' 시대에 윤리적 저널리즘 관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도 소중한 자료다. 저널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44 (원문)편집자 주: 크로스체크와 일렉션랜드는 선거 기간 조작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파트너십 형태의 임시 운동의 일종이다.

45 주석: 조작된 정보 유포 때 채팅 앱이 하는 역할에 대한 연구를 찾으려면 다음 자료를 참고하라. Bradshaw, S. & Howard, P. (2018). Challenging Truth and Trust: A Global Inventory of Organized Social Media Manipulation. Working Paper 2018, Oxford, UK. Project on computational Propaganda. https://comprop.oii.ox.ac.uk/research/cybertroops2018/ [2018.8.20. 접속]

- 연결하라-모든 플랫폼에서 항상 접속 가능한 존재가 되라.[46]
- 큐레이션하라-이용자들이 어디서건 좋은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 관련 있도록 하라-이용자의 언어를 사용하고 창의적으로 '경청하라'.
- 전문가가 돼라-가치, 통찰, 경험, 맥락을 더하라.
- 진실돼라-팩트체킹, 균형, 정확성.
- 인간미를 지녀라-동정과 다양성을 보여주라. 건설적이 돼라.
- 투명해라-취재원을 밝혀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 비평을 허용하라.[47]

모듈 목표

- 참가자들이 뉴스 산업이 약해지게 된 구조적 원인과 허위정보 및 잘못된 정보의 추진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참가자들이 '정보 무질서' 현상에 대한 뉴스 산업의 대응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 허위정보의 위기가 전개되고 영속화 되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이해하고 비판한다.
-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저널리스트와 뉴스 조직의 새로운 모범 사례에 대해 학습한다.

학습 성과

이 모듈을 끝낸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1. 거짓 정보를 보도하고 유포하는 뉴스 미디어 행위의 구조적 원인과 광범위한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따져본다.
2. 뉴스처럼 제시된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의 입소문 유통을 가능하게 한 기술 및 '새로운 게이트키퍼'(즉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비판한다.
3. 허위정보를 찾아내어 이것과 맞서 싸우고 있는 뉴스 산업의 새로운 모범 사례를 확인한다.

46 편집자는 모든 저널리스트가 모든 플랫폼에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뉴스룸이 지금 매우 인기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함께 그다지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하는 신생 플랫폼에 저널리스트를 배치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47 Beckett, C. (2017). op cit

모듈 형식

이 모듈은 면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도록 설계됐으며, 이론과 실습 두 부분으로 기획됐다.

계획과 학습 성과 연결하기

A. 이론

모듈 계획	시간	학습 성과
전통적인 양방향 강의와 질의응답 세션. 혹은 원격 참여를 촉진하는 웨비나 플랫폼을 통한 강의. 강의 콘텐츠는 앞에서 제공한 이론 및 사례에서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교사들이 이 모듈을 강의할 때는 문화적/지역적으로 관련 있는 사례 연구를 추가하기 바란다. 학습 성과는 전문가 패널 토론 형태 강의를 통해 특별히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사회를 보는 토론에는 저널리스트, 편집자, 플랫폼 대표자들을 초대하고 교육과정 참가자들도 질의응답을 통해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	60~90분	1, 2, 3

B. 실습

모듈 계획	시간	학습 성과
전통적인 교실 환경 또는 무들, 페이스북 그룹 같은 e러닝 플랫폼, 또는 온라인 원격 참여가 가능한 다른 서비스를 통해 워크숍/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워크숍/강의 훈련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강의 그룹은 각 3~5명으로 구성된 워킹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각 그룹은 다음 활동을 해야 한다. i. 뉴스 조직이 잘못된 정보/허위정보를 보도하거나, 혹은 부지불식간에 배포한 사례에 대한 연구를 제공받는다. ii. 자료를 평가하고, 정보의 기원과 잘못된 보도의 맥락을 연구한다(예. 이것은 뉴스 속보인가?); 그 사건의 가능성 있는 원인에 대해 토론한다(최근의 뉴스룸 규모 축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 같은 구조적 요인에 주의를 기울인다); 허위정보에 속아 넘어갔던 각자 경험에 대해 토론한다. iii. 제시된 각 출판물의 원인에 대해 분석한 250자 분량의 요약문을 공동으로 작성한다. 이때 저널리스트나 뉴스 조직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거짓 정보의 발행을 막을 수 있었을지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구글 독스나 다른 협업 편집 도구를 활용해서 이 작업을 한 뒤 교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90~120분	1, 2, 3, 4

과제 제안

사례 연구 보고서(2,000자 분량). 뉴스 조직이 허위정보를 배포하거나, 허위정보에 대해 탐사를 한 사례 세 가지(그중 하나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지역 사례) 확인. 각 사례를 해체(잘못된 정보/허위정보 발행의 원인과 결과 토론)하고, 각 사례 연구로부터 배운 교훈을 추론하라(주석: 참가자들은 이 모듈과 관련된 워크숍에서 토론 자료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례를 선택해야만 한다).

독서 자료

Bakir, V. & McStay, A. (2017). Fake News and the Economy of Emotions. Digital Journalism (Taylor and Francis) 2017년 7월.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8575699_Fake_News_and_The_Economy_of_Emotions_Problems_causes_solutions [2020.4. 25. 역자 접속]

Bell, E. & Owen, T. (2017). The Platform Press: How Silicon Valley Reengineered Journalism, Tow Cent for Digital Journalism. https://www.cjr.org/tow_center_reports/platform-press-how-silicon-valley-reengineered-journalism.php [2018.3.29. 접속]

Ireton, C. (2016). Trends in Newsroom 2016 (WAN-IFRA, Paris), https://www.wan-ifra.org/sites/default/files/field_media_image_file_attach/WAN-IFRA_Trends_Newsrooms_2016.pdf [2018.3.29. 접속]

Kalsnes, B. & Larsson, O. A. (2017). Understanding News Sharing Across Social Media; Detailing distribution on Facebook and Twitter in Journalism Studies (Taylor and Francis), 2017년 3월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461670X.2017.1297686?journalCode=rjos20 [2018.3.29. 접속]

McChesney, W. & Picard, V. (Eda) (2011). Will the Last Reporter Please Turn Out the Lights: The Collapse of Journalism and What Can Be Done to Fix it. The New Press, New York.

Mitchell, A., Holcomb, J. & Weisel, R. (2016). State of the New Media,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wp-content/uploads/sites/8/2016/06/state-of-the-news-media-report-2016-final.pdf [2018.3.29. 접속]

Nielsen, R. K. (2012). The Ten Years That Shook the Media World: Big Questions and Big Trends in International Media Developments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옥스퍼드).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sites/default/files/2017-09/Nielsen%20-%20Ten%20Years%20that%20Shook%20the%20Media_0.pdf [2018.3.29. 접속]

Posetti, J. (2009). Transforming Journalism…140 Characters at a Time Rhodes Journalism Review 29, 2009년 9월, https://ro.uow.edu.au/cgi/viewcontent.cgi?article=3125&context=lhapapers [2020.4.25. 역자 접속]

Posetti, J. (2013). The 'Twitterisation' of investigative journalism in S. Traaer & N. Richardson (Eds), Journalism Research and investigation in a Digital World (pp. 88-100).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ro.uow.edu.au/cgi/viewcontent.cgi?article=2765&context=lhapapers [2018.3.29. 접속]

Posetti, J. & Silverman, C. (2014). When Good People Shared Bad Things: The Basics of Social Media Verification, in Posetti (ed) Trends in Newsroom 2014 (WAN-IFA, Paris) http://mediashift.org/2014/07/goodwhen-good-people-share-bad-things-the-basics-of-social-media-verification/ [2020.4.24. 역자 접속]

Posetti, J. (Ed) (2015), Trends in Newsrooms 2015 (WAN-IFRA, Paris), https://www.wan-ifra.org/reports/2015/06/02/trends-in-newsrooms-2015 [2020.4.25. 역자 접속]

RISJ (2018). Digital News Report 2018 (University of Oxford). http://media.digitalnewsreport.org/wp-content/uploads/2018/06/digital-news-report-2018.pdf [2018.3.29.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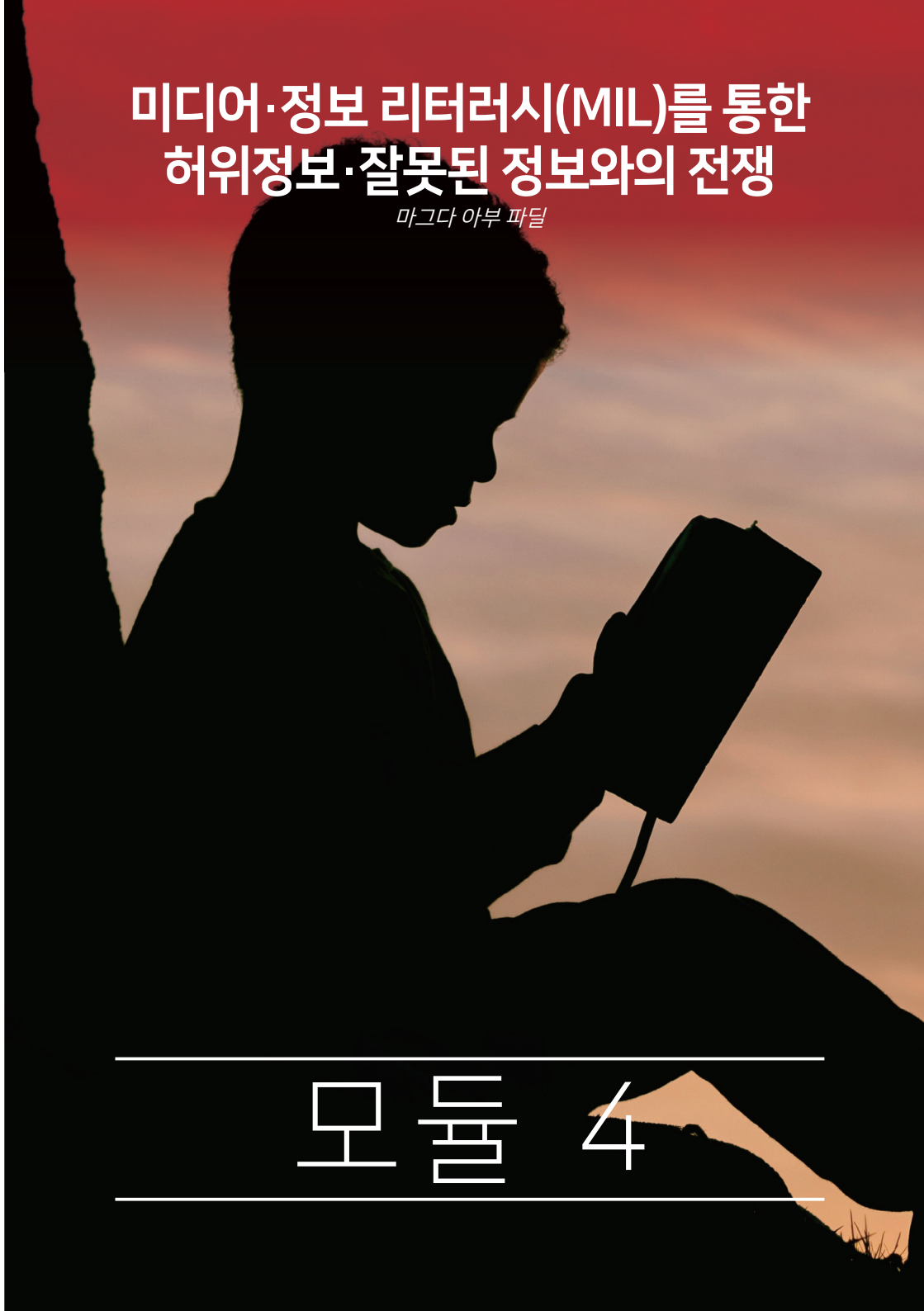
Silverman, C. (2015). Lies, Damn Lies and Viral Content. Tow Center for Digital Journalism. https://academiccommons.columbia.edu/doi/10.7916/D8Q81RHH [2020.4.25. 역자 접속]

Society of Climate Change Reporters (2016). Climate Change: A Guide to 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https://www.sej.org/initiatives/climate-change/overview [2018.3.29. 접속]

UNESCO (2017). States and journalists can take steps to counter 'fake news'. UNESCO, Paris. https://en.unesco.org/news/states-and-journalists-can-take-steps-counter-fake-news [2018.3.29. 접속]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를 통한 허위정보·잘못된 정보와의 전쟁

마그다 아부 파딜



모듈 4

요약

이 모듈에서는 학생들이 분명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접하는 메시지 가운데 '정보 무질서'를 탐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뉴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1] 개념을 소개한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전반에서, 그리고 특히 미디어와 관련된 역량 간에 상호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사용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은 인권 리터러시(특히 각 개인이 정보와 의견을 찾고 수용하며 널리 전달하는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 권리); 뉴스 리터러시(저널리즘 규범과 윤리에 대한 리터러시 포함); 광고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주목 경제'에 대한 이해; 이종 문화 간 리터러시; 프라이버시 리터러시 등을 포괄한다. 소통이 개인의 정체성 및 사회 발전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이해도 포함한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갈수록 삶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 되고 있다. 무엇이 모여 한 사람의 자아를 형성하는지, 정보의 안개를 헤치고 그 안개 속에 숨어 있는 지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소비, 생산, 발견, 평가, 그리고 공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정보 사회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 장르의 언어와 관행을 이해하는 데 특화된 능력이며, 이런 특징들이 사악한 의도에 의해 어떻게 악용되는지 식별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이런 능력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뉴스의 외피를 쓴 허위정보에 대해 완벽한 회복력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할 것 같지는 않다. 사람들은 머리뿐 아니라 가슴으로도 소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사람들이 뉴스 콘텐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장르 신호와는 무관하게 어떤 정보를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근본적으로 각 개인에게 자신의 정체성-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뉴스 및 다른 종류와의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번 모듈에서는 참가자들이 저널리즘과 저널리즘을 자처하는 정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능력을 갖추면 자신의 정체성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뿐 아니다. 뉴스처럼 꾸민 허위정보의 조종을 받게 되는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그런 시도에 적절하게 저항할 수 있게 된다.

참가자들은 '목적 지향적 성찰적 판단(Purposeful Reflective Judgement)'[2]이라는 비판적 사고 기술 틀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분석, 해석, 평가, 자율규제, 추론, 그리고 설명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참가자들은 신문, 방송(라디오와 텔레비전),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 등의 뉴스를 분석하고 각 메시지를 구성 요소별로 해체해본다. 이와 더불어 정보원과 그들의 신뢰성(혹은 신뢰의 부족)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진짜 뉴스는 과학이 아니라 내러티브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비록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내러티브는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조작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문적인 방법과 윤리에 충실한 편이다. 저널리스트는 다양한 행위자가 표출하는 거짓말에 대해 보도하고 알려야 한다. 반대로 저널리스트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실제 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동반된 단서들을 빼놓고 수용자에게 그 주장을 그냥 전달해서도 안 된다.

학생들은 또한 이 모듈에서 불완전하고 오도할 우려가 있으며 조작된 세부 사항들에서 벗어나, 믿을 만하고 설득력

1 https://en.unesco.org/themes/media-and-information-literacy [2018.6.16. 접속]

2 Frcione, P. (2010 업데이트). Critical Thinking: What It Is and Why It Counts. [온라인] Insight Assessment, https://www.insightassessment.com/article/critical-thinking-what-it-is-and-why-it-counts [2018.2.1. 접속]

있는 이야기를 생산하는 '저널리즘 특유의 용어'를 빠르고 수월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3]

이 모듈의 학습 자료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를 다룰 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중에는 조작된 '뉴스'를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 활용 기법도 있다. 참가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거짓말의 홍보와 유포를 방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4]

강의는 컴퓨터가 설치돼 있고, 인터넷이 연결된 학습 공간에서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실습 시간에는 개인 모바일 기기의 온라인 채팅 앱을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은 캠퍼스 바깥에 있는 인터넷 자료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하다. 반면 (이 모듈이 제공되는 지역의) 캠퍼스 인트라넷은 도서관이나 캠퍼스 내 다른 정보 자료 센터에 접속할 때 사용한다.

개요

2016년과 2017년 미국, 프랑스, 케냐, 그리고 독일 선거 당시 등장한 뉴스를 가장한 허위정보는–비록 최대의 잠재적 중대성에도 불구하고–사회에 도전장을 던진 많은 정보 사례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 세계 텔레비전 방송사와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2017년 멕시코에서 일어난 기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던 때를 떠올려보자. 당시 사람들은 지진으로 인해 돌무더기에 갇혀 있던 프리다 소피아(#FridaSofia)란 여학생이 구조되는 과정을 텔레비전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학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5] 그 이야기는 정교하게 꾸며낸 사례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짓이었다. 언론은 실수와 위조를 모두 피해야만 한다. 뉴스에 있는 모든 거짓이 허위정보를 의미하는 '가짜뉴스'는 아니다. 하지만 둘 모두 세계를 이해하는 사회의 능력이란 측면에서는 문제를 안고 있다.

뉴스 이용자는 복잡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전반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깊이 있는 철학적 이해를 겸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진짜 뉴스가 완전히 '진실'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그것은 단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혹은 오랜 시간 현실과 소통하는 가운데 비슷해진 무언가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참가자들, 특히 저널리즘을 배우는 학생들은 거짓이 영원히 존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저널리즘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수영장이나 뒷마당에 고래와 상어가 있는 장면, 혹은 자연재해의 희한한 부작용에 대해 미디어가 보도할 경우,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정말이야?" 검증된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관련성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하는 뉴스는 성의 없는 보도나 부적절한 편집 과정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고의적인 기만일 수도 있으며 결국 사기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한 보도와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보도를 비교해보고, 둘 간의 차이를 확실히 판독해내기 위해서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갈 길은 멀다. 수위가 높아져가는 혐오 발언, 외국인 혐오와 난민 또는 종교와 민족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피부색에 대한 공격은 날조된 통계, 포퓰리즘적 수사, 저널리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도하는 미디어 보도 등으로 인해 촉발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됐으며, 미디어·정보 리터러시가 대응해야만 하는 유독성 혼합체들이다.

---

3 '저널리즘 특유의 용어' 사례는 다음을 참고하라. Philip B. Corbett. Fluent in Journalese, 2015.3.17., https://afterdeadline.blogs.nytimes.com/2015/03/17/fluent-in-journalese/; Rob Hutton, My 'shameful secret': I've learnt to love cliched journalese, 2013.9.5., https://www.telegraph.co.uk/culture/10288967/My-shameful-secret-Ive-learnt-to-love-cliched-journalese.html [2018.4.22. 접속]

4 저널리즘 교육에 MIL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연구 사례. Van der Linde, F. 2000. The necessity of a media literacy module within journalism or media studies curricula. Global Media Journal, African Edition, Vo. 4 no2. https://globalmedia.journals.ac.za/pub/article/view/7

5 Campoy, A. (2017). A schoolgirl trapped in Mexico's earthquake rubble won the world's hearts- except she did not exist. Quartz. https://qz.com/1084105/a-schoolgirl-trapped-in-mexicos-earthquake-rubble-won-the-worlds-hearts-except-she-didnt-exist/ [2018.4.3. 접속]

인공지능(AI)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허위 동영상이나 오디오 보도에 사람들을 위조해 넣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6]

간단한 대화에서부터 전통 매체나 디지털 멀티미디어로 널리 유포되는 뉴스에 이르기까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학생과 저널리즘 종사자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다.

와들과 데락샨(2017)[7]이 확인한 이런 허위정보 및 잘못된 정보 유형에 더해 브뤼셀에 있는 비영리 기구인 유럽시청자권익위원회(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s, EAVI)는 시민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for Citizenshi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넘어: 오도하는 뉴스의 열 가지 유형(Beyond Fake News: Ten Types of Misleading News)'이란 인포그래픽을 만들었다. 이 인포그래픽은 오늘날 뉴스 소비자가 직면한 문제들을 요약 정리했다.[8] 저널리즘 학생과 종사자들에게 소중한 자료다.

피터 A. 페이션(Peter A. Facione) 박사의 최신 연구 논문 '비판적 사고: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Critical Thinking: What It Is and Why It Counts)'[9]는 '추론, 의사결정, 그리고 개인 및 그룹의 효과적인 사고 과정'을 알고 싶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것들은 '포스트-트루스(post-truth)', '가짜뉴스' 그리고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 시대에 훨씬 더 큰 의의가 있다. 이런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탐구
- 정보에 정통하려는 관심
- 비판적 사고의 이용 기회를 기민하게 포착
- 이성적인 탐구에 대한 신뢰
- 자신의 추론 능력에 대한 확신
- 다양한 세계관에 대한 열린 마음
- 대안과 의견을 유연하게 고려하는 마음
-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이해
- 다른 사람의 추론을 평가하는 공정한 마음
- 자신의 편향, 편견, 고정관념 혹은 자기중심적 경향을 인식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임
- 판단을 내리거나 수정 또는 유보하는 데 신중함
- 정직하게 숙고해서 변화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기꺼이 관점을 재고하고 수정하는 마음

6 Edmund, C. (2017). The AI can create a video of Barack Obama saying anything. [온라인]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agenda/2017/07/obama-speech-simulation-washington-university/

7 모듈2를 보라.

8 EAVI (2018). EAVI.eu. [온라인] https://eavi.eu/beyond-fake-news-10-types-misleading-info

9 Facione, P. (2010), ibid. Critical Thinking.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많은 지역의 젊은이들이 모바일 기기로 소통[10]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뉴스를 모바일 기기에 있는 채팅 앱, 소셜 미디어, 그리고 때로는 전통 매체 웹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통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12][13] 이 중 많은 내용이 허위정보는 고사하고 존경할 만한 저널리즘이나 아마추어 보도라고 표시할 만하지 않다.

플랫폼이 뉴스를 다루는 방식 역시 또 다른 쟁점이다. 현재까지 세계 최대 소셜 플랫폼인 페이스북을 한번 살펴보자. 프레데릭 필로우(Frederic Filloux)는 "…저널리즘은 첫날부터 골칫거리였다. 지금은 가짜뉴스와 나쁜 홍보라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놓고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페이스북이 점차 뉴스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할 필요가 명확해졌다"고 주장한다.[14]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볼 부분이다. 일부 언론사는 지원이 끊어질 경우 수용자로서는 잔돈을 덜 받은 느낌이라고 말하면서 실망감을 토로할 것이다. 소셜 플랫폼에 의존했던 이용자들에게 페이스북은 사건을 따라잡는 통로였기 때문이다.[15] 하지만 일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옹호자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젊은 뉴스 소비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지평을 넓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셜 미디어에 있는 정보는 오염돼 있을 뿐 아니라, 뉴스를 접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기와 접속해야만 한다. 이와 동시에 페이스북이 직접 뉴스 생산에 뛰어들어 기존 미디어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다.[16]

참가자들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통해 진짜 뉴스도 늘 방대한 내러티브 틀 안에서 구축되고 소비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내러티브 틀은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뿐 아니라, 사실보다 더 방대한 가정, 이데올로기, 정체성이 관련돼 있음을 시사해준다. 결국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중요한 현실을 포착하고 해석하는 다양한 저널리즘적인 시도와, 뉴스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검증이라는 직업적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속임수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또 고정관념과 싸우고 문화 간 소통을 진작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다중언어주의가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다양한 사람들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활동에 기여해 왔으며, 유네스코 웹사이트에는 훌륭한 자료가 있다.[17] 하지만 아직 교육과정을 통해 더 많은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의 영향을 완화하는 작업에 더 매진해야 한다.[18]

이번 모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동영상을 활용해 참가자들과 소통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에듀테인먼트' 형태로 구성된 짧고, 자막이 붙어 있는 동영상[19]을 이용해 스스로

10 Children's use of mobile phones (2015). [전자책] Tokyo: Mobile Society Research, NTT 도코모. https://www.gsma.com/publicpolicy/wp-content/uploads/2016/09/GSMA2013_Report_ChildrensUseOfMobilePhones.pdf

11 Digital News Report (2017).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s (RISJ, Oxford)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sites/default/files/Digital%20News%20Report%202017%20web_0.pdf

12 Shearer, E. & Gottfried, J. (2017). News Use Across Social Media Platform. [전자책]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re. https://www.journalism.org/2018/09/10/news-use-across-social-media-platforms-2018/

13 Youth, Internet, and Technology in Lebanon: A Snapshot (2017). Social Media Exchange. https://smex.org/youth-internet-and-technology-in-lebanon-a-snapshot/

14 Filloux, F. (2018). The Monday Note, 2018.1.14., https://mondaynote.com/facebook-is-done-with-quality-journalism-deal-with-it-afc2475f1f84

15 모듈3을 보라.

16 Is Facebook's Campbell a Force to Be Reckoned With? Or Is She Fake News? https://www.nytimes.com/2018/04/21/technology/facebook-campbell-brown-news.html

17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media-development/media-literacy/mil-as-composite-concept/ [2018.4.22. 접속]

18 Abu-Fadil, M. (2007). Media Literacy: A Tool to Combat Stereotypes and Promote Intellectual Understanding.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6/001611/161157e.pdf [2018.4.1. 접속]

19 미국 학교 총기 난사 사건 맥락에서 뉴스 미디어 리터러시의 가치를 아주 잘 보여주는 〈바이스 미디어〉의 동영상 사례가 있다. Hoaxers say victims of mass shootings are 'crisis actors', Vice Select on Facebook. https://www.facebook.com/vicenews/videos/842904982564160 [2018.4.1. 접속]

잘못된 메시지와 자료의 사례를 발견할 수도 있고, 뉴스 형태로 제시된 콘텐츠를 비롯해 메시지의 모든 부분을 대충 보는 것이 아닌 꼼꼼히 파헤치며 보는 데 익숙해질 수도 있다.

교사들은 또 참가자들이 정보를 찾을 때 피상적으로 '구글링' 하는 버릇을 고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고급 검색 기능을 활용해 좀 더 깊이 있는 검색을 하거나, 다양한 정보원을 크로스체크하고, 정보를 찾거나 평가하는 리터러시를 구축할 때 도서관과 사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20] 전자도서관에서는 저널리즘 학생과 저널리스트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대해 더 깊게 알 수 있게 해주는 학술 자료와 참고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사기성 뉴스 소동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막아내며, 저널리즘 활동의 일부로 그런 것의 정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지식 과정을 보충할 수 있다.[21]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받고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과의 시민적 교류 역시 저널리스트와 저널리즘 학생들이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찾아내고, 추적하며, 오류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교사들은 이번 모듈에서 이와 관련한 실습을 고려해볼 것을 권장한다.

노트르담대학(Notre Dame University) 수석 미디어 강사이자 연구자인 루바 엘 헬르(Rouba El Helou)의 말은 이 모듈의 적절성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양한 메시지 해독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은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작업에 미디어 교육자와 저널리스트 모두 참여하기 바란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람들이 뉴스 정보원에 대한 신뢰와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필연적 의심 사이의 균형을 찾도록 도와준다."

모듈 목표

이 모듈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저널리즘(과 다양한 저널리즘 변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리터러시[22]와 관련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 다양한 미디어에서 사기성 뉴스와 결점 있는 뉴스의 정체를 알아낸다.
- 참가자들이 여러 미디어 생태계에서 자신의 뉴스 소비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얼마나 쉽게 허위정보가 생산되는지 알 수 있는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
-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소비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건강한 회의주의적 태도를 키워 나가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타당한 맥락 안에서 보도, 게시물, 피드, 사진, 동영상, 오디오 콘텐츠, 인포그래픽, 통계의 진실성을 비교 검토하는 방법도 알게 한다.

학습 성과

이 모듈을 끝낸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1. 믿을 수 있는 저널리즘 안의 다양한 내러티브와 이야기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사실과 허구의 차이를 구분한다.

20 15 resources for teaching media literacy. ASCD https://inservice.ascd.org/15-resources-for-teaching-media-literacy/ [2018.4.3. 접속]

21 이타카대학 미디어 리터러시 계획인 프로젝트 룩 샤프(Project Look Sharp)를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리터러시 안내서, 커리큘럼 키트와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인쇄물이 있다. www.projectlooksharp.org. [2018.3.28. 접속]

22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관련 정보는 유네스코의 개념을 보라.' http://unesco.mil-for-teachers.unaoc.org/foreword/unifying-of-media-and-information-literach/ [2018.4.22. 접속]

2. 이야기를 어떻게 선택하며, 누가 콘텐츠를 생산하고, 현실을 제대로 재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이며, 언어는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것이 강조되며, 어떤 것이 생략되고, 누가 어떤 말을 하고, 그 사람은 얼마나 중요하고 믿을 만한지, 그가 주장하는 의제는 무엇인지, 그 뉴스는 어떤 충격을 주었으며/주거나/줄 것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뉴스를 어떻게 보고 소비하는지 이해한다.

3. 자신들의 MIL 수준을 깨닫고 이것이 개인으로서 그들의 정체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정보 및 소통 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된다.

모듈 형식

이 모듈은 90분 과정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 과정은 이론이며, 두 번째는 실습이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 그리고 전통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으로 확산되는 다양한 왜곡이 횡행하는 시대에 MIL이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에 따라 방법론이 달라진다. 이번 과정에 필요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연구와 실습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많이 있다.

유용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유네스코(http://en.unesco.org/)와 유네스코의 미디어 리터러시 사이트 (https://en.unesco.org/themes/media-literacy/)
- UN문명간연대 https://www.unaoc.org/
- 교사를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커리큘럼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resources/publications-and-communication-materials/publications/full-list/media-and-information-literacy-curriculum-for-teachers/
- MIL의 다섯 가지 법칙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media-development/media-literacy/five-laws-of-mil/
- 커먼 센스 에듀케이션(Common Sense Education) https://www.commonsense.org/education/top-picks/media-news-and-information-literacy-resources-for-students
- 유럽시청자권익위원회 시민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https://eavi.eu/beyond-fake-news-10-types-misleading-info/
-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 https://newslit.org/스토니브룩대학(Stony Brook University) 뉴스 리터러시 센터(Center for News Literacy) http://www.centerfornewsliteracy.org/
- 마인드 오버 미디어(Mind over Media) https://propaganda.mediaeducationlab.com/
- 디지털자료센터(The Digital Resources Center) (뉴스 리터러시 센터) http://drc.centerfornewsliteracy.org/

▷ 로드아일랜드대학(University of Rhode Island)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센터(The Center for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https://centermil.org/resources/

교사들은 다른 언어권에 있는 자신의 나라와 지역 자료를 추가하기 바란다.

교실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추어서 교사와 학생들이 미디어 사례 연구뿐 아니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관련 조직의 웹사이트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획과 학습 성과 연결하기

A. 이론

교사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자료와 사례를 제시하고 이것이 뉴스인 척하는 허위정보 및 잘못된 정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준다.

모듈 계획	시간	학습 성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틀을 비롯한 도구를 설명하고 토론한다.	45분	1+3
다양한 미디어 형태로 된 지역별 관련 사례를 선택한 뒤 조사하고 토론한다.	45분	1+2

B. 실습

학습 자료 및 도구와 관련된 활동

모듈 계획	시간	학습 성과
실습 활동	90분	1+3
활동1: 저널리즘 인식하기 지역신문 1면 기사를 확인한다. 각 학생은 서로 다른 세 개 미디어에 등장한 같은 기사를 찾고 조사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 기법을 적용하도록 독려하면서 토론을 이끈다. 그들은 또한 프레이밍, 뉴스 프로그램의 패키징 및 선택을 비롯해 저변에 깔려 있는 내러티브를 조목조목 설명해야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뉴스의 관행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한다(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같은 요소; 직접 인용 사용; 전문가와 권위 있는 취재원 의존; 기사를 떠받쳐주는 이미지, '저널리즘 용어'에 특화된 정형화된 용어, 그리고 다른 '뉴스다운' 신호).	45분	

활동2: 허위정보를 뉴스로 제시하기 참가자들에게 사기성 뉴스를 보여주고 어떤 것이 '통했으며' 어떤 것은 '가짜란 사실이 들통 났는지' 토론하라.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이전 실습 때 읽은 기사를 조작해서 사기 뉴스를 만들게 하라. 가까운 미래 시제로 설정해서 언뜻 보기에 뉴스처럼 보이도록 하라. (학생들이 스스로 토픽을 선택해 허위정보를 만들어도 된다.) 작업이 완성되면 학생들을 그룹으로 묶어 그 이야기가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요소가 무엇인지 평가하도록 하라. 평가 테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뉴스처럼 보이도록 하는 데 사용된 기호 표현을 구분하는 작업을 포함해야 한다. 다시 그룹을 구성한 뒤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얻은 통찰을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전체 그룹과 공유하도록 하라.	45분	1+3

과제 제안

각 참가자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피드에서 과학 뉴스나 의학 뉴스를 검색하도록 하라(예. 다이어트 열풍, 질병의 발발, 지구온난화가 그들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전기차 vs. 연료로 구동되는 자동차의 효율). 학생들은 자신의 조사와 확증편향(활발한 분야), 그리고 그 이슈를 다룬 기사/관점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평가한다. 이런 것이 뉴스의 핵심 윤리 원칙과 함께 검색, 평가, 디지털 보안, 권리와 정체성 같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이슈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본다.

그 후 참가자들은 조사를 통해 획득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누가 이야기를 만들었는가; 그 기자나 사람은 무엇이 출판됐는지 어떻게 알며, 그리고 그것을 배포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데이터, 통계, 인포그래픽을 다시 한 번 확인하라. 가능하다면 학생들은 다니는 대학의 도서관/전자도서관을 활용해 데이터를 검증하도록 하라. 확인한 콘텐츠의 강점, 약점, 생략된 것과 결점을 분석해서, 발견한 내용을 1,500자 분량의 미디어 비평으로 작성한다.

자료

슬라이드, 사진, 그리고 동영상을 담고 있는 자료를 아래에 제시했다. 교사들은 자신만의 슬라이드를 만들고, 자신의 나라와 맥락에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을 추가하기 바란다.

독서 자료

Abu-Fadil, M. & Grizzle, A. (2016). Opportunities for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https://www.unaoc.org/wp-content/uploads/Opportunities-For-Media-and-Information-Literacy-in-the-Middle-East-and-North-Africa-1.pdf [2020.4.30. 역자 접속]

A lexicon for the digital age. (2017). The Unesco Courier, (2017년 7-9월) https://en.unesco.org/courier [2020.4.30. 역자 접속]

Facione, P. (2010). Critical Thinking: What It Is and Why It Counts, [온라인] Insight Assessment. https://www.insightassessment.com/article/critical-thinking-what-it-is-and-why-it-counts [2018.1.5. 접속]

Gray, J., Bounegru, L & Venturini, T. (2017). What does fake news tell us about life in the digital age? Not what you might expect. NiemanLab [온라인] https://www.niemanlab.org/2017/04/what-does-fake-news-tell-us-about-life-in-the-digital-age-not-what-you-might-expect/ [2018.4.6. 접속]

Stephens, B. (2017). The Dying Art of Disagreement. The New York times. [온라인] https://www.nytimes.com/2017/09/24/opinion/dying-art-of-disagreement.html [2018.4.6. 접속]

추가로 읽을 자료

Lytvynenko, J. (2018). Here's How A Canadian Imam Got Caught Up In Fake News About Houston. BuzzFeed. [온라인]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janelytvynenko/toronto-imam-caught-up-in-fake-news [2018.4.6. 접속]

Mulrooney Elfred, S. (2017). In an era of fake news, students must act like journalists: schools rarely require news literacy, but it's more important than ever. Science News. https://www.sciencenews-forstudents.org/article/era-fake-news-students-must-act-journalists [2018.4.6. 접속]

Rusbridger, A., Neilsen, R. and Skjeshth, H. (2017). We asked people who lie. Here is what they said.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Oxford University.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risj-review/we-asked-people-all-over-world-how-journalists-should-cover-powerful-people-who-lie [2018.6.12. 접속]

Vesey-Byrne, J. (2017). Bikini designer exposes why you shouldn't trust everything you see on Instagram. The Independent. https://www.indy100.com/article/bikini-designer-instagram-before-after-karina-irby-7934006 [2018.4.6. 접속]

팩트체킹 101

알렉시오스 만찰리스

모듈 5

요약

정치인부터 마케팅 담당자, 옹호 단체에서부터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을 납득시키려 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실을 왜곡, 과장, 혹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번 모듈은 참가자들에게 사실 확인이 가능한 주장을 감지해내고, 증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윤리적 규범 및 기준도 함께 제시한다.

개요

미국 뉴욕주 상원의원과 인도 대사 및 UN 대사를 역임한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한(Daniel Patrick Moynihan, 1927~2003)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누구나 자기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자기만의 사실을 가질 수는 없다."[1]

'팩트체킹(fact-checking)'이란 용어는 저널리즘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전통적으로 팩트체커는 뉴스룸에서 교정을 보고, 기자들이 기사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검증하는 업무를 한다. 팩트체킹이라는 일은 기사가 얼마나 탄탄하게 구성됐는지 평가하며, 사실과 숫자를 재확인하고, 뉴스 조직이 콘텐츠를 발행하기 전 전체적인 품질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 저널리즘에서 이런 관행이 처음 등장한 것은–최소한 서구에서는–1920년대 〈타임(TIME)〉 같은 미국 주간지로 거슬러 올라간다.[2]

21세기 들어 전 세계 대부분의 뉴스 조직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3] 팩트체킹 부서가 축소되고 편집 데스크에 통합되거나,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현재 여전히 편집국에 팩트체커를 고용하고 있는 곳은 주로 미국의 〈뉴요커(The New Yorker)〉나 독일 〈슈피겔(Der Spiegel)〉 같은 고급 교양 주간지이다.[4]

이번 모듈에서는 기사 발행 전에 시행하는 팩트체킹이 아니라, 어떤 주장이 공적으로 관심을 끌고 난 이후 진행되는 팩트체킹 유형을 다룬다. '사후' 팩트체킹의 목적은 정치인을 비롯한 공인들이 스스로 한 말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팩트체킹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중에게 공표된 주장을 확인하거나 부정해줄 수 있는 중요하고 평판이 좋은 정보원을 찾는다.

'사후' 팩트체킹은 주로 정치 광고, 선거연설, 정당 성명서 등에 초점을 맞춘다(이런 종류만 대상은 아니다).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초기 팩트체킹 프로젝트로는 2003년 출범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 애넨버그 공공정책센터(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의 팩트체크(Factcheck.org)와 2005년 출범한 채널4 팩트체크(Channel 4 Fact Check)가 있다.

팩트체킹은 최근 10년 사이에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에 널리 퍼졌다.

이러한 저널리즘 관행이 성장하는 데는 특히 두 번의 중요한 순간이 있었다. 첫 번째 물결은 플로리다에 있는 〈세인트피터스버그 타임스(St Petersburg Times)〉(지금은 〈탬파베이 타임스(Tampa Bay Times)〉)가 2008년 무렵 시작한 팩트체킹 프로젝트 〈폴리티팩트(PolitiFact)〉가 2009년 퓰리처상 국내 보도부문 상을 수상하면서 시작됐다. 〈폴리티팩트〉는 '진실검증기(Truth-O-Meter)'를 이용해 각종 주장에 등급을 매기는 혁신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1 Moynihan, D. & Weisman, S. (2010). Daniel Patrick Moynihan, New York: PublicAffairs.

2 Scriber, B. (2016). Who decides what's true in politics? A history of the rise of political fact-checking. [온라인]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6/who-decides-whats-true-in-politics-a-history-of-the-rise-of-political-fact-checking/ [2018.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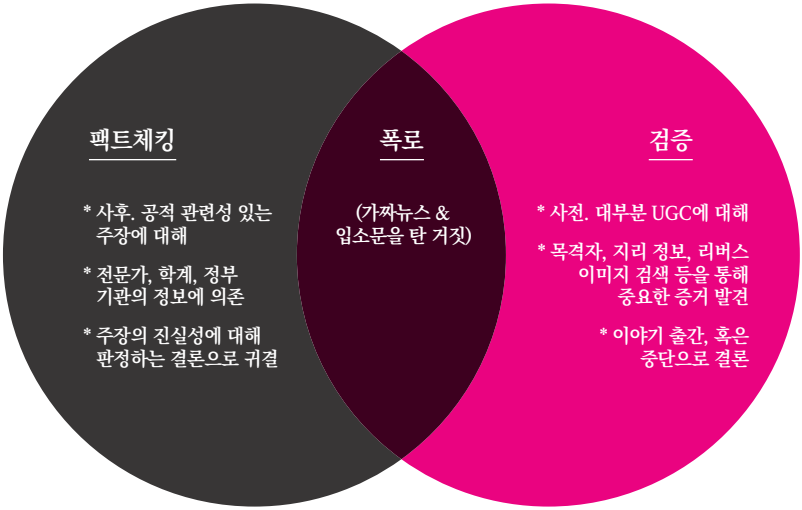
3 모듈3을 보라.

4 Bloyd-Peshkin, S. & Sivek, S. (2017). Magazines find there's little time to fact-check online. [온라인] Columbia Journalism Review, https://www.cjr.org/b-roll/magazine-fact-checking-online.php [2018.3.28. 접속]

팩트체크에 다양한 구조를 더하고, 명확성을 높였다. (비평가들을 위해 등급은 평가 과정에 주관성을 도입했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수용자에게 정치적 팩트체크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공인들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저널리즘 도구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수행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 세계에서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등장하게 됐다.[5]

이른바 '가짜뉴스'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등장하면서 팩트체킹 프로젝트의 두 번째 물결이 일어났다. 지금은 마음대로 사용되고, 오용되기도 하는 가짜뉴스란 용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을 이용해 무수히 많은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완전히 조작된 선정적인 뉴스를 의미한다. 2016년에 이르러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 정보 인프라에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면서 점점 더 많은 단체가 팩트체킹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 물결은 입소문을 탄 거짓을 폭로하는 만큼이나 때로는 공적인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는 데 집중하기도 했다. 폭로(debunking)는 팩트체크의 하위 분야로 검증 때와 같은 특정 기법이 필요하다(특히 UGC로 알려진 이용자 제작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아래 벤다이어그램을 보라). 이 모듈에서는 아래에 설명된 팩트체킹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다음 모듈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와 정보원에 대한 검증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6]



[그림5] 팩트체킹과 검증의 차이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 Poynter.

5 Mantzarlis, A. (2017). In its first decade, PolitiFact helped define political fact-checking far beyond Washington, D. C. [온라인] Poynter.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7/in-its-first-decade-politifact-helped-define-political-fact-checking-far-beyond-washington-d-c/ [2018.3.28. 접속]

6 모듈6을 보라.

세계 각국의 팩트체킹 조직 사례

듀크대학의 언론인연구실(Duke Reporters' Lab)에 따르면 2017년 12월 현재 전 세계 51개국에서 137개 팩트체킹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7]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팩트체킹 시장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매우 신중하며 혁신적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교사들은 아프리카체크(Africa Check, 남아프리카, 세네갈, 나이지리아, 케냐), 체케아도(Chequeado, 아르헨티나), 르데코되르(Les Decodeurs, 프랑스), 팩티스크(Faktisk, 노르웨이), 그리고 풀팩트(Full Fact, 영국) 같은 프로젝트들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정 나라나 지역에 집중하려는 교사에게는 아래 자료가 유용할 것이다.

- **브라질:** 케이트 스타이커-긴즈버그(Kate Steiker-Ginzberg)가 포인터(Poynter)에 게재한 "브라질의 팩트체킹 붐(Fact-Checking booms in Brazil)".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7/fact-checking-booms-in-brazil/
- **유럽:** 루카스 그레이브스(Lucas Graves)와 페데리카 케루비니(Federica Cherubini)가 옥스퍼드대학 로이터연구소를 위해 쓴 보고서 《유럽에서 팩트체킹 사이트의 등장(The Rise of Fact-Checking Sites in Europe)》. http://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our-research/rise-fact-checking-sites-europe#overlay-context=
- **일본:** 카지모토 마사토(Masato Kajimoto)가 포인터에 기고한 글 "새로운 팩트체킹 협업이 일본에서 시작되고 있다(A new fact-checking coalition is launching in Japan)".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7/a-new-fact-checking-coalition-is-launching-in-japan-update/
- **한국:** 임보영이 포인터에 기고한 글 "한국 팩트체킹 붐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나? 긴장된 정치적 상황과 탐사보도의 쇠퇴(What's behind South Korea's fact-checking boom? Tense politics and the decline of investigative journalism)".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7/whats-behind-south-koreas-fact-checking-boom-tense-politics-and-the-decline-of-investigative-journalism/
- **라틴 아메리카:** 이반 에히트(Ivan Echt)가 포인터에 기고한 글 "정보 접근성 부족이 라틴 아메리카의 팩트체킹 붐을 견인했다(Lack of access to information is driving Latin America's fact-checking boom)".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6/lack-of-access-to-information-is-driving-latin-americas-fact-checking-boom/
- **미국:** 루카스 그레이브스가 쓴 책 《무엇이 진실인지 결정하기: 미국 저널리즘에서 정치적 팩트체킹의 등장(Deciding What's True: The Rise of Political Fact-Checking in American Journalism)》. 혹은 브래드 스크라이버(Brad Scriber)가 포인터에 기고한 서평.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6/who-decides-whats-true-in-politics-a-history-of-the-rise-of-political-fact-checking/

팩트체킹 방법론과 윤리

7 Stencel, M. (2017). Fact-checking booms as numbers grow by 20 percent. Duke Reporters Lab.https://reporterslab.org/fact-checking-booms-as-numbers-grow-by-20-percent/ [2018.3.28. 접속]

팩트체킹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됐지?"라는 한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꼼꼼한 분석 작업이다. 또한 팩트체킹은 철자 확인 작업이 아니다.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사전 형식의 안내 책자는 없다. 마찬가지로 문서를 검사하고, 사실인 것처럼 잘못 진술된 부분에 언제든지 표시를 해주는 간단한 소프트웨어도 없다.

팩트체킹은 보통 세 단계로 구성된다.

1. **팩트체킹할 만한 주장 찾기:** 법률 기록, 미디어 기관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철저히 조사해서 찾아낸다. 이 단계에서 주요 공적 주장에 대해 (a)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지, (b)팩트체크를 해야만 하는지 결정하게 된다.
2. **팩트 찾기:** 해당 주장과 관련해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를 물색한다.
3. **기록 수정하기:** 증거를 토대로 주장을 평가한다. 이때는 주로 진실성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신뢰할 수 있는 팩트체킹 조직은 팩트체킹 과정을 공개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아래 단계 중 한 개 이상을 차근차근 보여주기 바란다.

1. 아프리카체크의 '우리가 작업하는 법(How We Work)' 페이지(https://africacheck.org/about-us/how-we-work) 및 자료(Materials) 섹션의 인포그래픽
2. 체케아도의 '미투두(Metodo, 스페인어 자료. http://chequeado.com/metodo/)'
3. 파겔라 폴리티카(Pagella Politica)의 '메소돌로지아(Metodologia)'와 '컴 푸지오니아모(Come funzioniamo), (이탈리아어 자료. https://pagellapolitica.it/progetto/index)'
4. 〈폴리티팩트〉의 '폴리티팩트의 원칙(The Principles of PolitiFact)' (http://www.politifact.com/truth-o-meter/article/2013/nov/01/principles-politifact-punditfact-and-truth-o-meter/)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8]는 또 성실한 팩트체커들이 일상 업무에서 지침으로 삼을 만한 원칙 강령을 개발했다.

팩트체킹 조직은 IFCN의 공식 기관이 되기 위해 인증을 신청한다. 공식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강령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지 외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사들은 이런 강령에 대해 알고 또 자기 나라의 팩트체킹 조직이 받은 평가를 보고 싶을 것이다.[9] 그리고 이 결과를 보고 학생들과 팩트체커를 더 신뢰하는지 아닌지 토론할 수 있다.

이 원칙은 독자들이 좋은 팩트체킹과 그렇지 않은 팩트체킹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개발됐다. 팩트체킹을 가장한 허위정보 사례는 아래의 두 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8 저자인 알렉시오스 만찰리스가 IFCN을 이끌고 있다.

9 https://www.poynter.org/international-fact-checking-network-fact-checkers-code-principles [2018.3.28. 접속]

- 터키에서 검열과 종족 학살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는 가짜 팩트체커들(These fake fact-checkers are peddling lies about genocide and censorship in Turkey , 포인터).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7/these-fake-fact-checkers-are-peddling-lies-about-genocide-and-censorship-in-turkey/

- 포스트-트루스 시대 스웨덴의 극우 팩트체커들(In the post-truth era Sweden's far-right fake fact checker was inevitable, 가디언).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7/jan/19/in-the-post-truth-era-swedens-far-right-fake-fact-checker-was-inevitable

사실에 방해가 되는 것

팩트체킹의 실용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전에 학생들은 팩트체킹의 한계를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비평가는 '포스트-트루스' 혹은 '포스트 팩트(post-fact)' 시대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용어는 2016년에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리고 각각 옥스퍼드 영어사전과 독일언어진흥원(Society for the German Language)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다. '포스트트루스주의자'는 정치와 미디어가 워낙 양극화되고 부족화(tribal)되어 있어서 시민들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어떤 사실이건 강경하게 배척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최근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기관을 참고해 사실을 바로잡을 경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훨씬 더 좋은 지식을 갖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학생들과 아래의 연구를 함께 읽고 토론해보기 바란다.

- Swire, B., Berinsky, A. J., Lewandowsky, S. & Ecker, U. K. H. (2017). 잘못된 정치 정보 처리하기: 트럼프 현상의 이해(Processing political misinformation: comprehending the Trump phenomenon) (2017.3.1.): https://royalsocietypublishing.org/doi/full/10.1098/rsos.160802 [2018.3.28. 접속]

- Nyhan, B. & Zeitzoff, T. (2018). 과거와 싸우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에 있어서 통제에 대한 인식, 역사적 오인과 정정된 정보(Fighting the Past: Perceptions of Control, Historical Misperceptions, and Corrective Information in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pops.12449 [2018.3.28. 접속]

- Wood, T. & Porter, E. (2016). 이해하기 힘든 역화 효과: 대중 사고방식의 사실에 대한 변함없는 집착(The Elusive Backfire Effect: Mass Attitudes' Steadfast Factual Adherence) (2016.8.5.)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819073 [2018.3.28. 접속]

사실이란 세상의 완벽한 특성이며, 사람은 예전의 믿음이나 개인적 성향에 관계없이 새로운 사실을 흠결 없이 통합하는 완벽하게 이성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을 만큼 단순한 처사다. 우리 각자는 인지 편향과 기타 편향성-특히 정신적 장애물-을 갖고 있어서 새로운 실제의 정보를 흡수하는 데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이런 편향성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확증편향 [브리태니커백과사전-https://www.britannica.com/topic/confirmation-bias(2018.3.28. 접속)]:

자신의 기존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만 찾거나 해석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경향. 의사결정을 하는 이러한 편향된 접근법은 대부분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지며 기존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잦다. 기존 믿음에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기대나 특정 결과 예측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사람들은 특히 어떤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거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스스로의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 [디스커버 매거진(Discover Magazine)-http:/blogs.discovermagazine.com/intersection/2011/05/05/what-is-motivated-reasoning-how-does-it-work-dan-kahan-answers/#.WfHrl4Zrzbl(2018.3.28. 접속)]: 동기화된 추론이란 개인이 정보를 처리할 때 어떤 목적이나 목표에 부합하는 결론에 맞추는 무의식적인 경향을 뜻하는 말이다. 고전적인 사례를 한번 생각해보자. 1950년대에 심리학자들은 실험 대상자로 참여한 아이비리그 대학 두 곳의 학생들에게 두 학교의 풋볼팀이 대결한 경기에서 논란이 될 만한 심판 판정이 나온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다. 각 학교 학생들은 심판 판정이 라이벌 학교보다 자기 학교에 유리했을 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자들은 각자의 학교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지닌 정서적 이해관계(emotional stake)가 영상에서 본 내용을 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가용성 발견법(Availability heuristic) [옥스퍼드대학출판 심리학사전(Oxford University Press A Dictionary of Psychology)-http://www.oxfordreference.com/view/10.1093/acref/9780199534067.001.001/acref-9780199534067-e-830(2018.3.28. 접속)]: 어떤 사건이 마음속에 바로 떠오르는 횟수에 따라 그 사건의 빈도나 개연성을 판단하는 인지적 발견법. 이 경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쉽게 떠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주장을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밴더빌트대학(Vanderbilt University) 리사 파지오(Lisa Fazio)가 실시한 실험에서 '사리[10]는 킬트[11]다'라는 주장을 여섯 번 반복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은 한 차례만 반복한 사람보다 더 쉽게 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저널리즘이 거짓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면 거짓도 진실이라고 믿게끔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디어가 버락 오바마의 출생지를 둘러싼 음모론을 보도함으로써 그가 실제로 하와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팩트체킹 자체는 불완전한 도구라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어떤 보도는 100%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맥락을 빼먹을 수도 있다.[12] 사실이란 동일한 기본 사실에 다양한 의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좀 더 광의의 내러티브 구조 안에서 일정하게 구성되며, 의미있게 배열되고 재배열된다. 게다가 진실은 단순히 사실을 모아놓은 것 이상이다. 팩트체킹은 대안적 해석을 묵살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라기보다는, 이성적 토론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내러티브와 개인적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련의 사실에 대해 보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듈 목표

-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떠오른 팩트체킹의 우수 실천 사례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한다.
-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인지적 편향에 대해 경각심을 높인다.
- 비판적 분석 기법을 향상시킨다.

10 [역주] 사리: 인도 여성의 겉옷.

11 [역주] 킬트: 스코틀랜드 전통의상으로 남성들이 입는 체크무늬 스커트.

12 다음 사례를 참고하라. Yanofsky, D. (2013). The chart Tim Cook doesn't want you to see. https://qz.com/122921/the-chart-tim-cook-doesnt-want-you-to-see/ [2018.3.28. 접속]

학습 성과

1. (팩트체킹) 실천에 관한 윤리 및 방법론뿐 아니라 주목할 만한 저널리즘 형식으로서 팩트체킹의 출현에 대한 이해.
2. 증거의 질에 대해 평가할 때 물어야 할 질문에 대한 이해.
3. 팩트체킹이 가능한 주장과 의견 또는 과장된 표현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향상.
4.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인지적 편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규정.

모듈 형식

이 과의 이론 부분에서는 다음 사항을 살펴본다.

1. 역사와 의미론
2. 방법론과 윤리
3. 사실을 방해하는 것

실습 부분은 두 가지 활동으로 나뉜다.

1. 팩트체크할 수 있는 주장 찾기
2. 사실 찾기

과제는 기록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계획과 학습 성과 연결하기

A. 이론

모듈 계획	시간	학습 성과
1. 역사와 의미론	20분	1
2. 방법론과 윤리	20분	1
3. 사실을 방해하는 것	20분	4

B. 실습

모듈 계획	시간	학습 성과
활동1: 팩트체크할 수 있는 주장 찾기	30분	3
활동2: 사실 찾기	1시간	2

i) 팩트체크할 수 있는 주장 찾기

팩트체킹은 진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이나 숫자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 포함되어 있는 주장에 집중한다. 팩트체킹은 의견과 예측, 과장, 풍자와 농담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다.

활동1: 학생들에게 아래에 제시된 공인 네 명의 연설 발췌문을 읽고 팩트체크할 수 있는 사실적 진술문에 녹색을 칠하게 하라. 그리고 검증할 수 없는 의견에는 빨간색, 둘의 중간 지점에 있는 진술에는 오렌지색을 칠하게 하라. 학생들이 주석을 단 발췌문을 제출한 뒤에는, 그들 사이를 다니면서 무엇이 '사실 확인이 가능한' 주장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토론하라.

[가이드]

빨간색-사실 확인할 수 없는 진술

오렌지색-둘의 중간에 있는 진술

녹색-사실 확인할 수 있는 진술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전 칠레 대통령

이 방면에서 괄목할 진보를 이뤄내기는 했지만, 우리는 해양 생태계의 다른 위협에도 대처해야 한다. 바로 플라스틱이다. 매년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진다. 이것들은 수백 년 동안 바다에 남아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UN환경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의 깨끗한 바다 만들기(Clean Sea) 캠페인에 참여한다. 한편, 칠레에서는 12개월 내에 해안 지역 도시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 법은 시민들이 해양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런 법을 시행하는 첫 국가가 될 것이며, 또한 다른 나라들도 같은 책임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한다. 게다가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된 지 30년이 됐다. 덕분에 오존층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30주년을 맞아 나는 우리나라가 지구의 기온 상승을 0.5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몬트리올 의정서 2016 키갈리 수정안을 비준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자 한다. 이로써 칠레는 새로운 합의를 비준한 첫 번째 나라 중 하나가 됐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파타고니아에 공원 네트워크를 조성하면서,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는 450만 헥타르의 녹색지대를 추가했다. 이곳은 이제 공공의 이용을 위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제이콥 주마(Jacob Zuma),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현재 글로벌 경제 체제는 지구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소수가 글로벌화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는 반면,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여전히 절망적인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삶의 조건이 향상될 것이란 희망조차 없다. 심지어 선진국 내에서도 빈부 격차는 여전히 벌어진 채로 남아 있으며, 심각한 걱정거리가 됐다. 어젠다 2030(Agenda 2030)이라는 큰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고 있는 세계 경제의 이러한 구조 때문에 생겨난 도전과 장애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약속이 필요하다.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경제적 권력 관계는 아프리카에서 첨예하게 드러났다. 예를 들어, 우리 대륙에는 많은 광산 자원이 있지만, 여전히 최빈국이 가장 많다.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 전 독일 외무장관

우리는 UN이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수치만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다.

세계식량프로그램(World Food Program)은 오늘날 세계 기아 위기와의 전쟁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50%도 못 받고 있다. 세계개발프로그램(World Development Program)은 자발적인 기부가 15%에 불과하다. 2011년에는 그래도 50%였다. UN의 다른 원조 프로그램들도 사정이 더 나아 보이지는 않는다.

UN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효과적인 지원을 조직하기보다 필요한 자금을 찾기 위해 구걸하는 편지를 배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할 수는 없다. 이제는 경로를 바꿔야만 한다. 우리는 UN에 더 많은 자유와 함께 적절한 수준의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 대가로 자금 사용 방식은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어쨌든, 독일은 UN을 위해 금융 지원을 유지하려고 한다.

네 번째로 큰 규모의 기부 제공국으로서, 그리고 세계 최대 인도주의적 지원국 중 하나로서 우리는 실질적인 기부를 계속 하기를 원한다.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CEO

페이스북은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회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서로를 연결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페이스북이 성장함에 따라 모든 곳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연결되고, 자신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체와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새 도구를 갖게 됐다. 우리는 최근에야 미투(#metoo) 운동과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이 아주 부분적으로나마 페이스북에 조직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허리케인 하비(Harvey) 이후에 사람들은 구조 자금으로 2,0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그리고 7,0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해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ii) 사실 찾기

활동2: 학급을 여러 모둠으로 나눠라. 각 모둠은 위에서 제시한 사례 중 한 개의 '녹색' 주장을 골라서 팩트체크를 하라(혹은 여러분 자신의 목록에서 골라라).

모둠에게 발견한 것을 뒷받침하거나 배격하는 증거를 찾도록 요청하라.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모둠이 찾아낸 정보원을 아래 척도에 따라 평가하도록 독려하라.

근접성: 그 증거는 사건과 얼마나 가까운가? 예. 최근의 실업률 통계를 보도한 한 언론사는 일반적으로 실제로 실업률을 측정한 국가 통계기구에 비해서 데이터에 대한 근접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가치도 덜하다.

전문성: 증거를 생산한 사람의 우수성을 보여줄 증명서는 무엇이 있는가? 예. 어떤 책의 저자가 해당 주제 관련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그 분야에서 굉장히 자주 인용된다.

엄격성: 증거는 어떻게 수집됐는가? 예.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데이터는 서베이를 통해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13] 이런 점 때문에 일반화를 할 근거가 희박하며, 국가 간 비교도 어렵다. 나라에 따라 여성들이 응답하려는 의향이나 성적 학대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낮춰주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옹호해준다.

투명성: 증거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있는가? 예. 어떤 과학 연구는 결론의 바탕이 된 모든 데이터를 온라인에 공개해서 다른 연구자들이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13 UN 젠더 통계의 (48)을 보라. https://genderstats.un.org/#/downloads

신뢰성: 평가할 수 있는 실적이 있는가? 예.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년 이상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출판해 왔다. 전문가들이 그 한계를 알아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다.[14]

이해충돌: 증거에 정보원의 개인적, 혹은 사적인 이해가 작용됐는가? 예. 파스타의 건강상의 이점에 관한 연구에 주요 파스타 제조업체가 자금도 지원하고 연구 일부를 수행했다.[15]

교사는 아래 표를 출력해서 학생들이 각 정보원을 평가할 때 이용하도록 하라.

	약함	중간	강함
근접성			
전문성			
엄격성			
투명성			
신뢰성			
이해충돌			

과제 제안

기록 바로잡기

참가자들은 강의 시간에 평가한 증거를 이용해, 선택한 진술문의 상대적 진실성에 대해 결론을 내린 팩트체크 보고서를 작성(약 5,000자 분량)해야 한다.

팩트체크할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 평점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폴리티팩트〉는 아래와 같은 평점을 배포했다.

진실(True)-진술이 정확하며, 심각하게 빠뜨린 정보도 없다.

거의 진실(Mostly True)-진술은 정확하다. 하지만 설명과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반쯤 진실(Half True)-진술이 부분적으로는 정확하다. 하지만 중요한 세부 내용이 생략됐거나, 맥락에서 벗어났다.

거의 거짓(Mostly False)-진술이 진실 요소를 일부 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무시했다.

거짓(False)-진술이 정확하지 않다.

14 Hough, D. (2016). Here's this year's (flawed) Corruption Perception Index. Those flaws are useful.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monkey-cage/wp/2016/01/27/how-do-you-measure-corruption-transparency-international-does-its-best-and-thats-useful/ [2018.3.23. 접속]

15 여기 진짜 사례가 있다. http://www.healthnewsreview.org/2016/07/study-really-find-pasta-opposite-fattening/ [2018.3.23. 접속]

새빨간 거짓말(Pants on Fire)-진술이 정확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폴리티팩트〉의 평가 척도는 '진실'부터 '새빨간 거짓말'까지 서서히 나빠지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평가 척도가 이처럼 반드시 선형적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엘 사부에소(El Sabueso)〉[16]는 어떤 증거도 없는 주장에 대해 사용하는 '증명할 수 없음'이란 척도를, 선택한 방법론에 따라 다양해지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음' 같은 척도를 포함시켰다. 학생들이 진술문에 대한 평가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창의적인 척도를 만들도록 격려하라. 교사들은 (수업) 시간과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학생들에게 텍스트뿐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팩트체크를 하라고 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밈, 짧은 동영상, GIF, 스냅챗 같은 방식이다. 이 모두가 거짓과 싸우는 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팩트체크라도 익살스러운 동영상을 사용하면 텍스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7]

창의적인 사례를 보려면 포인터에 실린 다음 글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

Mantzarlis, A. (2016). 스냅챗, GIF, 그리고 기타 밀레니얼이 ♥하는 도구를 이용한 팩트체커의 실험(Fact-checkers experiment with Snapchat, GIFs and other stuff millennials ♥)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6/fact-checkers-experiment-with-snapchat-gifs-and-other-stuff-millennials-%E2%99%A5/ [2018.3.28. 접속]

Mantzarlis, A. (2016). 팩트체크를 GIF로 만드는 방법과 이유[How (and why) to turn a fact check into a GIF].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6/how-and-why-to-turn -a-fact-check-into-a-gif/ [2018.3.28. 접속]

독서 자료

포인터는 독서 자료 목록과 함께 팩트체킹 섹션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다. https://www.poynter.com/channels/fact-checking 이 섹션은 매주 몇 차례씩 업데이트 된다. 아래는 이 섹션에서 가져온 유용한 최신 자료이다.

Poynter (2018). How to fact-check a politician's claim in 10 steps. https://factcheckingday.com/articles/5/how-to-fact-check-a-politicians-claim-in-10-steps [2018.4.6. 접속]

Van Ess, H. (2017). The ultimate guide to bust fake tweeters: A video toolkit in 10 steps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7/the-ultimate-guide-to-bust-fake-tweeters-a-video-toolkit-in-10-steps/ [2018.4.6. 접속]

Mantzarlis, A. (2015). 5 things to keep in mind when fact-checking claim about science.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5/5-things-to-keep-in-mind-when-fact-checking-claims-about-science/ [2018.4.6. 접속]

Mantzarlis, A. (2016). 5 tips for fact-checking claims about health.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6/5-tips-for-fact-checking-claims-about-health/ [2018.4.6. 접속]

16 AnimalPolitico (2015). http://www.animalpolitico.com/blogueros-blog-invitado/2015/01/28/el-dabueso-un-proyecto-para-vigilar-el-discurso-publico/ [2018.4.6. 접속]

17 Young, D., Jamieson, K., Poulsen, S. and Goldring, A. (2017). Fact-Checking Effectiveness as a Function of Format and Tone: Evaluating FactCheck.org and FlackCheck.org.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5(1), pp.49-75

Mantzarlis, A. (2015). 5 tips for fact-checking datasets.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5/5-tips-for-fact-checking-datasets/ [2018.4.6. 접속]

Mantzarlis, A. (2015). 5 studies about fact-checking you may have missed last month.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7/5-studies-about-fact-checking-you-may-have-missed-last-month/ [2018.4.6. 접속]

Mantzarlis, A. (2017). Repetition boosts lies – but it could help fact-checkers too.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7/repetition-boosts-lies-but-could-help-fact-checkers-too/ [2018.4.6. 접속]

Mantzarlis, A. (2017). French and American voters seem to respond to fact-checking in a similar way.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7/french-and-american-voters-seem-to-respond-in-a-similar-way-to-fact-checking/ [2018.4.6. 접속]

Funke, D. (2017). Where there's a rumour, there's an audience. This study sheds light on why some take off.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7/where-theres-a-rumor-theres-an-audience-this-study-sheds-light-on-why-some-take-off/ [2018.4.6. 접속]

Funke, D. (2017). Want to be a better online sleuth? Learn to read webpages like a fact-checker.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7/want-to-be-a-better-online-sleuth-learn-to-read-webpages-like-a-fact-checker/ [2018.4.6. 접속]

Funke, D. (2017). These two studies found that correcting misperception works. But it's not magic.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7/these-two-studies-found-that-correcting-misperceptions-works-but-it%C2%92s-not-magic/ [2018.4.6. 접속]

Mantzarlis, A. (2017). What does the "Death of Expertise" mean for fact-checkers?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7/what-does-the-death-of-expertise-mean-for-fact-checkers/ [2018.4.6. 접속]

Mantzarlis, A. (2017). Journalism can't afford for corrections to be the next victim of the fake news frenzy.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7/journalism-cant-afford-for-corrections-to-be-next-victim-of-fake-news-frenzy/ [2018.4.6. 접속]

Mantzarlis, A. (2016). Should journalists outsource fact-checking to academic?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16/should-journalists-outsource-fact-checking-to-academics/ [2018.4.6. 접속]

단행본

Ball, J. (2017) Post-Truth: How Bullshit Conquered the World; 김재경 옮김(2018). 《포스트-트루스: 가짜뉴스와 탈진실의 시대》, 두리반.

Gladstone, B. (2017). The Trouble with Reality: a Rumination on Moral Panic in Our Time. New York: Workman Pu.

Graves, L. (2016). Deciding What's True: the Rise of Political Fact-Checking Movement in American Jour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온라인 자료

국제팩트체킹데이(International Fact-Checking Day)18 롤-플레잉 카드게임 교육 계획(14~16세 학생용)을 다음 링크에서 구할 수 있다:http://factcheckingday.com/lesson-plan. 이 웹사이트에는 팁 시트, 대학생용 온라인 과정 링크, 그리고 사실과 팩트체킹 관련 독서 목록 등이 있다.

18 [편집자 주] 국제팩트체킹데이: 만우절 다음날인 4월 2일로, 2017년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의 주도로 처음 시작. 가짜뉴스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참여로 꾸며진다.

소셜 미디어 검증: 정보원과 시각 콘텐츠 평가하기

톰 트레위나드와 퍼거스 벨

모듈 6

이 모듈은 참가자들이 온라인에 있는 디지털 정보의 원 정보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설계됐다. 여기에서는 정보원, 사진과 영상, 특히 소셜 네트워크에서 공유되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이 모듈을 마친 참가자들은 속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는 거짓되고 사실을 오도하는 콘텐츠의 다른 유형에 대해 잘 알게 될 것이다.[1] 신뢰할 만한 뉴스 조직들도 주기적으로 이런 콘텐츠를 게재해서 조직의 평판이 떨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저널리스트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런 콘텐츠를 부주의하게 재배포하거나 확대 재생산한다. 때때로 이들은 공적 토론[2]에 영향을 미치고 기자의 신뢰성을 지렛대 삼아 믿을 만한 정보원 역할을 하려는 악의적인 사람들의 타깃이 된다.[3]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콘텐츠의 검증을 위한 기본적인 탐사 기법과 전략을 실습하기 전에 실제 세계의 시나리오와 사례를 이용해 성향을 테스트하게 된다.

-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를 저널리즘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윤리 원칙에 의거해 원 정보원을 확인하고 신뢰성을 평가한다.[4]
- 가짜 계정이나 봇을 찾아낸 뒤 배제한다.[5][6]
- 시각 콘텐츠를 확인한 뒤 원 정보원을 올바르게 표시해준다.
- 콘텐츠의 녹음과 업로드 시간을 검증한다.
- 사진과 동영상의 지리적 위치를 추적한다.

저널리스트가 최초 콘텐츠를 가려내고 검증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윤리적·법률적 필요조건을 준수하면서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를 발행하도록 허락 받을 수 있다.

개요

빌 코바치(Bill Kovach)와 톰 로젠스틸(Tom Rosenstiel)은《저널리즘의 기본원칙(The Elements of Journalism)》에서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7] "결국 검증 원칙은 저널리즘을 엔터테인먼트, 선전선동, 소설, 혹은 예술과 구분해준다. 저널리즘만이 철저하게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정신에 따라 이번 모듈에서는 요즘 시대의 '검증 원칙'을 탐구한다.

소셜 미디어는 저널리즘 관행을 변화시켰다. 실시간 수용자 참여를 통해 콘텐츠를 크라우드소싱하는 관행이

1 Alejandro, J. (2010). Journalism In The Age Of Social Media. Reuters Institute Fellowship.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our-research/journalism-age-social-media [2018.4.22. 접속]

2 Paulussen, S. & Harder, R. (2014). Social Media References in Newspapers. Journalism Practice, 8(5), pp.542-551.

3 모듈7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토론하고 다룬다.

4 온라인뉴스협회(Online News Association)의 UGC 윤리 가이드를 참고하라. https://ethics.journalists.org/topics/user-generated-content [2018.4.18. 접속]

5 Woolley, S. C. & Howard, P. N. (2017). Computational Propaganda Worldwide: Executicve Summary. Samuel Wolley and Phillip N. Howard, Eds. Working Paper, 2017.11. Oxford, UK: Project on Computational Propaganda. comprop.oii.ox.ac.uk. https://comprop.oii.ox.ac.uk/wp-content/uploads/sites/89/2017/06/Casestudies-ExecutiveSummary.pdf [2018.4.22. 접속]

6 Joseph, R. (2018). Guide: How to verify a Twitter account. Africa Check. https://africacheck.org/factsheets/guide-verify-twitter-account/ [2018.4.6. 접속]

7 Kovach, B., & Rosentiel, T. (2014).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New York: Crown Publishers.

새롭게 등장했다. 심지어 검증 같은 보도 작업을 수용자에게 아웃소싱하기도 한다.[8] 엄정한 검증(discipline of verification)[9]이라는 저널리즘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콘텐츠와 정보원을 검증하는 기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 온라인 행동, 그리고 뉴스 수집 관행을 반영해서 계속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랍의 봄 기간 동안 '공개 검증(open verification)'-공중이 협업을 통해 실시간 검증하는 과정-개념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공공 포럼에서 각 단계마다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에 잘못된 정보가 급속히 입소문으로 확산될 위험 때문에 논란에 휘말렸다(즉 기자가 검증 과정을 크라우드소싱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10]

오늘날 목격담과 시각 콘텐츠는 저널리스트나 언론사가 큰 충격을 안겨주는 기사를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주목할 만한 도구다. 속보 보도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정보를 빠르게 검증하는 속도가 중요한 요소가 됐다.[11]

저널리스트는 중요한 정보원과 정보, 이미지를 얻기 위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훑어나갈 줄 알아야 한다. 소셜 플랫폼에 올라오는 시각 콘텐츠(사진, 동영상 그리고 GIF)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세 가지 요인 때문이다.

-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과 피처폰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 확산.[12]
- 저렴한(일부 지역에서는 무료) 모바일 데이터 접속 증가.
- 누구나 콘텐츠를 발행하고 수용자를 구축할 수 있는 전 세계적 규모의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메시징 플랫폼의 등장.

많은 속보 사건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기사, 사진, 혹은 동영상은 스마트폰을 든 목격자, 참가자, 혹은 행인들이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콘텐츠를 검증하는 기법은 뉴스룸의 자원, 규범, 기준, 그리고 저널리스트 자신의 관행에 따라 달라진다. 이 모듈에서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실행 방법과 온라인 도구 및 자료를 소개한다. 하지만 기술과 마찬가지로 도구 역시 빠르게 발전한다.[13]

어떤 검증이든 코바치와 로젠스틸(2014)[14]이 제시한 몇 가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 의심을 갖고 편집하라.
- 정확성 체크리스트를 유지하라.
- 어떠한 것도 가정하지 마라-'진실성 부여(truthiness)'[15]에 수반되는 신호의 선전에 현혹되지 말라.
- 익명 취재원에 주의하라.

8 Cavin, A. (2012). Distant witness: Social Media's Journalism Revolution. New York: CUNY Press.

9 Kovach, B. & Rosenstiel, T. (2014). Op. cit

10 Posetti, J. & Silverman, S. (2014). When Good People Shared Bad Things. The basics of social media verification, Mediashift 2014년 7월 24일.http://mediashift.org/2014/07/goodwhen-good-people-share-bad-things-the-basics-of-social-media-verification/ [2018.4.22. 접속]

11 Brandzaeg, P, Luders, M, Spangenberg, J., Rath-Wiggins, L. & Folstad, A. (2015). Emerging Journalistic Verification Practices Concerning Social Media. Journalism Practice, 10(3), pp. 323-342.

12 메리 미커의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 중 슬라이드 5쪽을 보라. https://www.slideshare.net/kleinerperkins/internet-trends-vi. [2018.4.22. 접속]

13 Schifferes, S., Newman, N., Thurman, N., Corney, C., Goker, A. & Martin, C. (2014). Identifying and Verifying News through Social Media. Digital Journalism, 2(3), pp.406-418.

14 Kovach & Rosenstiel (2014). Op. cit.

15 Zimmer, B (2010). "Truthiness",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0/10/17/magazine/17FOB-onlanguage-t.html [2018.4.15. 접속]
[역주] 진실성 부여: 사실과 관련 없이 진실이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부여하는 진실성.

정보나 이미지를 처음 만든 사람을 밝혀내고, 그들이 공유한 정보원과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사실을 검증하고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인 작업을 하게 된다.[16]

이런 확인은 저널리스트가 뉴스 현장에서 목격자를 인터뷰할 경우에 수행했을 작업과 비슷하다. 저널리스트는 목격 내용을 정밀 조사할 수 있는 대면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다. 중요한 세부 내용을 추적하고, 팩트체크한 내용을 토대로 그들의 신뢰성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행동에 대해 관찰한 내용과 함께 본능도 어느 정도는 안내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어떤 사람과 직접, 혹은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17]

많은 대형 뉴스룸에는 가능한 빨리 콘텐츠를 찾는 작업을 담당하는 팀과 고가의 기술, 혹은 서비스 제공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18] 이런 팀은 콘텐츠를 출간하기 전에 출판권·방송권을 확보하고 콘텐츠를 검증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뉴스룸과 많은 개인 저널리스트는 이 같은 자원을 갖고 있지 않다.[19] 따라서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한 체계적인 방법론에 의존한다.[20]

정보원과 시각 콘텐츠 검증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정리하자. 그것이 좋은 저널리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디지털 세계에서는 악의를 가진 행위자가 진짜와 구분하기 힘든 그럴듯한 가짜 콘텐츠를 생산한 뒤 공유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사실을 오도하는 정보, 혹은 사기꾼이 퍼뜨린 사진, 영상, 정보를 전문 저널리스트와 뉴스룸이 그대로 공유하거나 재발행해서 명성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많다. 때로 그들은 풍자 콘텐츠를 잘못 이해해서 사실인 것처럼 공유하거나 발행하기도 한다.[21]

이 문제는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방대한 시각 콘텐츠 때문에 더 심각해진다. 이러한 콘텐츠는 나중에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난 채로 뉴스 사이클에서 재활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정치가와 전문 저널리스트를 다함께 속이는 사기꾼들을 매일 목격한다.

하지만 무엇인가 할 이야기가 있거나 공유할 콘텐츠가 있는 정보원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많은 단계가 있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직접, 혹은 탐사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다. 검증 도구를 활용해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규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원의 소셜 미디어 이력을 분석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삼각측량을 수작업으로 해볼 수도 있다. 다른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이력을 조사하거나 포스트 내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는 방식 역시 수작업으로 하는 검증에 도움이 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봇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를 걸러낼 수도 있다.

의심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편집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뉴스 사건에 휘말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대다수 개인들은 누군가를 속이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따름이다. 나쁜 의도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개인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야기를

16 Bell, F. (2015). Verification: Source ve Content [온라인] Medium, https://medium.com/@ferg/verification-source-vs-content-b67d6eed3ad0 [2018.4.22. 접속]

17 Kovach & Rosentiel (2014). Op cit.

18 Diakopoulos, N., De Choudhury M. & Naaman M. (2015). Finding and assessing social media information sources in the context of journalism.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rocessings. pp. 2451-2460. http://www.nickdiakopoulos.com/wp-content/uploads/2011/07/SRSR-diakopoulos.pdf [2018.4.22. 접속]

19 Schifferes, S., Newman, N., Thurman, N., Corney, D., Goker, A & Martin, C. (2014). Identifying and verifying news through social media: Developing a user-centered tool for professional journalists. Digital Journalism, 2(3),pp. 406-418. https://openaccess.city.ac.uk/id/eprint/3071/1/IDENTIFYING%20AND%20VERIFYING%20NEWS%20THROUGH%20SOCIAL%20MEDIA.pdf [2018.4.22. 접속]

20 Brandtzaeg, P. B,, Luders, M., Spangenberg, J., Rath-Wiggins, L., Folstad, A. (2016). Emerging journalistic verification practices concerning social media, Journalism Practice, 10(3), 323-342.

21 Deutsche Welle (2018) Germany's Bild falls for hoax and unleashes fake news debate (2018/2/22), https://www.dw.com/en/germanys-bild-falls-for-hoax-unleashes-debate-on-fake-news/a-42704014 [2018.4.22. 접속]

윤색했을 가능성도 있다. 대면 인터뷰를 할 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범죄나 사건 현장에서 나온 논쟁적인 보도나 진술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 정신적 외상을 입은 증인이나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각 콘텐츠의 출처를 완벽한 확신을 갖고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이 포함된 간단한 검증 과정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위험 신호'는 많다.

- 콘텐츠가 독창적인가? 혹은 이전 보도에서 '긁어모아서' 사람들을 오도하기 위해 재사용한 것인가?
- 그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든 디지털적으로 조작되지는 않았는가?[22]
- 입수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통해 사진/영상이 찍힌 시간과 장소를 확증할 수 있는가?
- 콘텐츠에 있는 시각적 증거를 활용해 사진/영상 촬영 시간과 장소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

위험 신호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거짓 또는 사실을 오도하는 시각적 콘텐츠의 여러 유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 **잘못된 시간/잘못된 장소:** 사실을 오도하는 시각물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옛날에 만들어진 시각물을 새로운 주장을 담아 재공유하는 것이다. 이 경우 거짓임이 쉽게 들통나지만, 뿌리치기 쉽지 않은 콘텐츠를 우연히 공유해서 입소문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23]
- **조작된 콘텐츠:**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지털 기술로 조작된 콘텐츠.
- **각색된 콘텐츠:** 사실을 오도하려는 의도로 제작 혹은 공유된 독창적 콘텐츠.[24]

학생들은 이 모듈에서 정보원과 콘텐츠 검증법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도구와 기법을 소개받게 될 것이다(강의 노트를 비롯한 슬라이드, 그리고 추가 독서 자료).[25]

페이스북 계정 분석: 인텔 테크닉(Intel Techniques)[26]의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 정보원의 페이스북 계정을 분석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트위터 계정 분석: 아프리카체크의 가이드를 활용해 정보원의 소셜 이력을 분석해내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봇이 트윗하는 것인지 여부도 알아낼 수 있다.[27]

리버스 이미지 검색: 구글 리버스 이미지 검색(Reverse Image Search)[28], 틴아이(TinEye)[29], 혹은 레브아이(RevEye)[30]를 이용해 그 이미지가 새로운 주장이나 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활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리버스

22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있는 한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생존 학생들이 전국적인 총기 규제 찬성 시위를 성공적으로 조직했는데, 한 정파적인 소셜 미디어 채널이 유포한 조작된 이미지 속에 이들이 등장했다. https://www.buzzfeed.com/janelytvynenko/here-are-the-hoaxed-and-conspiracies-still-ground?utm_term=.euy6NPayy#.jhe2YvV44. [2018.4.22. 접속]

23 인도 벵갈루루 국제공항 홍수 사진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 동영상은 실제로는 멕시코 공항 홍수 사진 동영상을 개작한 것이다. https://www.thequint.com/news/webqoof/fake-video-claiming-bengaluru-airport-was-flooded-is-from-mexico [2018.4.22. 접속]

24 인공지능과 복잡한 동영상 편집 도구 때문에 가짜 영상을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 버락 오바마를 담은 이 영상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준다. https://www.youtube.com/watch?v=AmUC4m6w1w0 [2018.4.3. 접속]

25 뉴스 도구는 계속 진화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은 이 기술과 기법을 찾고 테스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26 https://inteltechniques.com/osint/facebook.html 에서 구할 수 있다.

27 Joseph(2018) Op cit.

28 How to do a Google Reverse Image Search: https://support.google.com/websearch/answer/1325808?co=GENIE.Platform%3DAndroid&hl=en [2018.4.22. 접속]

29 https://www.tineye.com/ 에 접속해보라.

30 https://www.tineye.com/ 에 접속해보라.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면 (수십 억 개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한 개 이상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 중인 그 이미지의 예전 버전을 볼 수 있다. 리버스 이미지 검색을 통해 어떤 사건 이전에 이미지가 존재했던 사실을 확인한다면, 중요한 위험 신호다. 예전 사건의 이미지가 재활용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다. 리버스 이미지 검색이 아무런 결과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이미지가 독창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여전히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유튜브 데이터 뷰어: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리버스 동영상 검색'은 없다. 하지만 엠네스티(Amnesty)의 유튜브 데이터 뷰어(Youtube Data Viewer)[31], 인비드(InVID)[32], 뉴스체크(NewsCheck)[33] 같은 도구는 유튜브 동영상 섬네일(thumbnail)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섬네일을 리버스 이미지 검색해보면 이 동영상의 과거 업로드 이력을 알아낼 수 있다. (정확한 업로드 시간도 보여준다.)

EXIF 뷰어: EXIF는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할 때 생성된 광범위한 데이터가 담긴 메타데이터로서 시각 콘텐츠에 부착돼 있다. 여기에는 정확한 시간과 날짜, 지역 메타데이터, 기가 데이터, 빛 설정 정보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EXIF 메타데이터는 검증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는 시각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제거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공유된 이미지는 EXIF 데이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업로드한 기기에 접속해 원 이미지 파일을 구할 수만 있다면 EXIF 데이터를 이용해 콘텐츠를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EXIF도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추가 검증이 요구된다.

참가자들은 좀 더 고급 기법에 대해 기본 사항을 안내받을 것이다. 추가 독서 자료와 사례 연구를 위한 자료도 제공된다. 다음과 같은 기법이 있다.

- **지리위치정보:** 지리위치정보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어디서 촬영됐는지 명확히 밝혀주는 과정이다. 메타데이터를 입수한다면 이 과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휴대폰의 EXIF 데이터는 좌표를 보여준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올라와 있는) 소셜 콘텐츠에는 때로 지리정보 태그가 붙어 있다(하지만 이 태그가 편집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때로 지리위치정보는 위성 이미지, 스트리트뷰 이미지, 그리고 다른 정보원에서 입수한 시각 콘텐츠(이를테면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다른 시각 콘텐츠) 등의 시각적 특징이나 랜드마크와 교차 검증할 필요도 있다.

- **날씨 확증:** 울프럼알파(WolframAlpha)[34] 같은 정보원은 과거의 날씨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시각 콘텐츠에서 관찰할 수 있는 날씨가 과거 기록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상 기록상 비가 오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 날 촬영된 동영상 속에 비가 보이지는 않는가?).

- **그림자 분석:** 사진이나 동영상을 탐구하는 방식 중 하나로 사진 안에 보이는 그림자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있다(즉 우리가 예상한 위치에 그림자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그림자가 관련 광원과 일치하는가?).

---

31 How to use Amnesty's YouTube Data Viewer: https://firstdraftnews.org/en/education/curriculum-resource/youtube-data-viewer/ [2018.4.22. 접속]

32 인비드 동영상 검증 도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다. http://www.invid-project.eu/tools-and-services/invid-verification-plugin/ [2018.4.22. 접속]

33 https://firstdraftnews.org/launching-new-chrome-extension-newscheck/ [2018.4.22. 접속]

34 울프럼알파 도구는 여기에서 접할 수 있다. https://www.wolframalpha.com/examples/science-and-technology/weather-and-meteorology/ [2018.4.22. 접속]

- **이미지 포렌식:** 어떤 도구들은 이미지 메타데이터 내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포착해 조작 여부를 탐지할 수도 있다. 이런 기법의 타당성은 맥락과 응용 정도에 상당히 좌우된다. 하지만 포렌시컬리(Forensically)[35], 포토 포렌식(Photo Forensics)[36], 이지트루(IziTru)[37] 같은 도구는 복제 탐지와 오류 수준 분석을 수행해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모듈 목표

-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는 UGC가 현대 저널리즘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이와 함께 여기에 의존할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위험과 함정에 대한 인식도 높인다.
- 기사의 주된 정보원에 안전하게 접근해서 정보를 확보하는 것과 그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 UGC 콘텐츠를 검증하고, 가짜나 사실을 오도하는 콘텐츠 유형을 걸러낼 필요성이 있음을 이해한다.
- 이미지와 동영상을 검증하고, 거짓 시각 콘텐츠의 정체를 밝히는 데 사용되는 기본 방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학습 성과

1. 현대 저널리즘에서 UGC의 역할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
2. 디지털 콘텐츠 검증 필요성에 대한 이해.
3. 원 정보원을 검증하는 도구 사용법에 대한 인식과 기술적 이해.
4. 사진과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 단계 수행 능력.
5. 검증 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좀 더 선진적인 기법과 메타데이터 이해.
6. UGC와 다른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할 때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는 사실 인식. 그리고 허락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지식.

모듈 형식

이 모듈은 60분 이론 강의와 세 개로 나눠진 120분 분량의 시연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번 주제의 실용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시연을 대체해서 실습을 겸한 좀 더 긴 형태의 양방향 워크숍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론: 위에서 제시한 노트를 활용해 저널리즘의 핵심이면서 디지털 시대에 계속 진화하고 있는 저널리즘 방법인 검증에 대해 배우는 강의를 설계한다.

실습: 120분 실습 세션은 양방향 시연과 워크숍으로 구성한다. 이 강의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35 Wagner, J. (2015). Forensically, Photo Forensics for the Web [블로그] https://29a.ch/2015/08/16/forensically-photo-forensics-for-the-web [2018.4.22. 접속]

36 https://fotoforensics.com [2018.4.22. 접속]

37 https://www.izitru.com [2018.4.22. 접속]

교사들은 위의 노트들과 함께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슬라이드를 모두 활용해보도록 한다. 슬라이드에는 교사들의 추가 노트가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라.

i. **정보원 확인 및 검증.** 정보원의 소셜 이력 확인: https://en.unesco.org/sites/dafault/files/unesco_fake_news_curriculum_verification_digital_sources_one.pdf

ii. **기본적인 이미지 검증.** 거짓 이미지의 일반 유형 및 기본적인 검증 단계: https://en.unesco.org/sites/dafault/files/unesco_fake_news_curriculum_verification_digital_sources_two_pdf

iii. **고급 검증.** 메타데이터 분석 및 지리위치정보를 포함해 콘텐츠 분석을 위한 연구법: https://en.unesco.org/sites/dafault/files/unesco_fake_news_curriculum_verification_digital_sources_three_pdf

계획과 학습 성과 연결하기

A. 이론

모듈 계획	시간	학습 성과
강의: 검증의 배경과 이론, 방법 진화	1시간	1, 2, 6

B. 실습

모듈 계획	시간	학습 성과
i) 정보원 검증-소셜 (연습)	30분	2, 3
ii) 리버스 이미지 검색 (시연 & 실습)	15분	2, 3, 4
ii) 동영상 분석 (시연)	30분	2, 3, 4
iii) 다양한 메타데이터 유형 소개 (시연)	15분	2, 5
iii) 지리위치정보 (시연 + 실습)	20분	2, 4, 5
iii) 날씨, 그림자, 그리고 이미지 포렌식 (시연)	10분	2, 4, 5

과제 제안

- 참가자들은 첫 번째 슬라이드 데크의 슬라이드8에 있는 기본 템플릿을 이용해 정보원 검증 워크플로우를 디자인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실제 역할이나 그들이 작업한 장소, 또는 익숙한 뉴스 조직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 유명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선택한 뒤 참가자들에게 시연 도구를 이용해 그 계정이 진짜인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요구하라. 그런 다음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진짜가 아닌 계정을 가려내도록 하라.
- 이미지 파일 하나를 공유한 뒤 온라인 EXIF 뷰어와 리버스 이미지 검색 도구를 활용해 진짜 정보원이란 점을 확증해줄 수 있는 특정 부분을 가려내도록 하라.

자료

슬라이드

1. https://en.unesco.org/sites/dafault/files/unesco_fake_news_curriculum_verification_digital_sources_one.pdf
2. https://en.unesco.org/sites/dafault/files/unesco_fake_news_curriculum_verification_digital_sources_two.pdf
3. https://en.unesco.org/sites/dafault/files/unesco_fake_news_curriculum_verification_digital_sources_three.pdf

독서 자료

정보원 검증

Ayala Iacucci, A. (2014). Case Study 3.1: Monitoring and Verifying During the Ukrainian Parliamentary Election, Verification Handbook. European Journalism Centre.

http://verificationhandbook.com/book/chapter3.1.php. [2018.4.4. 접속]

Bell, F. (2015). Verification: Source vs. Content, First Draft News. https://medium.com/1st-draft/verification-source-vs-content-b67d6eed3ad0. [2018.4.4. 접속]

Carvin, A. (2013), Distant Witness, CUNY Journalism Press. https://press.journalism.cuny.edu/book/distant-witness-social-media-the-arab-spring-and-a-journalism-revolution/ [2018.4.4. 접속]

Toler, A. (2017). Advanced guide on verifying video content. https://www.bellingcat.com/resources/how-tos/2017/06/30/advanced-guide-verifying-video-content/ [2018.4.4. 접속]

Trewinnard, T. (2016). Source verification: Beware the bots, First Draft News. https://firstdraftnews.org/latest/source-verification-beware-the-bots/ [2018.4.4. 접속]

동영상

Real or Fake: How to verify what you see on the internet. (2015). France24. https://www.youtube.com/watch?v=Q8su4chuU3M [2018.4.4. 접속]

Knight, W. (2018). The Defense Department has produced the first tools for catching deepfakes, MIT Technology Review.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18/08/07/66640/the-defense-department-has-produced-the-first-tools-for-catching-deepfakes/ [2018.8.23. 접속]

미디어 증언

Brown, P. (2015). A global study of eyewitness media in online newspaper sites. Eyewitness Media Hub. https://firstdraftnews.org/wp-content/uploads/2018/03/user_generated_content.pdf[2020.5.12. 역자 접속]

Hermida, A. (2013). #JOURNALISM. Digital Journalism, 1(3), pp.295-313.

Koettl, C. (2016.1.27.). Citizen Media Research and Verification: An Analytical Framework for Human Rights Practitioners. Centre of Governance and Human Rights, University of Cambridge. https://www.repository.cam.ac.uk/handle/1810/253508 [2018.4.4. 접속]

Kuczerawy, A. (2016.12.16.). Pants on fire: content verification tools and other ways to deal with the fake news problem. https://www.law.kuleuven.be/citip/blog/pants-on-fire-content-verification-tools-and-other-ways-to-deal-with-the-fake-news-problem/ [2020.5.12. 역자 접속]

Novak, M. (n.d.). 69 Viral Images From 2016 That Were Totally Fake. https://gizmodo.com/69-viral-images-from-2016-that-were-totally-fake-1789400518 [2017.11.12. 접속]

Online News Association: UGC Ethics Guide https://ethics.journalists.org/topics/user-generated-content/ [2018.4.18. 접속]

Pierre-Louis, K. (2017). You're probably terrible at spotting faked photos. https://www.popsci.com/fake-news-manipulated-photo/ [2017.11.12.접속]

Rohde, D. (2013). Pictures That Change History: Why the World Needs Photojournalists. The Atlantic.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3/12/pictures-that-change-history-why-the-world-needs-photojournalists/282498/ [2018.4.3. 접속]

Shapiro, I., Brin, C., Bédard-Brûlé, I. & Mychajlowcz, K. (2013) Verification as a Strategic Ritual: How journalists retrospectively describe processes for ensuring accuracy, Journalism Practice, 7(6).

Smidt, J. L., Lewis, C. & Schmidt, R. (2017). Here's A Running List Of Misinformation About Hurricane Irma.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janelytvynenko/irma-misinfo [2017.10.23. 접속]

Wardle, C. (2015). 7/7: Comparing the use of eyewitness media 10 years on. https://firstdraftnews.org/latest/77-comparing-the-use-of-eyewitness-media-10-years-on/ [2017.11.12. 접속]

Wardle, C., Dubberley, S., & Brown, P. (2017). Amateur Footage: A Global Study of User-Generated Content in TV and Online News Output. https://firstdraftnews.org/latest/amateur-footage-global-study-user-generated-content-tv-online-news-output/ [2020.5.12. 역자 접속]

Zdanowicz, C. (2014). "Miracle on the Hudson" Twitpic changed his life.https://edition.cnn.com/2014/01/15/tech/hudson-landing-twitpic-krums/index.html [2017.11.12. 접속]

리버스 이미지 검색

First Draft News. Visual Verification Guide -Photos-. https://firstdraftnews.org/wp-content/uploads/2017/03/FDN_verificationguide_photos.pdf [2017.11.6. 접속]

First Draft News. Visual Verification Guide - Video -. https://firstdraftnews.org/wp-content/uploads/2017/03/FDN_verificationguide_videos.pdf [2017.11.6. 접속]

Suibhne, E. (2015). Baltimore "looting" tweets show importance of quick and easy image checks. https://medium.com/1st-draft/baltimore-looting-tweets-show-importance-of-quick-and-easy-image-checks-a713bbcc275e [2017.11.6. 접속]

Seitz, J. (2015). Manual Reverse Image Search With Google and TinEye. https://www.bellingcat.com/resources/how-tos/2015/05/08/manual-reverse-image-search-with-google-and-tineye/ [2017.11.6. 접속]

유튜브 데이터 뷰어

First Draft News. (n.d.). Using YouTube Data Viewer to check the upload time of a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2YS7YWnoYwo [2020.5.12. 역자 접속]

Toler, A. (2017). Advanced Guide on Verifying Video Content. https://www.bellingcat.com/resources/how-tos/2017/06/30/advanced-guide-verifying-video-content/ [2017.11.13. 접속]

메타데이터 분석

Honan, M. (2012). How Trusting in Vice Led to John McAfee's Downfall. https://www.wired.com/2012/12/how-vice-got-john-mcafee-caught/ [2018.4.3. 접속]

Storyful. (2014). Verifying images: why seeing is not always believing. https://kathymacdonald.ca/important-verifying-images-why-seeing-is-not-always-believing/ [2020.5.12. 역자 접속]

Wen, T. (2017). The hidden signs that can reveal a fake photo. https://www.bbc.com/future/article/20170629-the-hidden-signs-that-can-reveal-if-a-photo-is-fake [2017.11.12. 접속]

콘텐츠 분석

Ess, H. van. (2017). Inside the trenches of an information war. Medium. https://medium.com/@henkvaness/how-to-date-a-mysterious-missile-launcher-78352ca8c3c3 [2018.4.3. 접속]

Farid, H. (2012). Image Authentication and Forensics | Fourandsix Technologies – Blog – A Pointless Shadow Analysis. [URL 없음]

Farid, H. (n.d.-c). Photo Forensics: In the Shadows - Still searching – Fotomuseum Winterthur. https://www.fotomuseum.ch/en/explore/still-searching/articles/26425_photo_forensics_in_the_shadows [2018.4.3. 접속]

First Draft News. (2016). Watch Eliot Higgins demonstrate advanced verification.

techniques at #FDLive. https://firstdraftnews.org/latest/watch-eliot-higgins-discuss-advanced-verification-and-geolocation-techniques-at-fdlive/ [2018.4.3. 접속]

Higgins, E. (2015, July 24). Searching the Earth: Essential geolocation tools for verification. https://medium.com/1st-draft/searching-the-earth-essential-geolocation-tools-for-verification-89d960bb8fba [2018.4.3. 접속]

온라인 자료

First Draft Interactive: Geolocation Challenge. https://firstdraftnews.org/en/education/curriculum-resource/test-your-verification-skills-with-our-geolocation-challenge/ [2018.4.3. 접속]

First Draft Interactive: Observation Challenge. https://firstdraftnews.org/articulate/obsc/story_html5.html [2018.4.3. 접속]

First Draft Online Verification Course. https://firstdraftnews.org/training/ [2018.4.3. 접속]

온라인 괴롭힘과의 전쟁 : 저널리스트와 취재원을 겨냥한 공격

졸리 포세티

모듈 7

요약

저널리즘과 정보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1] 문제는 소셜 미디어 시대에 이르러 급격히 심화됐다. 그중에는 정보나 논평을 검증하거나 공유하려는 저널리스트와 다른 온라인 출판인, 그리고 그들의 정보원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공격도 있다. 이런 공격은 저널리스트나 정보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저널리즘 자체의 신뢰성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때로 저널리스트들은 '아스트로터핑(astroturfing)[2]과 트롤링[3] 등의 타깃이 됐다. 둘 다 저널리스트나 정보원의 주의를 흩뜨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도록 고안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을 혼란시키거나, 오도하거나, 현혹시키거나 혹은 위험에 빠뜨리기"[4]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다. 또는 저널리스트가 속아서 잘못된 해석을 유도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나중에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저널리스트(그리고 그 저널리스트가 소속된 언론사)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다른 경우 정보원을 노출한다거나 사생활을 침해해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게재하지 않은 데이터에 접속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

정부가 '디지털 혐오부대(digital hate squads)'를 동원해 비판적인 논평을 얼어붙게 만들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경우도 있다.[5] 온라인 괴롭힘(harassment)과 폭력(경우에 따라 트롤링[6]이라는 문제 많은 꼬리표가 따라 붙기도 한다)은 여성에게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 성차별적 성향이다. 이를 통해 저널리스트와 정보원, 비평가들이 온라인 학대(abuse), 그들의 행동에 대한 거짓 주장, 존재 사칭,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 등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이들을 모욕하거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신빙성을 저하시키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결과적으로 보도를 위축시키기 위해 행해진다.[7] 비판적인 보도를 막기 위해 현실 세계에서 위협을 가하는 일은 여전히 많은 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상의 선동과 위협이 추가됐을 뿐이다.

저널리스트는 허위정보 캠페인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시도에 저항한다. 많은 저널리스트가 디지털 방어막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이런 위협과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 폭로하고 있다. 뉴스 미디어는 NGO와 함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운동을 함으로써 저널리즘이 왜 소중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대중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1 두 용어의 정의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라. Wardle, C. & Derakhshan, H. (2017), Information Disorder: Toward an Interdisciplinary Framework for Research and Policymaking (Council of Europe). https://rm.coe.int/information-disorder-toward-an-interdisciplinary-framework-for-researc/168076277c [2018.3.30. 접속]

2 '아스트로터핑'은 천연 잔디 덮개를 해 놓은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 야외의 표면을 덮는 데 사용됐던 가짜 잔디 브랜드에서 유래된 용어로, 허위정보 맥락에서 수용자나 저널리스트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려는 의도로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이때 어떤 사람이나 사상, 혹은 정책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꾸민 '증거' 형태로 유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테코피디아 정의를 참고하라. https://www.techopedia.com/definition/13920/astroturfing [2018.3.20. 접속]
[역주] 정치광고나 대중 캠페인에서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돈을 써서 가짜 선전 행위를 하는 것. 신문사에 가짜 독자 편지를 보내거나 돈을 받고 리뷰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3 Coco, G. (2012). Why Does Nobody Know What Trolling Means? A quick reference guide for the media, Vice.com. https://www.vice.com/en_uk/article/ppqk78/what-trolling-means-definition-uk-newspapers [2018.3.30. 접속]

4 Posetti, J. (2013). The 'Twitterisation' of investigative journalism, S. Tanner & N. Richardson (Eds). Journalism Research and Investigation in Digital World (pp. 88-100): Oxford University Press, Melbourne. https://ro.uow.edu.au/cgi/viewcontent.cgi?article=2765&context=lhapapers [2018.3.30. 접속]

5 Riley M, Etter & Pradhan, B. (2018). A Global Guide To State-Sponsored Trolling.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features/2018-government-sponsored-cyber-militia-cookbook/ [2018.7.21. 접속]

6 주석: 인터넷 관련 용법에서 '트롤링'은 가볍게 괴롭히거나 속이기, 혹은 정교한 협잡을 부추기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다. 하지만 트롤링은 점차 온라인 괴롭힘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많은 문제 소지가 있다. 광범위한 행위를 포괄하면서 정작 심각한 온라인 학대 행위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7 다음 사례를 보라.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twitter-maggie-haberman-new-york-times-quits-social-media-jack-dorsey-a8459121.html

개요

이슈 알아내기

i) 트롤링과 아스트로터핑[8] 분간하고 대응하기

이 현상은 저널리스트와 수용자를 속이기 위해 조작한 인물과 사건, 그리고 유기적인 대중의 반응을 흉내 내기 위해 조직된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포함한다. 뉴스 속보나 합법적인 증언 기록을 뉴스처럼 가장하거나 부정확한 사실을 덧입힌 콘텐츠와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콘텐츠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유해 사람들을 올바른 정보에서 멀어지게 만들거나, 저널리스트와 온라인 비평가들의 신뢰를 훼손한다.

이런 유형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 재난 피해자나 테러 사상자 숫자를 조작한 뒤 (맨체스터 폭발 사례 참고[9])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전파 과정에 함께 얽혀 든 저널리스트를 비롯한 개인의 평판과 신뢰도가 훼손될 수도 있다.

- '다마스쿠스의 게이 걸(Gay Girl in Damascus)'[10] 같은 가상의 인물을 꾸며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 2011년, 세계 언론들은 시리아의 한 레즈비언 블로거의 체포 소식을 요란하게 보도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시리아 밖에 있던 한 미국인 학생이 지어낸 것으로 판명됐다. 저널리스트 제스 힐(Jess Hill)은 호주 〈ABC방송〉의 'PM' 프로그램에서 그 이야기의 취재를 배정 받았다. 그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전통적인 검증 평가와 방법으로 거짓말이 증폭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가지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녀의 체포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녀를 직접 만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친척도, 친구도 없었다. 우리는 이틀 동안 시리아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그녀와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을 물색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었다. 실제로 그녀를 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중요한 경고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경쟁적으로 그 기사를 보도했던 뉴스 매체들은 정보원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작업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블로그 게시글을 바탕으로 뉴스를 보도했다."[11]

탐사보도를 하는 저널리스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무의미한 조사를 촉발시켜 결과적으로 보도를 방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찾으려는 의욕을 저하시키려는 의도다.

이러한 방해 시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을 내세워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추정 인파에 대한 재구성 시도.[12]

-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한 선전선동. 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자들에게 전쟁에 대한

8 교육 목적으로 '아스트로터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링크가 유용하다. https://youtu.be/Fmh4RdlwswE

9 맨체스터 폭발 사례.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7/may/26/the-story-behind-the-fake-manchester-attack-victims [2018.3.30. 접속]

10 Young, K. (2017). How to Hoax yourself: The Case of the Gay Girl in Damascus. 2017.11.9., The New Yorker, https://www.newyorker.com/books/page-turner/how-to-hoax-yourself-gay-girl-in-damascus [2018.3.30. 접속]

11 Possetti, J. (2013). op cit

12 NBC News (2017) Video: https://www.nbcnews.com/meet-the-press/video/conway-press-secretary-gave-alternative-facts-860142147643 [2018.3.30. 접속]

사실을 오도하는 거짓 정보를 트윗.[13]

- 검증 가능하며 공중이 관심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일련의 데이터를 저널리스트들에게 제공. 하지만 허위정보를 섞어서 데이터를 오염시킴.

좀 더 최근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선전선동[14]이 '아스트로터핑'과 '트롤링'을 다루는 저널리스트에게 더 큰 위협요인으로 등장했다. 봇을 이용해 목표를 잘 설정한 거짓 정보와 선동적인 메시지를 보다 넓은 범위에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경우도 있다.[15]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딥페이크'[16] 동영상이나 다른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해 표적으로 삼은 사람들의 신뢰를 낮추려는 시도도 있다. 저널리스트, 특히 여성 저널리스트가 주된 타깃이 된다.

이런 시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 독립 뉴스 사이트 〈래플러닷컴〉과 이곳의 대다수 여성 직원들이 여러 온라인 괴롭힘의 타깃이 됐다. "필리핀에서는 돈을 받고 활동하는 트롤, 잘못된 추론, 논리적 비약, 우물에 독 타기(poisoning the well)[17] 같은 것은 핵심 쟁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사용된 선전선동 기법의 일부 사례일 뿐이었다."[18] (아래 부분에 이어지는 좀 더 포괄적인 설명을 보라.)

- 남아프리카에서는 주요 국영기업과 정치인을 매수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부유한 가족이, 정교한 선전선동을 벌이기 위해 영국 홍보회사 벨 포팅거(Bell Pottinger)를 고용했다. 이 홍보회사는 저널리스트, 기업인, 정치인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메시지와 포토샵으로 조작한 이미지를 웹사이트, 미디어, 그리고 돈을 받고 활동하는 트위터 계정 같은 허위정보 군단을 통해 퍼뜨렸다. 이를 통해 창피를 줄 뿐 아니라 정경유착 관련 조사에 반격을 가했다.[19] 저명 편집자인 페리얼 하페지(Ferial Haffejee) 역시 이 기간 동안 온라인 괴롭힘의 타깃이 됐다. 그들은 하페지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창녀(#prostitute)라는 해시태그 옆에 합성한 그녀의 이미지를 노출시켰다.[20]

- 라나 아이업(Rana Ayyub) 기자 사례의 경우, 5명의 UN 특별조사관이 인도 정부에 (그녀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당시 아이업 기자는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해 거짓 정보를 대량 유포하는 세력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독립 저널리스트인 아이업은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계속 받았다. 그중에는 직접적인 강간 및 살해 위협과 함께 포르노 영화를 찍은 것처럼 조작된 '

13 Cunningham, E. (2011). In shift, Taliban embrace new media, GlobalPost. https://www.pri.org/stories/2011-05-21/shift-taliban-embrace-new-media [2018.3.30. 접속]

14 Wooley, S. & Howard, P. (2017). Computational Propaganda Worldwide: Executive Summary, Working Paper No. 2017. 11 (Oxford University). https://comprop.oii.ox.ac.uk/wp-content/uploads/sites/89/2017/06/Casestudies-ExecutiveSummary.pdf [2018.3.30. 접속]

15 주의: 2017년 영국 총선 기간 동안 봇 캠페인에 대한 얄팍한 보도를 통해 이런 쟁점들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었다. Dias, N. (2017). Reporting on a new age of digital astroturfing, First Draft News, https://firstdraftnews.org/latest/digital-astroturfing/ [2018.3.29. 접속]

16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AI 기술을 이용해 사기성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포르노성 콘텐츠도 만드는데 사실상 식별하기 힘들다. 이 기술은 저널리스트를 비롯한 개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사이버 공격에서 사용된다. Cuthbertson, A (2018). What is 'deepfake' porn? AI brings face-swapping to disturbing new level, Newsweek. http://www.newsweek.com/what-deepfake-porn-ai-brings-face-swapping-disturbing-new-level-801328 [2018.6.17. 접속]

17 [편집자 주] 우물에 독 타기: 정보원을 공격함으로써 해당 주장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의미.

18 Ressa, M. (2016). Propaganda War: Weaponizing the Internet, Rappler. https://www.rappler.com/nation/148007-propaganda-war-weaponizing-internet [2018.3.30. 접속]

19 굽타의 '가짜뉴스 제국'에 대한 포괄적인 일체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라. https://www.timeslive.co.za/news/south-africa/2017-09-04-the-guptas-bell-pottinger-and-the-fake-news-propaganda-machine/ [2018.3.30. 접속]

20 Haffajee, F, (2017). Ferial Haffajee: The Gupta fake news factory and me. Huffpost South Afria. https://www.huffingtonpost.co.uk/2017/06/05/ferial-haffajee-the-gupta-fake-news-factory-and-me_a_22126282/ [2018.4.6. 접속]

딥페이크'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21]

- ▷ 핀란드의 제시카 아로(Jessikka Aro) 기자 사례는 이번 모듈의 섹션 ii) '디지털 안전 위협과 방어 전략'에서 논의한다.

이 핸드북에 있는 다른 모듈은 특히 기술적 검증을 위한 기법을 설명한다. 하지만 학대의 유형으로 저널리스트를 타깃으로 한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 배포하는 일부 온라인 인사들의 악의적인 동기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검증의 기술적 방법에 추가되어야 할 중요한 질문:

1. 공유된 게시물이나 태그에 악의적인 의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가?
2. 해당 콘텐츠를 게시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
3. 이것을 공유하는 경우 나/나의 전문적인 신뢰도/뉴스 미디어 조직이나 고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4. 개인의 신원/소속/신뢰도/동기를 알아내기 위한 작업을 충분히 했는가(즉 그들은 허위정보를 뿌리거나, 공익이라고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 취득 콘텐츠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가)?
5. 사람인가 봇인가?[22]
6. 내부고발자를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데이터 덤프(data dump)'[23]를 받는 경우, 입수한 데이터를 통째로 보도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콘텐츠를 검증해야 하는가? 고의적으로 오도하거나 신뢰를 낮추기 위해서 고안된 허위정보나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는가?

ii) 디지털 안전 위협과 방어 전략

저널리스트, 인권 운동가와 블로거 및 소셜 미디어 활동가들은 사이버 공격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또 그들의 데이터와 정보원 역시 피싱, 악성 코드 공격, 신원 도용(identity spoofing) 등 악의적인 행위에 위태로워질 수 있다.[24]

21 UN experts call on India to protect journalist Rana Ayyub from online hate campaign.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3126&LangID=E[2018.8.10. 접속] 다음 자료도 참고하라. Ayyub, R. (2018). In India, journalists face slut-shaming and rape threats. https://www.nytimes.com/2018/05/22/opinion/india-journalists-slut-shaming-rape.html [2018.6.17. 접속]

22 사례를 보려면 https://botcheck.met 를 참고하라.

23 [역주] 데이터 덤프: 저장된 데이터의 복사본.

24 '테크노피디아'에서 인용: 스푸핑(Spoofing)은 수신자가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한 낯선 정보원이 커뮤니케이션을 보내오는 사기적, 혹은 악의적인 행위이다. 이메일 스푸핑이 이런 행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이다. 신분을 도용한 이메일에는 트로이목마를 비롯한 바이러스가 포함될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원치 않은 행위, 원격 접속, 파일 삭제 같은 것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컴퓨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https://www.technopedia.com/definition/5398/spoofing [2018.3.29. 접속]

사례:

수상 경력이 있는 탐사 저널리스트이자 현재 핀란드의 공영방송 〈YLE〉에 몸담고 있는 제시카 아로는 2014년부터 조직적인 트롤링의 타깃이 됐다. 그는 스푸핑과 독싱(doxing)[25] 같은 디지털 안전 위협을 경험했다. 트롤들은 그의 개인 연락 정보를 공개하고 허위정보를 퍼뜨렸으며, 메신저 앱과 메일함을 성난 메시지로 가득 채웠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와 총을 쏘겠다고 말했다. 나중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사칭하며,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는 문자도 받았다.[26]" 아로는 기자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선전선동을 탐사하고 폭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편집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따라서 저널리즘 관계자들은 아래와 같은 위협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열두 가지 핵심 디지털 안전 위협 사례[27]

- 표적 감시 및 대중 감시
- 공격 대상이 된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한 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악용
- 피싱 공격[28]
- 가짜 도메인 공격
- 중간자(MitM) 공격[29]
- 서비스거부(DoS) 공격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30]
- 웹사이트 손상
- 손상된 이용자 계정
-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위협, 희롱 및 정보공개 강요
- 허위정보와 비방 캠페인
- 저널리즘 작업물 압수
- 데이터 스토리지 및 마이닝

---

25 '테크노피디아'에서 인용: 독싱(Doxing)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신용카드 같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검색, 해킹, 그리고 공개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말이다. 특정 사람이나 조직이 독싱의 타깃이 될 수 있다. 독싱의 이유는 많다.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강압이다. 독싱은 워드 프로그램의 '.doc'에서 유래한 속어다. 문서들이 자주 검색되고 공유되는 점에 빗대서 만들어진 용어다. 해커들은 다양한 독싱 방법을 개발해 왔다. 하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피해자의 이메일을 입수해 암호를 풀고 계정을 연 뒤 좀 더 많은 개인정보를 손에 넣는 것이다. https://www.technopedia.com/definition/29025/doxing [2018.3.29. 접속]

26 Aro, J. (2016). The Cyberspace war: propaganda and trolling as warfare tools. European View. Sage Journals, 2016년 6월, Volume 15, Issue 1.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007/s12290-016-0395-5 [2018.7.20. 접속]

27 Posetti, J. (2015). New Study: Combatting the rising threats to journalists's digital safety (WAN-IFRA). https://blog.wan-ifra.org/2015/03/27/new-study-combating-the-rising-threats-to-journalists-digital-safety [2018.3.30. 접속]

28 King. G (2014). Spear phishing attacks underscore necessity of digital vigilance, CPJ. https://cpj.org/blog/2014/11/spear-phishing-attacks-underscore-necessity-of-dig.php [2018. 3.29. 접속]

29 '테크노피디아'의 중간자 공격 정의: "두 사람 간의 소통이 감시되거나, 인가받지 않은 사람에 의해 수정되는 일종의 도청. 일반적으로 공격자는 공개 키 메시지 교환을 가로챈 뒤 적극적으로 도청하며, 요구받은 키를 자신의 것으로 대체해 메시지를 재전송한다." https://www.technopedia.com/definition/4108/man-in-the-middle-attack-mitm [2018.3.29. 접속]

30 '테크노피디아'의 개념 정의를 참고하라. https://www.technopedia.com/definition/24841/denial-of-service-attack-dos b. https://www.technopedia.com/definition/10261/distributed-denial-of-service-attack-ddos [2018.3.29. 접속]

방어 전략과 관련된 내용은 '저널리즘을 위한 디지털 안전 구축하기(Building Digital Safety for Journalism)'[31]를 참고하라.

저널리스트나 다른 미디어 제작자들이 기밀 취재원 및 내부고발자와 상호 소통하는 경우에 대한 함의는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 취재원 보호하기(Protecting Journalism Sources in the Digital Age)'[32]를 참고하라.

온라인 괴롭힘과 폭력 인지하고 관리하기

"나는 더러운 매춘부, 피투성이 집시, 유대인, 무슬림 계집, 구역질나는 이민자, 멍청한 사이코, 못생긴 거짓말쟁이, 차별적인 혐오주의자라고 불렸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집으로 가라고, 자살하라고 말했다. 총을 쏘고, 혀를 자르겠다고 말했으며,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고 했다. 집단 성폭행하거나 성고문할거라고 계속 협박했다."[33] 유명한 스웨덴 기자 알렉산드라 파스칼리도(Alexandra Pascalidou)가 2016년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때 자신이 온라인에서 당한 경험을 증언한 내용이다.

여성 기자와 비평가에게 가해지는 이런 종류의 폭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UN(유네스코 포함[34])과 다른 기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행동과 해결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온라인상에서 '혐오 트롤링'의 대상이 됐던 여성 저널리스트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국제적 영향력을 입증하는 연구를 지원했다.[35]

영국의 싱크탱크인 데모스(Demos)의 연구도 이어졌다. 데모스는 수천 건의 트윗 분석을 토대로 저널리즘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하는 유일한 분야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성 기자와 TV 뉴스 사회자는 남성보다 세 배 정도 더 많은 폭력을 경험했다."[36] 폭력의 주요 키워드는 '계집(slut)', '강간(rape)', '매춘부(whore)' 등이었다.

여성 저널리스트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의 특징은 허위정보 전술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들의 평판을 약화시키고 모욕감을 주며 그들의 공개 논평이나 보도의 의지를 꺾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의 성격 또는 일과 관련한 거짓말이 퍼져나간다.

강간, 살인 등 폭력 위협이 추가된 데다 (자연스럽게, 조직적으로, 혹은 봇으로 온라인상의 개인에게 대량 공격을 하는) '증대(pile on)' 효과로 인해 충격은 훨씬 더 악화됐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수시로 개인 전자기기에 들어오는 이런 공격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그 충격은 더 강하다. 파스칼리도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언어폭력 때문에 잠에서 깨고, 성차별주의자와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분노가 귓가에서 울리는 것을 느끼면서 잠자리에 든다. 마치 끝없는 저강도 전쟁을 치르는 듯한 기분이다."

---

31 Henrichsen, J. et al. (2015). Building Digital Safety for Journalism (유네스코) 파리.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2358 [2020.5.14. 역자 접속]

32 Posetti, J. (2017). Protecting Journalism Sources in the Digital Age (유네스코) 파리.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8054 [2020.5.14. 역자 접속]

33 Posetti, J. (2016). Swedish journalists Alexandra Pascalidou Describes Online Threats of Sexual Torture and Graphic Abuse. The Sydney Morning Herald. 2016년 11월 24일. https://www.smh.com.au/lifestyle/swedish-broadcaster-alexandra-pascalidou-describes-online-threats-of-sexual-torture-and-graphic-abuse-20161124-gswuwv.html [2018.3.30. 접속]

34 Posetti, J. (2017). Fighting Back Against Prolific Online Harrassment: Maria Ressa, L, Kilman (Ed):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성적 학대와 폭력을 비롯해 여성 저널리스트들이 직면한 특정 위협들"을 기록한 제39차 유네스코 총회 결의안 39항도 참고하라.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6/--2608/260889e.pdf [2018.3.29. 접속]

35 OSCE(2016). Countering Online Abuse of Female Journalists. https://www.osce.org/fom/220411?download=true [2018.3.30. 접속]

36 Barlets, J. et al. (2014). Misogyny on Twitter, Demos. https://www.demos.co.uk/files/MISOGYNY_ON_TWITTER.pdf [2018.3.30. 접속]

필리핀에서 〈래플러〉의 최고경영자 겸 편집인 마리아 레사(Maria Ressa)[37]는 국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대규모 허위정보 캠페인이란 맥락에서 벌어진 다양한 온라인 괴롭힘과의 전쟁을 수행했다. CNN 종군기자 출신인 그는 종군기자의 경험이 2016년부터 자신을 겨냥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거대하고 파괴적인 성적 학대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못생긴 여자, 개, 뱀이라고 불렸으며 강간과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레사는 살해 협박 횟수를 세다가 포기했다. 게다가 그는 #마리아레사 체포(#ArrestMariaRessa), #그녀를상원으로(BringHerToTheSenate) 같은 해시태그 캠페인의 타깃이 됐다. 이 캠페인은 온라인 군중의 공격을 선동하고 레사와 〈래플러〉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그들의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레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침묵의 나선을 불러왔다.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살인에 대해 비판하거나 의문을 제시한 사람들은 누구나 공격을 받았다. 심하게 공격받았다. 여성에게 가해진 공격은 더 끔찍했다. 이 시스템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침묵시키려 하는 것이다. 저널리스트를 길들이기 위해서다. 우리는 어려운 질문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며, 확실히 비판적이 될 수 없을 것이다."[38]

마리아 레사의 반격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기
-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영향을 받은 직원들에게 심리적인 지원 제공하기
- 탐사 저널리즘을 반격 무기로 사용하기[39]
- 충성 독자들에게 공격을 견제하고 격퇴하도록 부탁하기
- 괴롭힘을 막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보안 강화하기
- 온라인 괴롭힘을 경감시키고,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플랫폼(예.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식 요청하기

온라인 폭력 위협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여성 저널리스트를 상대로 오프라인에서 가해지는 허위정보 형태의 괴롭힘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호주 탐사 저널리스트 웬디 칼리슬(Wendy Carlisle)은 2011년 호주에서 〈ABC 라디오〉를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중,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의 집회에서 괴롭힘 당하고 야유를 들었으며 제작을 방해받았다. 결국 괴롭힘 때문에 안전을 위해 행사 현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40]

37 마리아 레사는 유네스코-기예르모 카노 세계언론자유상(UNESCO-Guillermo Cano World Press Freedom Prize)의 심사위원이다. https://en.unesco.org/prizes/guillermo-cano/jury

38 Posetti, J. (2017). Fighting Back Against Prolific Online Harassment: Maria Ressa. Kilman, L. (Ed) An Attack on One is an Attack on All (UNESCO). https://en.unesco.org/sites/default/files/an_attack_on_on_is_an_attack_on_all_chapter_8.pdf [2020.5.4. 역자 접속]

39 이것은 앞에서 소개한 '굽타 유출' 사례 연구에서 페리얼 하파지가 사용했던 전략이기도 하다. 그는 탐사 저널리즘 기법과 디지털 보안 '탐정'을 활용해 스캔들 보도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려고 자신을 겨냥했던 일부 트롤들의 정체를 밝혀냈다. https://www.news24.com/SouthAfrica/News/fake-news-peddlers-can-be-traced-hawks-20170123 [2018.6.16. 접속]

40 Carlisle, W. (2011). The Lord Monckton Roadshow, 백그라운드 브리핑, ABC 라디오. https://www.abc.net.au/radionational/programs/backgroundbriefing/the-lord-monckton-roadshow/2923400 [2018.3.30. 접속]

모듈 목표

이번 모듈은 '정보 무질서' 측면에서 온라인 괴롭힘의 위협에 대해서 알려주고; 참가자들이 이런 위협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온라인 괴롭힘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방법을 제안한다. 목표는 아래와 같다.

- ▷ 저널리스트와 정보원을 겨냥한 악의적 인물들의 문제와 허위정보/잘못된 정보 캠페인을 벌이는 다른 온라인 정보 전달자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을 제고함.
- ▷ 참가자들이 '아스트로터핑', '트롤링', 디지털 안전 위협, 온라인 괴롭힘 등을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 참가자들이 성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아스트로터핑', '트롤링', 디지털 안전 위협, 온라인 괴롭힘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킴.

학습 성과

참가자들은 이 모듈을 끝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1. 온라인 괴롭힘이 저널리즘 행위자, 저널리즘, 정보 공유,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2. 악의적인 인물들이 저널리스트와 온라인 정보 전달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정보/잘못된 정보 캠페인을 벌이는 문제를 더 잘 인지하며;
3. 여성들이 온라인상에서 언론 활동을 할 때 겪는 안전 위협에 대해 이해하고;
4. '아스트로터핑', '트롤링', 디지털 안전 위협, 온라인 괴롭힘 등의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행위자들을 쉽게 알아보며;
5. 성차별적인 방식으로 가해지는 '아스트로터핑', '트롤링', 디지털 안전 위협, 온라인 괴롭힘에 대해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

모듈 형식

이 모듈은 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론과 실습 두 단계로 구성돼 있다.

계획과 학습 성과 연결하기

A. 이론

모듈 계획	시간	학습 성과
양방향 강의와 질의응답(90분), 전통적인 방법, 또는 웨비나 플랫폼으로 수행 가능하며, 원격 참여를 장려할 수 있도록 디자인 돼 있다. 강의 내용은 위에 포함된 이론과 사례로 구성할 수 있다. 강의 진행자는 문화적/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례를 강의에 포함할 것을 추천한다.	60~90분	1, 2, 3, 4, 5

B. 실습

모듈 계획	시간	학습 성과
전통적인 교실 또는, 무들, 페이스북 그룹, 기타 온라인 서비스 등 원격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e-러닝 플랫폼에서 진행 가능한 워크숍/튜토리얼(90분). 이 워크숍/튜토리얼은 다음과 같은 포맷을 활용할 수 있다. ● 참가자를 3~5명의 워킹 그룹으로 나누어 튜토리얼을 진행한다. ● 각 그룹에 허위정보/잘못된 정보/트롤링/아스트로터핑/온라인 괴롭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악의적인 콘텐츠 사례를 제공한다(마리아 레사, 제시카 아로, 알렉산드라 파스칼리도 등 이 모듈에서 논의된 사람들을 겨냥해 만든 콘텐츠가 게재된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 채널을 검색한다). ● 각 그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해야 한다: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에 접근(자료 이면에 존재하는 개인, 집단에 대한 정보 탐색); 위험과 위협을 확인(추천 자료의 영향력과 관련된 연구 참조); 자료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계획 제안(전략적으로 응답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를 플랫폼이나 경찰에 신고하며, 관련된 이야기를 발행하는 것 등); 행동 계획을 250자 내외로 요약 작성하고(구글 독스나 유사한 공유 편집 툴 활용) 리뷰를 위해 강의자/튜터에게 제출	90~120분	1, 2, 3, 4, 5

대안적 구조

이슈들을 좀 더 깊이 다루기 위해 이 모듈을 확장해 세 개의 분리된 교과로 운영할 수도 있다(각 교과는 위에 묘사된 대로 두 부분으로 전달한다).

- ▷ '트롤링'과 '아스트로터핑'을 인지하고 대응하기
- ▷ 디지털 위협 모델링[41]과 방어 전략
- ▷ 성 차별적인 온라인 괴롭힘과 폭력 인지하고 관리하기

과제 제안

온라인 괴롭힘 경험이 있는 저널리스트(예. 허위정보의 대상이 된 경우, 혹은 허위정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디지털 보안 위협 직면, 혹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온라인 폭력의 대상이 된 경우)를 한 명 이상 인터뷰해 5,000자 분량의 특집 기사를 작성하거나, 5분짜리 오디오 보도, 3분짜리 영상 보도 제작. 혹은 상세한 양방향 인포그래픽을 작성하라. 참가자들은 특집 기사에 저명한 연구를 인용해야 하고, 이런 현상이 저널리즘/표현의 자유와 공중의 알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41 Stray, J. (2014). Security for journalists, Part Two: Three Modeling. https://source.opennews.org/articles/security-journalists-part-two-threat-modeling/ [2018.3.2. 접속]

독서 자료

Aro, J. (2016). The Cyberspace war: propaganda and trolling as warfare tools. European View. Sage Journals, 2016년 6월, Volume 15, Issue 1.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007/s12290-016-0395-5 [2018.7.20. 접속]

Haffajee, F. (2017). The Gupta Fake News Factory and Me, The Huffington Post. https://www.huffingtonpost.co.uk/2017/06/05/ferial-haffajee-the-gupta-fake-news-factory-and-me_a_22126282/ [2020.5.14. 역자 접속]

OSCE(2016). Countering Online Abuse of Female Journalists. https://www.osce.org/fom/220411?download=true [2018.3.30. 접속]

Posetti, J. (2017). Fighting Back Against Prolific Online Harassment: Maria Ressa. Kilman, L. (Ed) An Attack on One is an Attack on All (UNESCO). https://en.unesco.org/sites/default/files/an_attack_on_on_is_an_attack_on_all_chapter_8.pdf [2020.5.14. 역자 접속]

Posetti, J. (2016). Swedish journalists Alexandra Pascalidou Describes Online Threats of Sexual Torture and Graphic Abuse. The Sydney Morning Herald. 2016.11.24. https://www.smh.com.au/lifestyle/swedish-broadcaster-alexandra-pascalidou-describes-online-threats-of-sexual-torture-and-graphic-abuse-20161124-gswuwv.html [2018.3.30. 접속]

Reporters Sans Frontieres (2018) Online Harassment of Journalists: Attack of the trolls. Reporters Without Borders. https://rsf.org/en/news/rsf-publishes-report-online-harassment-journalists [2020.5. 14. 역자 접속]

Riley M, Etter & Pradhan, B. (2018). A Global Guide To State-Sponsored Trolling.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features/2018-government-sponsored-cyber-militia-cookbook/ [2018.7.21. 접속]

Stray, J. (2014). Security for Journalists, Part Two: Threat Modelling. https://source.opennews.org/articles/security-journalists-part-two-threat-modeling/ [2018. 3.2. 접속]

온라인 자료

동영상: 트롤과 온라인 괴롭힘 다루는법(How to Tackle Trolls and Manage Online Harassment)-2017년 4월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열린 국제 저널리즘 페스티벌 패널 토론.

참석자: 줄리 포세티(〈페어팩스 미디어〉), 한나 스톰(국제뉴스안전연구소), 알렉산드라 파스칼리도(스웨덴 저널리스트), 매리 해밀턴(〈가디언〉), 블래스네이드 힐리(〈CNNi〉).

https://www.youtube.com/watch?v=FlxMPKAww7Q [2020.5.14. 역자 접속]

저자

마그다 아부-파딜: 레바논에 있는 미디어 언리미티드 이사다.

퍼거스 벨: 디지털 뉴스 수집 및 이용자 제작 콘텐츠 검증 전문가. 딕 디퍼 미디어(Dig Deeper Media) 설립자다.

호세인 데락샨: 캐나다 국적의 이란인 작가.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미디어, 정치 및 공공정책에 관한 소렌스타인 센터 연구자 겸 펠로우다.

알렉시오스 만찰리스: 포인터연구소에서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다.

앨리스 매튜스: 시드니에 있는 〈ABC〉 방송 기자다.

줄리 포세티: 옥스퍼드대학 저널리즘 연구를 위한 로이터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저널리즘 혁신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톰 트레위나드: 미단의 오픈소스 검증 툴킷 체크(Check)의 프로그램 리더다.

클레어 와들: 퍼스트 드래프트의 이사이며,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미디어, 정치 및 공공정책에 관한 소렌스타인 센터 리서치 펠로우다.

사진 크레딧

표지: 유네스코/ 오스카 캐스텔라노스(Oscar Castellanos)

모듈1: 아브히지스 S. 나르(Abhijith S Nair), 언스프래시

모듈2: 크리스토프 숄츠(Christoph Scholz), 플리커

모듈3: 사뮤엘 젤러(Samuel Zeller), 언스프래시

모듈4: 아론 버든(Aaron Burden), 언스프래시

모듈5: 기후프로젝트, 언스프래시

모듈6: 올로웹 솔루션즈, 언스프래시

모듈7: 로픽셀, 언스프래시

뒷표지: 로픽셀, 언스프래시

그래픽 디자인

클린턴 (www.mrclinton.be)

외부 검토자: 일바 로드니-구메데(Ylva Rodny-Gumede) 교수,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대학, 저널리즘, 영화 및 텔레비전 학과; 바시오우니 하마다(Basyouni Hamada) 교수, 카타르대학, 예술과학대학, 매스커뮤니케이션 학과; 제이슨 하신(Jayson Harsin) 교수, 파리 아메리칸대학,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 책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과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이 핸드북은 여러 나라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 커리큘럼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대로 채택하거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 문제로 떠오른, 특히 저널리즘 영역의 문제로 떠오른 전 세계적인 허위정보에 대응하려 한다.

모델 커리큘럼 역할을 할 이 책은 저널리즘 학생과 수행자들의 '가짜뉴스'와 관련된 이슈 탐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널리즘 교육자와 훈련자들에게 적절한 프레임워크와 교과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우리는 또 이 자료가 저널리스트들의 실천에도 유용한 안내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콘텐츠들은 세계 최고 저널리즘 교육자, 연구자, 사상가들의 작업을 한데 모은 것이다. 이들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의 도전을 다루는 저널리즘 기법과 실천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교과들은 맥락적이며, 이론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검증은 굉장히 실질적인 것들로 구성돼 있다. 이 자료들을 한 교과로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개별 모듈을 별도로 활용해도 된다. 이 자료들을 활용하면 기존 교육 모델을 새롭게 하거나, 새로운 교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유네스코 국제 커뮤니케이션 개발 사업이 주력하고 있는 '탁월한 저널리즘 교육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국제적인 모범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 관점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치고, 실천하며, 연구하는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PDC THE INTER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UNESCO -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ctor
7, place de Fontenoy, F-75352 Paris 07 SP, France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ipdc.secretariat@unesco.org

비매품/무료
03300
9 791190 615044
ISBN 979-11-90615-04-4